달마 for Windows 95
사찰 종무 관리 프로그램
사찰 전산화의 선두 기업 이란티 (02)3142-0108

현대불교

人蔘의 약효!
원비-디®

회장: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논설고문:고은/편집국장:최정희/인쇄인:김규석/등록번호:다-3379/㉾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737-8881/편집국 722-4162 FAX:737-0698/광고국:737-0692/구독신청 737-8881 구독료: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2년(서기 1998년) 8월 19일 수요일(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제186호

"돈 많이 모아서 보시한다면 언제 남을 돕겠어요."

지난 1일 오전 서울 구로역 애경백화점 7층에 위치한 헤어디자이너스클럽. 원장 전상섭씨(37)가 하던 일을 멈추고 7월 한달간의 수익금을 계산한 후 그 중 일부를 봉투에 넣어 아래층 은행으로 내려간다. 전씨가 매달 은행에 따로 입금하는 이 돈은 이른바 '보시 통장'에 들어가 각 사회·복지단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체로 자동 이체된다.

미용사가 70명에 달하는 유명 미용실 네곳을 운영하는 전씨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매달 수익금의 5%를 온라인으로 불교계 복지시설 등에 보낸다. 그가 도움을 주고 있는 곳은 북녘동포·불우이웃·소년소녀가장돕기 단체를 비롯 길음복지관, 생명나눔실천회, 우리는신우, 고아원 등 10여곳이 넘는다. 자동이체 되는 후원금만해도 수백만원에 달한다.

보시통장



최근에는 수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KBS에 1백만원을 선뜻 내놓았다. 올 2학기부터는 중앙승가대학교에 재학중인 한 비구니스님의 학비를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매년 연말에는 '보시 통장'이 모여진 가운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전액 혜명보육원, 중지청소년의집 등 교계 고아원에 기탁한다. 고아원, 경로당에서는 특별한 행사 때마다 수시로 그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그래도 싫은 내색 하나 없다.

18년전부터 미용사 일을 해오다 7년전에 지금의 사업을 시작했다. 매달 보시금을 따로 떼내었고 붇나는대로 곳곳에 미용봉사를 다녔지만 사업은 오히려 번창했다. 그는 "베푼 것의 10배는 되돌아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 같다"고 말한다. 그가 이같은 무주상보시를 결치게 된 것은 6년전부터 다니는 안양 한마음선원에서 원장 대행스님의 '놓고 살라'는 법문을 듣고 부터였다.

그는 돈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다.

40대 이후에는 수행에 전념하고 싶다는 그는 매달 10회 이상 수선회에서 참선에 열중하는 생활속의 수행자이기도 하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폭우로 60여사찰 피해

경기북부 '심각'…보광사 재산 손실 13억원
복구장비·인력부족…사찰 재난대비책 절실

7월말부터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집중호우로 12일 현재까지 전국 64곳의 사찰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극심한 호우 피해를 입은 곳은 경기북부와 강화도 지역의 사찰들. 경기북부지역의 파주 보광사의 경우 사찰 뒷편에서 쏟아져 내린 산사태로 요사채가 무너져 내려 잠자고 있던 하림스님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보광사는 임시법당과 축대가 유실되는 등 총 13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등사 보문사 등 10여 사찰이 축대 붕괴와 도로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강화지역은 집중호우가 내린 6일과 7일 이틀간 교통과 전기 전화등이 단절돼 큰 불편을 겪었다. 1일밤 자리산 일대에 쏟아진 폭우는 화엄사 연곡사등 9개 사찰의 도로와 축대를 파손해 일부 사찰의 진입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자 각 종단은 피해상황을 파악, 대책회의를 잇따라 열고 복구지원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통신과 교통두절로 인해 피해상황 파악이 어려울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게릴라성 폭우가 지역별로 내리고 있어 전국적인 피해 규모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북부와 강화도 지역 피해 사찰들은 10일을 넘어서며 비가 소강 상태를 보임에 따라 부분적인 복구에 나섰지만 장비와 재정, 인력등의 부족으로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근 지역신도들 마저 적잖은 수해를 입어 사찰의 일손이 크게 부족하다.

불교계에서는 사찰도 폭우 등의 재난에 대비한 종합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돼고 있다. 특히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 사례가 산사태나 도로유실등에 집중된 점을 주목, 이에대한 각별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특별취재팀 (ytlim@buddhapia.com)



◇7월말부터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게릴라성 호우는 사찰에도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사진은 7월30일 경주지역에 내린 비로 지붕이 내려 앉은 경주 삼불사 요사채.

문화재 피해도 속출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집중호우로 인한 문화재 피해도 속속 파악되고 있다.

1일 지리산 지역에 내린 폭우로 순천 선암사의 승선교(보물제400호)의 토사가 일부 유실됐으나 다리의 본체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적 제128호인 경기도 양주군 회암사지는 축대 11미터가 훼손 됐으며 충남 태안의 마애삼존불(보물 제 432호)은 진입로 계단 일부가 유실됐다. 파주 보광사는 만세루 상량문 원문(1869년)이 멸실되고 심장탱화 한 점이 상당부분 파손됐으며 소형 불상 3점도 멸실됐다.

조계종과 문화재 관리국은 호우로 인한 성보문화재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찰측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취재팀

조계종 상징문장 내년부터 사용

올내 개발 마무리

조계종은 소속 사찰과 종단 이미지를 통일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종단 문장 개발을 금년내로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문장 개발은 종단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최대한 수용하고 시각적으로 종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9월까지 디자인을 개발하고 10월 종단차원의 검증을 거쳐 11월에는 관련 종법의 개정과 시행지침을 마련 할 계획이다.

종단 문장이 사용될 경우 미등록사찰과 등록사찰의 구분이 명확해져 사실사암의 종단등록 작업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종명 사용의 통제 등 종단 운영의 투명성과 사찰과 포교당의 문서 통일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임연태 기자

8·15 대축전 방북 '취소'

구체적이유 불분명

불교계인사의 북한 방문이 취소되거나 잠정 연기되는 등 방북길에 제동이 걸렸다.

8·15대축전 참가를 위해 11일 오전 북경에서 고려민항편으로 방북할 예정이었던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 지선스님과 유지원, 김기창씨의 방북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계인사의 방북은 취소된데 반해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신부 9명은 입북한 것과 관련 북측이 8·15 통일대축전에 이용가능한 단체만 선별 허용한 것 같다는 관측이다.

한편 북측으로부터 입북연기 요청을 받은 평불협과 진각종 관계자들은 9월말에서 10월초로 방북일정을 재조정하고 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무인년 하안거 해제

무인년 하안거가 6일 해제됐다.

전국 66개 선원에서 3천여 스님이 정진한 이번 하안거는 5월에 윤달이 들어 음력 6월 15일을 맞아 해제됐다 해제를 맞아 영축, 해인, 조계, 덕숭, 고불 등 5대 총림의 방장스님들은 일제히 법어를 내리고 "중단 없는 정진으로 본래면목을 찾을 것"을 당부했다. <5대총림 방장 해제법어 12, 13면>

현대불교 지면 일부 개편

지방면 확대 · '독자마당' 매주 게재

현대불교 신문이 늘어나는 지방 소식을 충실하고 상세히 보도하기 위해 지방면을 확대하는 등 일부 지면을 새롭게 편성합니다.

■지방소식 22면

각 지역의 행사와 사건은 물론 지역 인사의 동정과 사찰 불사를 상세히 안내하는 지방면을 22면에 꾸밉니다.

■일부지면 조정

△6면은 열린마당과 독자페이지를 통해 교계 여론을 반영하고 △18면의 세상보기와 시론은 불교에서 보는 시사문제를 심층분석합니다. △21면에는 독자여러분의 신행을 돕기 위해 주간 신행캘린더를 신설했습니다.

불교문화 체험기행

9월 불교문화 체험기행은 여주 신륵사, 고달사지, 목아박물관을 찾아갑니다.

이번 기행에서는 불상을 비롯 회화·공예·민속품 등이 전시돼 있는 목아박물관(관장 박찬수)에서 하나의 나무가 불상이 되기까지의 제작과정을 알아봅니다.

탑을 구성한 벽돌의 무늬가 수려해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다층전탑(보물 제226호)과 남한강가의 바위절벽에 위치한 정자 강월헌(江月軒), 나옹화상의 입적처로 유명한 여주 신륵사와 부도(국보 제7호)를 비롯해 원종대사 혜진탑(보물 제7호) 등 국보급 석조문화재가 많이 남아있는 고달사지도 답사합니다.

9월 "부처가 되고 싶은 나무"

'신륵사·목아박물관·고달사지'

◇출 발: 9월13일(일) 아침7시 조계사 앞
◇회 비: 3만원(점심 제공)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722-4162
혜초여행사 (02)722-3900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혜초여행사 협찬: 일양약품

수재민을 도웁시다

· 조계종: 국민은행 023-01-0553-244(불교중앙교무원) · 불교인권위원회: 제일은행 128-20-303720(박용모)
· 불교TV: 국민은행 827-25-0018-788(불교텔레비전) · 불교방송: 국민은행 827-25-0022-504(불교방송)

도서출판 세존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28-6 남현빌딩 · 전화 3462-2277 / 팩스 3462-2279

역사속으로 찾아가는 죽음기행!

남산이 북산을 보며 웃네

그대 최후가 그대의 전부이다!
여기 그 죽음을 빛나는
인간들의 최후를 통해서
극적으로 보여주는 전람회가 있다.
맹란자 여사의 불교, 老莊,
그리고 周易의 여가에 그 일을 해내어
사람들을 한밤중에 깨어나게 하고 있다.
- 고은 추천사에서 -



· 유명인들의 죽음순간 생생히 묘사 · <한국일보> 4.15.
· 세계적인 철학자, 예술가 죽음에도 닮은 꼴 있었다 · <뉴스피플> 4.23.
· 죽음앞에서 더 눈부신 삶 표현 · <경향신문> 4.17.
· 죽음 또한 자연 아닌가/ 장자, 육상산과 왕수인, 소강절과 서화담
· 이 책은 읽는 재미와 함께 자기 삶을 들여다보고 내다보게 한다
따라서 남녀노소 두루 볼 수 있는 가족 필독서 · <현대불교신문> 4.8.
· 동서양 역사인물들의 죽음에 얽힌 이야기들을 다룬 인문교양서다 · <서울신문> 5.5.



· 신국판 | 304쪽 | 값 7,000원
· 저자 : 맹 란 자

지금은 IMF시대, 어려운 시기에 우리옷을 입읍시다.

우리옷 —— 연/지/곤/지

연지곤지는 생활한복 대중화를 위해
가격에서 거품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 단체특주문시 (30인이상) 최고급 생활한복을
₩50,000(상하 1벌)에 공급해 드립니다

◐ 생활한복 사업하실분 상담환영합니다. ◑

▶ 문의처 02)3461-8552~3 (강남)

안국동 로타리에 연지곤지 전시장이 있습니다. 02)732-8552

사 설

수해복구 내 일처럼

대재앙의 예고인가. 지구 곳곳에 기상이변이 계속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가 하면 한쪽은 때아닌 홍수로 고통을 받고 있다. 러시아는 지금 비가 내리지 않아 농작물의 수확 감소를 걱정하고 있는데, 중국과 우리나라는 예측할 수 없는 비로 물난리를 겪고 있다.

며칠전 지리산에 퍼부은 비가 계곡에서 휴가를 즐기던 사람들을 휩쓸어 갔다. 그 시신을 채 수습하기도 전에 서울과 경기를 강타한 비는 인명과 재산의 천문학적 손실을 안겨주었다. 그런데도 아직 그 수마는 물러가지 않았다 한다. 어디를 어떻게 칠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이 게릴라적 호우를 기상학자들은 엘니뇨의 산물이라고 진단한다.

엘리뇨는 하늘이 내린 재앙이라기보다 인간이 만든 재앙이다. 세계는 지금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고민하고 대처를 모색하고 있다. 우리도 거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정책결정권자들은 환경과 기상에 대한 전망을 갖고 이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그게 꿈같은 기대만 같다.

그동안 당파적 이기에 빠져 소모적 정쟁에 몰두하던 선량 아닌 선량들이 홍수가 났다 하니 괜시리 현장을 기웃거리며 하나마나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국민들은 이들을 준엄하게 다스려 주권의 소재와 권력의 원천을 분명히 자각시켜 줄 일이다. 어디 국회의원뿐인가. 관료와 행정가들의 책임은 더욱 크다. 홍수만 해도 재작년에 그 난리를 겪었으니 문제점이나 대비책에 대한 구상은 이미 나와 있었다. 송파구청처럼 그 심각성을 의식하고 대비를 적극 강구한 곳은 수마(水魔)로부터 삶의 터전을 지켰다. 다른 지역의 단체장들이나 행정관리들은 여전히 하늘의 무심함만 탓하고 있었다. 이것이야 말로 무책임과 무소신의 전형이다. 대체 언제까지 이웃과 동포의 원시적 온정에 기대어 사후약방문,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전철을 되풀이 하려는가. 그 전에 보다 과학적이고 냉철하게 사태를 준비하고 대처하는 지혜와 능력부터 갖추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더라도 재난은 이미 우리 앞에 있다. 벌어진 재난을 수습하고 고통을 덜어가는데 모두가 동참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각계의 성금과 물자가 답지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내 일인 듯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이웃과 더불어 살고 있음을 눈물겹게 실감케 하는 일이다. 종교계도 이 동체대비(同體大悲)에 예외일 수 없다. 특히 불교계는 수해구호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인 재난구호활동에 나섰다. 무엇보다 억울하게 횡액을 당한 희생자들의 영혼을 천도하고,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다독거리고 용기를 북돋우는 것이 급선무이다.

벌써 베이스캠프를 설치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구호금과 물자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전달하려면 의욕만 갖고는 부족하다. 다양한 자원봉사자들을 조직적으로 훈련시키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사관(事判)으로서의 지혜가 절실한 때이다. 이 일에 있어 지역을 따지고 종교를 따지고 계층을 따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일선행정에서는 그런 폐단이 노정되어 원성을 사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이 일은 조계종이 주관하되, 전 불교계의 통합된 울력과 동심(同心)을 결집시켜줄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종파를 넘어 종교계 일반의 통합 사업으로 연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 평소의 반목과 질시를 넘어 서로간의 벽을 허물고 이해를 도모하는 다원주의적 공존과 화해까지 기대할 수 있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올 여름 휴가비는…

국민회의 연등회 "훼불방지 노력"

종교편향대책위와 면담서

국민회의 연등회(회장 박상규)는 5일, 최근 잇따라 발생한 훼불 및 종교편향 사태와 관련해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등회간사인 조성준의원은 이날 종교편향대책위원들과의 면담에서 "관련기관인 국방부 경찰청 행정자치부 검찰청 등에 공문을 보내는 등 연등회 차원의 대응과 이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은 연등회의 요구로 포교원에서 이뤄졌다.

조의원은 또 "빠른 시일내에 2기 청와대불자회 구성을 협의하고 국회정각회를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공동조사위원장 진관스님과, 조사위원 법안스님, 종교편향대책위 공동위원장 원혜스님, 새불교승가회 도관스님, 조성준 정한용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8일 조계사에서 열린 '훼불척결 결의법회'에 참가한 불자들이 훼불사진 등을 들고 법당을 돌고 있다.

새불교승가회-경불련-대불청등 21개 단체

정부 훼불방지책 거듭 촉구

8일 결의법회 열어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경불련 대불청 등 종교편향대책위 참가 21개 단체 회원 2백여명은 8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국민정부 훼불만행 척결 결의법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종교편향과 개신교도의 훼불만행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이날 법회는 참회기도와 법문 발원문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현근스님(조계사 주지)은 법문을 통해 "진정한 자비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이끄는 것"이라며 불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종교 편향과 훼불만행을 일삼는 이교도의 지도자들이 대오각성하여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기를 발원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법회 후 조계사-세종문화회관-정부종합청사에 이르는 구간에서 침묵가두행진을 계획했으나, 폭우로 취소하고 제주 원명선원 훼불현장 사진과 '정법수호 날센 칼로 훼불만행 뿌리뽑자' 등이 쓰인 피켓을 들고 대웅전 주위를 돌며 석가모니불을 정근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제주불교총연합회 호법대책위원회(위원장 도종·월라사주지)도 8일 보현사 대웅전에서 '교권수호를 위한 제주불교대표자 호법법회'를 열고 편향없는 종교정책 실현을 촉구했다.

호법대책위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원명선원에 이은 도림사 훼불사건은 광신적 이교도에 의해 저질러진 단순 사건이 아니라, 국민 정부의 종교편향 정책과 당국의 훼불만행 방조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불교박해"라고 규정하고 "편향없는 종교정책 실현의 조속한 실천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방해받지 않는 자유로운 종교활동의 보장과 타종교인에 대한 위해나 성물, 종교시설에 대한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법규정을 입법화 할 수 있도록 총무원과 국회는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정성운·김중근 기자 〈swjung@buddhapia.com〉

'하나님 정권' 발언 한화갑총무 사과

종교편향 공동조사위원장 진관스님과 도관스님은 9일 '하나님 정권' 발언자인 국민회의 한화갑원내총무를 방문,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 원내총무는 "발언에 신중을 기하겠다"며 사과했다. 한 원내총무는 7월16일자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김대통령의 개혁이 좌절하면 이 나라의 미래는 정말 참담해진다.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 정권인데…"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정성운 기자

"경찰 사찰투입 신중"

대책위, 경찰청장에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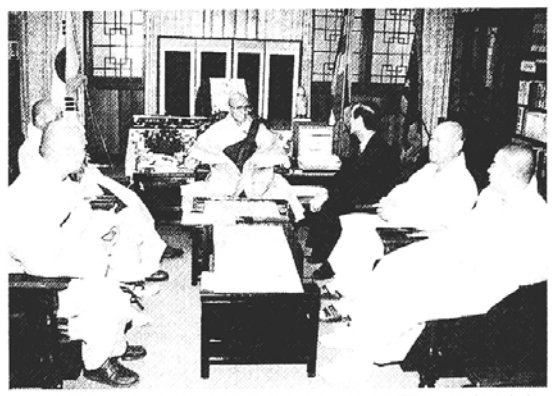
종교편향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송강, 원혜스님)는 11일 현대중기 노동자 농성과정에서의 경찰의 조계사 진입 등과 관련, 경찰청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사찰에 대한 신중한 경찰력 집행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공문에서 "법당과 종교시설에 대한 공권력의 남용은 사찰을 찾아오는 신도들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불심검문을 최소화해 도량을 찾는 국민들에게 위해감을 주지 않도록 신중한 주의가 요청된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성경선거' 강북구청장 교계에 정식사과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식을 해 물의를 빚어던 강북구청장이 교계에 정식 사과했다.

장정식 강북구청장은 13일 강북불교협의회(회장 동광·도선사주지) 소속 스님들이 방문한 자리에서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김중근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10일 불국사주지 성타스님과 이원식 경주시장에게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종단차원의 적극동참 의사를 밝혔다.

조계종 경주문화엑스포 적극동참

조계종은 '새 천년의 미소'를 주제로 9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개월간 경주에서 열리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10일 불국사 주지 성타스님과 이원식 경주시장, 이용택 경주관광개발공사 사장 일행의 예방을 받고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우리 전통문화의 근간이 되는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종단 차원에서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번 엑스포 행사에 불교 관련 행사가 적지 않다는데 주목, 이달말 교구본사 주지회의를 소집 문화엑스포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방침이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서는 9월 18일부터 3일간 불국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오케라 '원효'가 공연되고 10월에는 영산대재가 결쳐진다. 특히 불국사는 엑스포와 관련 자체 행사로 김영동의 '천년의 소리' 공연과 국악예술공연을 마련한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대흥사 차기주지에 보선스님 추대



조계종 제22교구본사 해남 대흥사는 10일 산중총회를 열어 차기 주지 추천자로 현 부주지 보선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보선스님은 66년 천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72년 월하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82년 불국사승가대학을 졸업한 스님은 전남 백련사 주지, 총무원 호법국장 등을 역임했다. 보선스님은 "불교발전을 위해 활발한 포교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종교인협 8·15 맞아 민족화합 메시지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 월주)는 광복절 53주년을 맞아 13일 오후2시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대국민 선언문을 발표하고 구국기도회를 가졌다.

협의회는 선언문을 통해 "민족의 화합과 통일, 그리고 경제난 극복을 위해 모든 종교인들과 국민이 함께 뜻을 모아야 할 때"라고 전제하고 종교인들은 종교인 본연의 자세로 남북의 화합 기틀을 다져 나가자고 당부했다.

또 남북의 지도자들을 향해 △7·4남북공동 성명의 정신과 91년 남북 고위급회담의 정신을 살려 통일의 기반을 다지고 △무모한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고 평화적 대화의 장을 넓혀 △민간차원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임연태 기자

9월 24·25일 경승연수회

전국의 경승 6백6명을 대상으로 하는 경승연수회가 9월23일부터 24일까지 열린다.

경승단(단장 성타·조계종 포교원장)는 11일 종단협의회 회의실에서 전국 경승실장 간담회를 갖고 경승연수회와 관련 세부일정및 장소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승의 자격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경승령 제정안에 대한 설명과 향후 경승활동 방향에 대한 논의 등이 진행됐다. 김중근 기자

풍산한식 동기와 판매및 시공
◆ 서푼짜리 기와때문에 친낭짜리 대들보가 썩어서야?
◆ 사찰기와 재보수 이젠 걱정 없습니다.
천년을 이어갈 가람, 풍산 한식 동기와로 보존 하십시오.
전문 시공업체 —— 成源産業 대표 최 대 룡 합장
TEL (02)3663-1737 FAX (02)3664-8216
H.P (011)445-7811 야간 (02)502-7811,7827

'98 KYONGJU WORLD CULTURE EXPO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경주인업사가 함께하는 옥도장 大 축제
·축제기간 ▶ 1998년 11월 10일까지
축제 1 : 천연보석인장을 사주(四柱)운명학술, 성명(姓名) 철학 해드립니다.
축제 2 : 보석인장 시중가 ₩50,000~₩100,000 상품을 행사중에는₩35,000에 조각하여 판매함.
축제 3 :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입장권 1매 보너스 증정.
貴 고귀함 ■존경받는 삶의 상징입니다. 영원불멸의 상징입니다.
護 수호신 ■잡귀와 재앙을 쫓는 수호능력이 뛰어난 보석입니다. 신심이 여약한 분들께 특히 권합니다.
尊 존귀함 ■가장 오래된 보석인 마노의 일종입니다. 장중한 무게와 ■존귀함의 상징이 되어 왔으며 다소 가벼운 분들께 권합니다.
幸 행운 ■희망과 행복을 준다고 전해 집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권합니다.
信 설득력 ■인류최초의 보석입니다. 설득력이 생기고 신의 은총이 따른다는 보석입니다.
■ 엑스포 입장권 제외시에는 30,000원입니다. ■
저희 기술은 30년의 전통으로 당신의 사주 운명철학을 풀이하여 섬세하게 조각해 드립니다. 본 인장업은 요번 행사에 경주문화 엑스포 지정 후원업체로서 경주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엑스포의 성공을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저 합니다.
※ 주문하실 때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세요.
거래은행
전화·FAX·우편주문가능/단체주문 환영합니다.
제일은행 : 755-20-213591 농협 : 749-01-090147
우체국 : 700047-0377063-12 예금주 : 홍 태 준
입금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도착시켜 드립니다.
주 문 처
780-020
경주시 노동동 172-5번지 (농협중앙회 앞)
경주인업사
전화 : (0561)43-6922/772-6922
FAX : (0561)745-6922
⊙ 부모님께 선물하세요/연인끼리 간직하면 좋아요 ⊙



◇강화도 지역 사찰 100여곳이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11일 강화 적석사 피해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번 폭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파주 보광사. 산사태와 도로유실, 축대유실, 법당유실의 현장이 안타깝기만 하다.

수해현장 자비손길 '그나마 위안'

각종단 피해사찰들 파악 복구대책 부심
자원봉사대 곳곳서 구슬땀…성금 모금도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전국의 사찰에서 피해가 속출하자 각 종단과 단체들은 발빠른 대응으로 피해의 최소화에 나섰다. 또 수해현장 이재민의 고통 나누기에도 적극 나서는 한편 사찰의 복구를 위한 종단 차원의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각 종단 단체의 대응 50곳 이상의 사찰이 피해를 입은 조계종은 7일 수재구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각 사암에 수재구호활동및 수재의연금 모금을 위한 공문을 발송하는 등 종단차원의 재해 대책에 나섰다. 8일 오전8시 직할사암 주지들을 소집해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수해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과 수재민 구호를 위한 모금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8일과 9일 파주시청과 동두천 시청을 방문해 피해지역을 둘러보고 각각 5백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이어 11일과 12일에는 강화도와 서울 노원지역을 방문 해당 사찰 주지스님과 주민들을 격려하고 복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사회부와 복지재단은 피해사찰의 현황을 파악하고 종단차원의 복구 지원대책과 자원봉사자 파견 방안을 마련하는등 사찰의 피해 복구에 적극 나섰다.

태고종은 12곳 이상의 사찰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자 12일부터 30일까지 수재민 돕기 대자비 실천운동의 기간으로 정했다. 수해로 희생된 영령을 위한 위령재의 봉행도 검토중이다.

진각종은 10일 서울지부 금강회를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종단 소속 심인당의 피해를 점검하고 대규모 수해 지역 주민돕기에 종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천태종과 관음종 등 각 종단들은 소속 사찰의 피해상황이 크지 않음에 따라 수재민 돕기에 동참할 방침이다.

종단협의회도 7일 재해구호위원회를 구성, 25개 회원종단에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독려했다.

진주사암연합회(회장 혜오)는 4일 지리산 호우로 숨진 사람들을 위한 합동 위령재를 진주의료원에서 봉행하고 수마에 희생된 영령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자원봉사활동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7일부터 매일 70명에서 1백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를 파주와 동두천 지역에 파견하고 있다. 가재도구 정리와 빨래 청소등의 일을 도우며 수해 주민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자원봉사에는 중학생에서 60대 노보살들까지 동참한다.

조계종은 이들 자원봉사자들을 피해사찰의 복구 현장에도 파견할 방침이다. 진각종은 10일부터 매일 15개 심인당과 5개의 어린이집 등에서 밑반찬을 만들어 서울 노원, 도봉, 강북구와 동두천 의정부 파주 일대 수해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내의와 수건 비누 등 생활필수품도 심인당별로 모아 전달하고 있다.

조계사 신도회도 11일부터 매일 50명씩의 봉사대를 꾸성해 동두천 등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능인선원도 13일과 14일 이틀간 1백명씩의 신도들이 수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벌였다. 광동종합고등학교는 12일부터 1백명씩의 학생들이 의정부시 내곡리 일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성금보내기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7일 수재의연금 1천만원을 KBS에 전달하고 불교방송에도 3백만원을 전달했다. 천태종과 진각종도 10일과 11일 KBS에 1천만원씩 전달했다.

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는 법회에서 수재의연금을 고금해 10일 MBC에 1백만원을, 동아일보에 50만원을 각각 기탁했다. 도선사(주지 동광)는 강북구청에 1백만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노원구청 등에도 성금을 보냈다. 능인선원(주지 지광)은 11일 의연금 1천3백20만원을 KBS에 전달했으며 같은날 MBC에도 1천2백70만원의 성금을 보냈다. 청계사(주지 지명스님)는 동아일보에 5백만원의 성금을 전달했으며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우)도 12일 불교방송에 3백만원의 성금을 전했다. 우리는선우는 파주 보광사 복구기금을 모아보냈다.

조계종과 불교방송, 불교텔레비전, 불교인권위가 개설한 수재의연금 접수 구좌에 각 사찰과 신행단체들의 온정이 답지하고 있다.

특별취재팀: 임연태 · 김중근 · 도필선 · 고영배 기자
(ytlim@buddhapia.com)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소속 자원봉사자들은 매일 파주, 동두천 등지에서 수재민의 시름을 달래고 있다.

함께 이겨내자

봉덕사서 50여명 침식

○…산사태로 진입로가 유실된 봉덕사에는 인근 피해주민 50여명을 위한 임시 대피소였다. 수마에 삶의 터전을 빼앗긴 김진호씨(50)는 "절도 피해를 입었는데 이렇게 잘곳을 내주어서 고맙기 그지없다"며 "나누는 삶의 소중함을 배웠다"며 스님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어려움 돕는일은 포교

○…중학생인 아들과 조카를 데리고 피해현장에서 봉사를 하는 이종희씨(47)는 "아이들에게 일하는 보람과 재해의 무서움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아들 · 조카와 함께 봉사

○…서울 청량사 성법스님은 매일 봉사자들 틈에 끼어 수마극복의 현장에서 일손을 돕고 있다. 스님은 "이런때 일을 돕는 일보다 더 큰 포교가 어디 있겠느냐"고.

◇전국 사찰 폭우피해 현황 (8월 12일현재)

사찰명		피해 내용
대원사	은평구	· 토사유실
미륵암	은평구	· 토사유실 · 축대붕괴
예성사	은평구	· 토사유실 · 축대붕괴
금강암	도봉구	· 요사채 침수, 가전제품 파손, · 축대 붕괴
내자사	도봉구	· 토사유실
천축사	도봉구	· 산사태로 목성각 유실 · 임시 대중공양간 유실 · 요사채 침수 · 진입로 유실
삼원사	정릉	· 법당뒤 산사태, 마당축대붕괴
대성사	정릉	· 법당 붕괴
미타사	옥수동	· 축대붕괴 및 담 무너짐
인과선원	월계동	· 침수
보문사	강화	· 대웅전 앞마당 일부 붕괴 · 주변 산사태 다수 · 천인대 지리 산사태 매몰
전등사	강화	· 부도전 축대 붕괴(길이10m, 높이4m) · 배수로 파손 축대(길이10m, 높이4m)붕괴 및 산사태 · 경내 도로 유실 · 주차장 토사 유실 · 적묵당 앞 도랑, 토사유실
적석사	강화	· 산사태 3곳, 요사채 50평 완파 · 법당앞 축대 붕괴 · 진입도로 완전 유실
백련사	강화	· 산사태로 인한 도로 붕괴
정수암	강화	· 도로파손 전기 · 전화 불통
용해사	강화	· 도로파손 법당 뒤 산사태 · 칠성각 일부 파손
황련사	강화	· 사찰입구, 진입 교량 유실 · 도로파손 축대 일부 파손
청련사	강화	· 전봇대 유실로 전기 · 전화 불통 · 도로파손
정수사	강화	· 진입도로 일부 파손, 축대붕괴, 밭 유실 · 향나무(천연기념물) 한쪽 부러짐 · 대웅전 뒤쪽 담 붕괴
선원사	강화	· 도량 유실 · 법당, 전시관 일부 침수
보리사	고양시	· 축대붕괴로 요사채 및 법당 붕괴 위험 · 진입도로 완전 유실
흥국사	고양시	· 요사체 누수, 도로유실 · 일주문 앞 축대, 화장실 앞 축대 붕괴
봉덕사	고양시	· 진입로 유실
극락사	고양시	· 토사유실
봉화정사	의정부시	· 요사채 지하, 1층 침수 · 용벽 붕괴
관음사	의정부시	· 요사채, 부엌 붕괴
대원사	의정부시	· 축대붕괴, 종각 붕괴위험
쌍룡사	의정부시	· 법당 벽 붕괴, 토사침투 · 축대붕괴, 화장실 유실
원각사	의정부시	· 축대붕괴, 다리유실, 간이부엌, 화장실 붕괴
봉국사	의정부시	· 사찰전체 완전 유실
불암사	남양주시	· 축대 붕괴 · 밭 유실
내원암	남양주시	· 진입도로 유실
봉덕사	남양주시	· 산사태로 옥외장엄물 붕괴
봉영사	남양주시	· 가법당 침수 · 다원유실 · 진입로 유실
보덕사	남양주시	· 요사채 유실
보광사	파주시	· 임시법당 매몰 · 찻집 가건물 매몰 · 축대유실 · 법고전 파손 · 요사채 3동 파손 · 하림스님 부상(현재 서대문적십자 병원 입원) · 경내파손
도솔암	파주시	· 삼성각 축대 붕괴 · 진입로 유실
금용사	파주시	· 화장실 유실
약수암	파주시	· 법당 일부 유실
청강암	파주시	· 다리 유실
심보사육지장사	양주군	· 진입로 전구간 유실
대원사	양주군	· 차량 완파 · 다리 유실
광덕암	하남시	· 진입도로 유실
경수사	용인군	· 우물매몰 · 진입로 유실
관음사	안양시	· 축대무너짐
청계사	의왕시	· 진입로 유실
망경암	성남시	· 삼성각 붕괴
대승사	장흥	· 전화불통, 요사채 2동, 가건물 2동 매몰
국청사	광주군	· 진입도로 유실
보덕사	포천군	· 진입도로 유실
용호사	청주시	· 낙뢰로 화재
선암사	춘천시	· 승선교 토사 유실
삼불사	경주시	· 요사채 붕괴
미하이불교문화원	대구시	· 천장 60평 붕괴
보광사	울진군	· 축대 붕괴
화엄사	구례구	· 돌담벽 붕괴 · 9층탑 진입도로 붕괴 · 하수도관 붕괴
금정암	구례구	· 법당 앞 축대붕괴
연기암	구례구	· 진입도로 붕괴 · 다리 앞 도로 유실 · 관음전 하천붕괴
청계암	구례구	· 하천제방붕괴
천은사	구례구	· 운수교 옆 도로붕괴 · 수홍루 옆 교량 및 도로 붕괴
수도암	구례구	· 진입도로 계곡석축 붕괴
연곡사	구례구	· 내동-평동 도로유실 · 금수관 유실 · 하수도 붕괴 · 산책로 유실
태안사	구례구	· 상수도수원지 유실 · 진입도로유실
정혜사	구례구	· 진입도로 유실

포교현장의 법사양성 (3년과정)

'98학년도 경전전문연구원 신입생 모집

1. 교과목 및 교수

요 일	과 목	교 수	내 용
월요일	아함경	최봉수(동국대)	부처님이 설파한 진리의 원음의 보고 아함경
화요일	능엄경	송찬우(승가대)	대승경전중의 수행요체의 정화인 능엄경

※ 경전개설과목 : 아함경, 반야경, 금강경, 유마경, 법화경, 능엄경, 화엄경, 육조단경, 비교종교, 종론, 해심밀경, 대일경, 금강정경 등

2.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정규반(30명) 통신반(30명)	①불교대학(정규) 이수자 ②불교교양대학(2년) 이수자 ③과목별 이수 희망자 ④포교사 취득자	①입학원서1통 ②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명함판사진 3매 ④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⑤자기소개서 1통	98년 8월 1일~ 98년 9월 5(토) (서류전형)	매주 월 · 화요일 오후 7시~9시 (본연구원 법당)

3. 개강일시 · 1998년 9월 7일(월) · 8일(화) 오후 7시

4. 입 학 금 · 일십만원

5. 졸업자격 · 3년과정의 부처님의 법음이 가득찬 경전(매주 2강좌)을 이수자에게 연구원 졸업장(전법사)을 수여함.

6. 원서문의 교부·접수 ⊙ 본 연구원 사무국(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732-1206~8, FAX 732-1207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 동산불교전문연구원

직장인을 위한 불교대학(2년과정)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교육과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을 개설!

■ 모집기간 : 년 2회(매년 2월, 8월)
■ 모집정원 : 150명

1 교과목

1학년 교과목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2학년 교과목	반야사상 · 법화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화엄사상 불교학개론 · 선종사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2 정규반, 통신반 개설

3 ☎732-1206~8/FAX 732-1207

4 특전사항 : ⊙ 조계종 포교사 고시 거쳐 포교사 자격증 취득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 동산불교대학

1998년도 도시생활 포교자를 위한(1년 과정)

한글의식교육원 신입생 모집

1. 지도법사 및 교과내용

개강일시 : 98년 9월 12일 (토) 오후 2시
지도법사 : 권지홍 법사

한글불교의식 I (전반기)	한글불교의식 II (후반기)
· 아침 · 저녁으로 행하는 예경의식 · 사시 또는 형편에 따라 행하는 헌공의식 · 정기적으로 행하는 법회의식 · 송주 … 장엄염불	· 백일 · 돌 · 생일의식과 결혼의식 · 장례의식 (1) … 일반의식 · 장례의식 (2) … 임종 · 매장 · 화장의식 · 재공의식 및 영혼천도를 위한 천도의식

2.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정규반(50명)	· 한글불교의식 희망자 · 포교사 취득자 · 포교당 운영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장	98년 8월 1일(토) ~9월 11일(금)	매주 토요일 오후 2:00~4:30 (동신법당)

3. 입 학 금 · 일십만원

4. 원서교부 및 접수 ⊙ 본교육원 사무국(☎ 732-1206~8, FAX 732-1207)
(100-170)종로구 견지동 13번지

5. 특 전 · 수료자는 동산의식법사 수여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 동산불교 의식교육원

교차로 승가



BBS 후원회 인수 논의

월주 불교방송후원회장은 19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총회를 열고, 확대 개편된 후원회의 인수인계와 후원회칙 개정 등을 논의했다.



加 불교대서 선사상 특강

인환 동국대 명예교수 스님은 3일부터 9일까지 캐나다 토론토 불교교양대학에서 '선의 정의' '선사상의 성립과 전개' 등을 주제로 특강. 스님은 20일 귀국한다.



저서연구 장려금 받아

도업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장은 〈화엄경사상연구〉로 동국대에서 시행하는 '저서지원 대상자'에 선정되어 8월12일 연구장려금을 받았다.



현대인 위한 단식 기도

행산 영산법화사 주지는 7일~9일 장흥 원당 법당에서 불확실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극기심을 길러주는 단식기도를 실시했다.



실업극복 부천시민위장에

영담 부천 석왕사 주지는 7월24일 부천시청 대회실에서 열린 실업극복을 위한 민관합동회에서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철웅스님 초청 특별법회

원학 용연사 주지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철웅스님(성전암 조실) 초청 특별법회를 적멸보궁 용연사에서 봉행한다. (053)616-8846



괌 참사 위령재후 귀국

청우 등명락가사 주지는 6일 미국령 괌도에서 KAL기 괌참사 1주년 위령재와 추모탑 제막식에 참석하고 8일 귀국했다.



고3 수험생위한 법회

지광 능인선원 주지는 16일 오전10시30분 대법당에서 대학입시를 앞둔 수험생과 부모에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두송주민가요제 열어

지현 두송종합사회복지관장은 개관 3주년을 맞아 7월30일~14일까지 사랑의 편지쓰기, 미술대회 등을 갖는 한편 24일에는 두송주민가요제를 연다.



6개월간 참선반 지도

벽암 금강정사 주지는 9월 7일부터 6개월간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지역불자들을 위한 참선수련반을 지도한다.

8·15에 만난 불자 前 프로레슬러 김 일 씨

"일본 이길수 있다는 희망 심어"



60년대와 70년대 프로레스링의 챔프 자리를 지키며 온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 주었던 김일(70)씨. 그가 시원한 박치기 한 방으로 일본 선수를 링위에 쓰러뜨릴 때마다 TV가 있는 집으로 모여 들었던 마을 사람들은 환호 했었다. 일제의 36년 압박 속에서 겪었던 온갖 수모와 고통의 기억을 그의 박치기 한 방이 후련하게 씻어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 시절의 화려했던 챔프는 올 광복절도 노원 을지병원 7층 1211호 병실에서 맞았다. 김씨는 5년째 '면회사절'이란 팻말이 붙은 병실에서 고혈압과 심질환 합병증과 생명을 건 시합을 하고 있다.

삼중스님 도움 병원서 5년째 투병
"앞으로 부처님 은덕 갚기위해 살터"

그는 당초 일본 후루오까의 나까무라 병원에서 요시가쓰라는 기업인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가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복지병원에서 외롭게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삼중스님(자비사주지)이 을지병원 박준영 이사장과 인연을 맺어 주어 5년째 병실과 치료비 일체를 지원 받고 있는 것. 박 이사장은 그의 괜이 었다는 이유 하나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운동선수로서 시합의 적이었던 일본인의 도움으로 병을 치료할 때는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국에서 많은 분들의 자비를 받고 있으니 편하기 그지 없습니다. 한 사형수가 모아 두었던 영치금을 치료비에 보태라고 보냈을 때는 한 없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때 많은 돈을 벌 기회도 있었다. 그러나 농촌에 양수기를 보급하는데 서울 강남 땅 5만평을 살만한 돈을 희사했다. 또 고향에 장학회를 만들어 후배들의 면학을 격려하기도 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쓰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값진 것은 남을 위하는 것"이라던 아버님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는 스승 역도산이 미국의 선수들을 이길 때마다 열광하는 일본인들을 보며 '내가 일본 선수들을 이길 때 한국인들은 얼마나 좋아할까'하는 생각에서 프로레스링에 평생을 걸기로 작심했다. 그리고 그는 일본선수와의 시합만큼은 반드시 이기고야 말았다. 그의 승리는 온 국민에게 일본을 이길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이기도 했다.

"어린시절 귀가 닳도록 들었던 어머님의 말씀이 제 가슴을 떠나지 않습니다. '절에서 공들여 낳았다'며 부처님의 은덕을 갚으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었죠. 한해에 1백60여 경기를 하면서 세계를 누비던 시절에도 그 말씀을 잊지 않았고 고국의 팬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전해 주는 것이 부처님의 은덕을 갚는 길이라 여겼습니다."

광복 53주년. 김일씨는 병실에서 광복절을 맞으며 부처님께 기원한다.

"분단과 IMF라는 현실을 극복하고 경제나 문화 스포츠 모든 면에서 세계가 부러워 하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도록 온국민이 정진하길 발원합니다…"

임연태 기자(ytlim@buddhapia.com)

"진취적 기상 본받자"



고구려 발해 탐방
혜당스님

혜당스님(61)은 역사학자 이이화씨와 함께 7박8일의 '고구려발해역사대탐방'에 참가하고 돌아왔다. 담양 금타선원과 해남 성불원을 오가며 생활하는 스님은 "요양시 인근에 사는 조선족 촌락의 생활모습을 본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조랑말 방목지가 된 고구려 옛 성터에 앉으니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 눈에 선연히 보입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좁은 땅에서 동족끼리 싸우지 말아야지요."

스님은 내년에 미국 오레곤주 대학에서 '동아시아의 참선과 예술의 관련성'에 관해 강의할 계획이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자비 실천해야 참된 불자"

테데스코교수 '생명윤리' 특강



◇테데스코 교수(왼쪽)와 부인 임진숙씨.

'부보는 한마음 한몸.' 프랭크 테데스코교수(세종대 영문학과)는 9일 오전11시 삼보법회 초청으로 삼보정사에서 '불교와 생명윤리'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통역은 테데스코교수의 부인인 임진숙씨가 했는데 이날 받은 강의료 40만원을 삼보법회가 추진하고 있는 장학회에 기증하기도 했다.

이날 특강에서 테데스코교수는 "사흥서원을 하고 계를 받는 자체로서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망일 뿐"이라며 "자비의 실천으로만 불법의 가치를 불자가 아닌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주한 외국인부터 포교"

국제포교사회 초대회장 양장운씨



"불교문화를 알리는 것이 한국문화를 알리는 길입니다. 지금이라도 종단에서 장소를 제공하면 주한외국인을 위한 포교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2일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양장운 국제포교사회 초대회장은 국제포교사들의 전법열의가 드높다며 종단의 뒷받침을 당부했다.

아울러 "종단이 국제포교의 중요성을 인식, 종립대학에 국제포교 전문과정을 개설해 더욱 전문적인 국제포교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씨는 WFBY(세계불교도우의회 청년회) 본부부회장을 맡고 있는 등 교계에서는 드문 국제통이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삶에 용기줄때 보람"

라디오 작품상 안희경PD



제25회 한국방송대상 라디오 교양부문에서 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BBS '거룩한 만남'의 안희경PD.

안PD는 97년 3월부터 이 프로를 맡아 어려운 이웃의 애절한 사연을 청취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으로 전달함으로써 그들이 자비행을 결칠 수 있는 계기를 잘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안 PD는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교차로 재가

염불신앙 수행법 강의



정태혁 동방불교대학 학장은 16일 오전 10시 전국염불만일회 정토법회에서 염불신앙과 수행방법에 대해 법문했다.

불일 문화강좌 열어



신영훈 문화재전문위원은 9월 12일~11월 26일까지 법련사 불일교양대학 2층 강의실에서 '절이 여기 있대요' 불일문화강좌를 연다.

성타스님 초청 법회



한정섭 법사 보현불교대학 학장은 13일 오후 7시 성타스님 초청 대법회를 불교대학에서 봉행했다.

학사이전 봉축법회



강건기 전북불교대학장은 전주시 삼천동1가 안행택지 개발지구 정혜빌딩 3·4층에 자체학사를 마련하고, 7월 25일 '연등이운 및 학사이전 봉축법회'를 봉행했다.

한국출판연 이사장에



윤청광 동국출판대표는 7월 31일 출판문화회관 3층 연구소에서 열린 한국출판연구소 제1차 임시 이사회에서 제5대 이사장에 선출됐다. 한편 민족사 윤창화 대표는 새 이사에 선임됐다.

'부처님 세상' 300부 보시



윤수현 창원대 교수는 7월 31일~8월 3일 구인사에서 열린 제7회 전국교원불자연합회 수련대회에 참석, 전 현직 교원들에게 〈부처님 세상〉 책 300부를 법보시 했다.

인도풍물사진전 개최



류진수 駐 부산 경남인도명예총영사는 10일~14일까지 국제신문 문화센터 제1전시실에서 인도 독립 50주년 기념 인도풍물사진 전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대불청 임시대의원 회의



이상대 대한불교청년회장은 23일 오후 1시 대전 중앙불교회관에서 임시대의원회의를 개최하고, 사단법인 정관 개정을 논의했다.

한일장신대 강의 맡아





탤런트 박규채씨(왼쪽)와 전원주씨가 오는 2학기 부터 전북 완주군 한일장신대(구 한일신학대) 연극영화과 겸임교수로 강단에 선다. 박씨는 'TV의 이해' '연기실기' 과목을 가르칠 예정이며, 전씨는 연기관련 특강을 맡는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양성 교육기관

1998년 후기
부산불교교육대학 제 1기 경전연구과정 / 제12기 교 리 반 / 제 4기 수 화 반 **신입생 모집**

▶▶ 입 학 안 내 ◀◀

구 분	제 1기 경전연구과정	제12기 교리반	제4기 수화반
1.입학자격	본대학 포교사과정수료자나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불교를 바르게 알고 싶은 남·여	수화를 바르게 알고 싶은 남·여
2.교육기간	2년(1998년 9월~2000년 8월)	6개월(1998년 9월~99년 2월)	3개월(1998년 9월~11월)
3.교육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9시	매주 목·금요일 오후 2시~4시	매주 목·금요일 오후 7시~9시
4.구비서류	입학원서 1통(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1매		
5.입 학 식	198년 9월 2일(수) 오후 7시	1998년 9월 3일(목) 오후 2시	1998년 9월 3일(목) 오후 7시
6.등 록 금	원서접수비 5,000원 입학금 50,000원(교재제공) 수업료 월 20,000원	원서접수비 5,000원 입학금 50,000원(교재제공) 수업료 월 30,000원	원서접수비 5,000원 입학금 20,000원(교재제공) 수업료 월 10,000원
7.특 전	본대학 학칙에 따라 전법사 자격수여	수료자는 포교사 과정에 우선 입학할 수 있음	장애인포교의 기회를 제공하며 수화 통역사 자격시험에 추천됨
8.과 목	육조단경, 금강경, 수심결 유마경, 법화경, 화엄경	불교를 처음부터 알고자하고 어떻게 알고 믿을것인가. 불교역사의 흐름, 문화 신앙체계 규범과 삶의 방향	농아인의 이해 수화기능습득 농아인과의 대화
9.강 사	조계종 승가대학원 교수 각성스님	이하우학장, 정여스님 이욱태법사, 명준스님	동서 대학 수화 강사 강주수

■원서접수기간 : 1998년 8월 31일까지

부산불교교육대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390-34 (8/2) 성원서면주차빌딩2층 화엄회관(부산진구청 뒤)
☎ (051) 818-8659, 807-7351

삼화불교대학 학생 및 편입생모집

■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불교학과	2년	■주간 ■야간 ■통신	· 고등학교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1통 · 본교 소정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조계종 승려·포교사 (타종단 승려, 포교사도 가능) · 한민족 불교진흥회 스님, 단체추천자.
	4년	■통신		
유아교육과 (유아포교과)	2년	■주간 ■통신		
불교미술 (문화재)과	2년	■주간		
신문방송과 (불교보도과)	2년	■주간 ■통신		

■ 2. 학교연혁

1989.7.3 학교설립공고
90.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4년제 개교
90.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8 본교학생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증 취득
91.3 전문부 주간,야간2년제 개설
91.8 본교학생46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1.8 교육부인정 고등학교 인수
92.2 제1회 졸업생 배출
92.7 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취득
93.3 불교미술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8 본교학생42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4.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5.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8 중국 남경 중의약대학과 분교체결
95.11 본교학생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6.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0명취득
96.11 본교학생36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7.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0명취득
98.2 제 7회 졸업생 배출
98.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1명 취득(위탁교육 수료후)

■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자격증, 불교유아포교사2급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가능

■ 4. 원서교부및접수기간

· 원서교부및접수기간 : 1998년 8월 21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우편당일 소인 유효)

■ 5. 원서교부및문의처

· 본교 교학과 : TEL. 511-2026~8 FAX. 511-108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511-2026~8)
◑ 인터넷홈페이지 : WWW.Buddhapia.Co.Kr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삼 화 불 교 대 학

우리 모임에선

전북도청 연우회 수련회

전북도청 연우회(회장 권두삼,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는 8, 9일 김제 금산사에서 50여명의 회원이 동참한 가운데 하계수련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련대회는 일주문에서 대적광전까지 1보1배, 참선, 108배정진, 수계법회순으로 진행됐다.

권두삼회장은 "하계수련회를 기점으로 회원배가운동을 전개하고 각 시·군청불자회 창립 및 활성화대책, 연합법회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고 밝혔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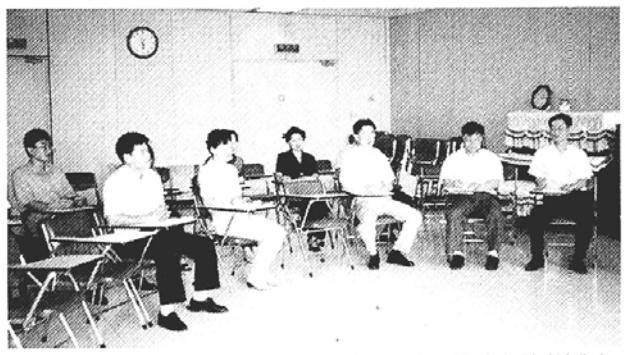
천불동 서·경모임 법회

천리안불교동호회(회장 심준엽) 서울·경기모임은 16일 서울 관음포교원에서 8월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서 관음포교원장 일명스님은 법문을 통해 "어려운 이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원력을 갖고 부단한 정진을 통해 성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점심법회 불심 익는다

금융결제원 · 국방과학硏 · 한은 등 개설
참선 · 교리공부…시간절약 · 참여율 높아



◇금융결제원 불자회 회원들이 12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회의실에서 법회를 갖고있다.

'1시간의 미학' 점심(點心)시간을 이용한 직장법회가 늘고 있다.

12일 12시 10분 서울 서초동 금융결제원 10층 회의실. 마음의 점을 찍는 시간을 이용하여 조화제회장을 비롯하여 회원법우들이 한명 두명 회의실로 들어온다. 회원들은 회의실 칠판앞에 모셔진 부처님상에 합장반배한뒤 자리에 앉아 잠깐의 명상시간을 갖는다. 그런뒤 지난주 회원이 녹음해온 BBS 일요법회 방송테잎을 들으며 순서에 따라 법회를 진행한다.

법회후에는 회원들이 정리해온 내용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 이날은 차병주회원이 불교예절을 다시 돌아보는 의미에서 불교의범을 회원들에게 설명한다. 몸가짐의 정리, 오체투지의 의미, 사찰·법당예절, 공양물의 의미를 하나 하나 짚어가며 말한다.

이처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법회를 진행하는 불자회는 금융결제원을 비롯하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성불회, 한국은행 강남지점등이다.

국방과학연구소 성불회(회장 윤동수)는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연구원 강당에서 법회를 갖고 있다. 이 법회에는 계룡대 강보승법사가 교리강좌 형태로 법문한다.

한국은행 강남지점 불자회도 첫째 셋째 수요일 점심시간에 자체법당에서 법회를 보고 있으며 법회에서는 백남석법사가 법문하고 있다.

국토개발연구원불자회와 사법연수원 다르마법우회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참선모임을 갖고 있다.

다르마법우회는 매주 화요일 법원 예식장 폐백실을 임대하여 참선테잎을 들으며 참선모임을 갖고 있고 국토개발연구원불자회도 회원들이 매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참선시간을 갖고 있다.

이들 직장불자회들은 법회나 참선후 함께 식사도 하며 윤회인사를 실시하는 등 짧은 1시간동안 많은 프로그램을 소화해 내고 있다.

점심시간에 법회와 참선시간을 갖고있는 직장불자회들은 짜투리시간을 이용하므로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밤시간 법회에 비해 참여율도 높아 많은 회원들이 신심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는 등 운영활성화에 '일석이조'라고 입을 모은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불자기업 '성원 살리기'

지난달 부도 … 2만명 서명동참
이익금 사회환원 '보살행' 실천

보살행을 실천한 불자기업 성원그룹 살리기에 불자들이 나섰다.

불자기업 (주)성원 화의신청 청원서명운동본부(본부장 혜총스님)는 6일 발족식을 갖고 통도사 범어사를 비롯한 부산·경남지역 사찰과 서울 조계사 한마음선원 능인선원 구룡사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성원살리기 서명운동에는 11일 현재까지 2만여명의 불자들이 서명했다.

지난 7월 15일 IMF 경제난으로 부도처리된 성원은 국가유공자와 소년소녀가장, 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를 건립하여 기증했고 복지관 어린이집 양로원 시설을 건립하여 시설운영을 지원하는등 기업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모범기업이었다.

특히 문경 봉암사등 11개 사찰 불사 지원과 통도사 설법전 군법당 해군불자교육관및 군법당 건립기증, 16개 사찰및 불교유치원 건립임대, 불교방송 불교TV 개국지원, 복지시설에 기부금접수, 미국 서미사와 캐나다 서광사 운영지원, 무의탁노인을 위한 통도사자비원을 건립하여 기증하는등 교계에 드러내지않고 4백억원대의 불사를 해왔다.

통도사주지 월파스님은 "성원의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다시한번 한국경제 발전과 사회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서 청원한다"는 전제하고 "부처님의 자비보살행을 몸소 실천해온 불자기업살리기에 전국의 불자들이 나서자"고 말했다.



◇통도사에서 불자들이 성원살리기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서명문의 (051)816-3680 성원화의 청원 서명운동본부. 김원우 기자

한통불자회 전북지부 발기

회장 홍득표씨 … 9월 창립

한국통신불자회 전북지부가 1일 김제 금산사에서 20여명의 불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발기인대회를 갖고 9월경 창립키로 했다.

이날 창립고불식에서 도영스님(금산사주지)은 "한국통신 전북지부를 창립해 부처님의 정법을 곳곳에 전할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정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기인대회에서는 회장에 홍득표부장(전북본부 마케팅국 전송사업부장)이 선출됐다. 홍회장은 "기존에 불자회가 운영되고 있는 북전주전화국 군산전화국 정읍전화국 불자회를 중심으로 전북지역 18개 지역국에 불자회가 창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652)221-3300

탐방 전국교사불자연합회

보리심 심고 가꾸는 '보살 선생님'

올 창립 전국 7개 지부
교과서 왜곡사례 조사



◇전국교사불자연합회 하계수련회가 8일부터 10일까지 대구 동화사에서 개최됐다.

새싹불자를 키워내는 전법자로 나선 교사불자들이 한여름 더위를 이겨내며 수행정진에 열심이다.

8일부터 10일까지 팔공산 동화사에서 개최된 전국교사불자연합회 하계수련회에는 서울 경기 부산 대구등 전국 7개지부에서 2백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불심을 다졌다.

교사들은 발우공양습을 비롯 깨달음에 이르는 5단계(일진스님) 불교미술의 이해(최완수 간송미술관연구실장) 교과서에 나타난 불교사상(고우익교법사단장) 불교의 세계관(교육원장 암도스님) 현대인과 禪(불국사주지 성타스님) 불교의 상담원리(동사섭회주 용타스님) 불교학생회 운영사례(이화정교사)등의 특강과 분과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또 교사불자들의 인격도야와 화합및 친목도모를 위해 7월1일 '늘 좋은길'이라는 회보를 발간했다. 이와함께 자라나는 미래불자양성을 위해 10대들의 마음을 움직이게하는 글모음집 '좋은친구'를 1일 발행하여 청소년포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96년 7월 조계종 포교원이 실시한 불자교사연수회를 시발로 싹튼 교사불자연합회는 98년 1월 김제 금산사에서 공식 창립했다. 현재 서울, 경기·인천, 전북, 경남, 대구, 부산, 경북에 7개 지부를 두고 있다.

교사불자연합회는 매달 정기법회및 특별수련법회 실시, 사찰순례행사통한 전통문화 애호활동, 불교학생회 조직 및 활동지원, 교과서 왜곡사례 조사 및 시정노력, 수련대회 실시 등의 사업과 수행활동을 다채롭게 펼치고 있다.

임완숙회장은 "앞으로 지부를 15개 조직으로 확대하고 교사불자회를 발전시켜 어린이·청소년들의 가슴에 보리의 싹을 틔우는 일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김원우·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교화복지선도회 성동구치소 수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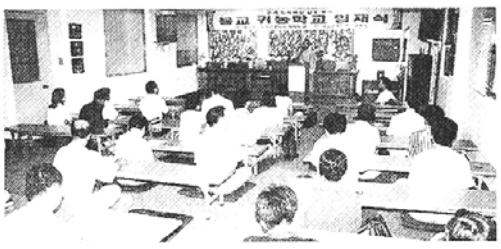
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회장 혜철)는 7월24일 성동구치소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교화복지회는 수계식에서 재소자 15명에게 죄업과 지난날의 과오를 참회하고 계율을 지키고 사회에 봉사할 것을 당부했다. 이사장 혜철, 부이사장 홍주, 덕진사 주지 지연, 혜림사 주지 혜광, 청수사 주지 희서스님과 불자가수 박점숙(문수포교원장) 등 14인은 재소자들과 각기 자매결연을 맺고 매월 영치금을 후원하기로 했다.



교사불자연합회 경북지부 창립

전국교사불자연합회 경상북도지부 창립법회가 8월1일 직지사설법전에서 봉행됐다. 경북지부 창립법회에는 직지사부주지 법등스님 이양길 직지사연수원장 임완숙 전국교사불련회장 조계종 제8교구교사불자회원, 의성 청송 경주교사불자회원등 1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초대회장에는 제8교구 교사불자회장인 조농연교감(50 김천 농남중)이 추대됐다.



조계종 제2기 불교귀농학교 개교

제2기 불교귀농학교(교장 도법) 개교식이 8일 오후 서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강의실에서 교장 도법스님(실상사 주지)과 남지심 우리는선우 공동대표, 입학생 4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제2기 이론교육과정은 8월8일~9월6일 매주 토(오후2~4시)·일(오전10~오후1시)요일 13강좌로 진행되며, 현장교육은 9월 11일~14일, 9월 18~21일 2차에 걸쳐 진행된다. 참가비 3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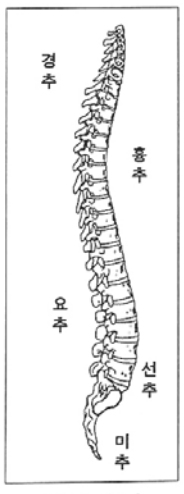


우리는선우 '선재생명사랑' 캠프

우리는 선우(공동대표 남지심 박광서)는 '98 선재 생명사랑캠프'를 7월 31~3일 3박4일간 강화도 심신수련원에서 개최했다. 자연과 하나되는 체험의 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열린 이번 캠프는 청소년과 대학생불자 1백여명이 참가해 전등사 사찰환경 탐사, 생명사랑 연극 CF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명예퇴직창업

MBC출발 달리는 새아침 김우현회장 활법 6개월간 강좌



▸특 전

1. 법개정으로 누구나 본협회 자격을 취득후 사무실의 평수와 관계없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지부를 운영할 수 있음.
2. 교육수료자는 "수료증, 세계공인 활법사, 5단증, 사범자격증, 스포츠 맛사지사, 카이로프락틱사, 운동회복사 자격증"부여

스님 · 법사 · 포교원운영자 · 물리치료사 · 침구사 · 대체의학연구자

경추 1~7번: 두통, 신경질, 불면증, 고혈압, 만성피로, 편두통, 뒷골아픔, 어깨통증, 목덜미가 뻣뻣함.

흉추 1~12번: 심장, 폐, 간장, 당뇨, 위장질환, 신장, 불임병

요추 1~5번: 요통, 하지순환불량, 좌골신경통, 하복부통증

선추: 생식기계통, 정력증강

▸교 육 내 용

1. 활법기초이론 (해부학, 생리학)
2. 활법교정술 (경추, 흉추, 요추)
3. 스포츠맛사지교육 (지압)
4. 카이로프락틱교육 (짝다리교정법,즉시효과)
5. 사지관절교육법
6. 기공술
7. 운동회복법 (저항운동법)
8. 자연건강법
9. 내장부활운동법
10. 혈도자극운동법

▸교 육 안 내

교육기간:5박6일(속성반), 3개월반.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수업시작

준비물:
1. 교육비 및 회비2. 사진 3×4:10매
3. 주민등본:1통4. 신청서:협회에 비치됨

※연락주시면 안내서 보내드림.

【 특허청등록원 제13235호 】

사회단체 세계건강활법협회

본부연수원: 0571)55-6461, 0571)859-4156, 011)522-1122



CARNIVORE

(길이 480mm, 높이 260mm, 폭 130mm, 중량 1.4kg)

카니보 2000 하나면 여름이 편안해진다.

모기 및 모든 해충으로부터 해~방!

⊙ 사찰에 꼭 필요한 상품으로 대만족 확신!
⊙ 방역, 소독 필요시 간편하게 사용가능 (어린이도 조작 가능)

농가, 축사, 여촌, 정원, 야외가든, 지하철, 병원, 화장실, 쓰레기장등 소독이 필요한 모든 곳의 전염성균예방

특별보급가 ₩178,000

※ 현 금 가 : ₩140,000

※ 3회 분할가능
※ 각종 신용카드 장기분할가능



· 해충퇴치기 〈안내표시등〉 ₩28,000
※ 벌도 판매 가능

⊙ 연막소독기 구입시 해충퇴치기 무료 사은품 증정!

보급처:한마음 ☎ 051)865-1182 하나하나빨리 ♣크로바서비스:080-007-1182

전국 어느곳이든 배달가능!

황토흙벽돌기계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사용간편 5분교육후 생산 여성, 노약자등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이외규격은 별도주문생산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편리한 생산, 저렴한 가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 황토관련 전문회사 봉송 황토마을 소개

향토주택시공, 토굴시공, 찜질방시공 및 구들시공, 기타황토관련제품을 생산하며 황토학교를 개설하여 황토주택시공법등 다양한 집 짓기교육을 매월 2박 3일 일정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무공해주택인 황토집짓기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34-0223 / 팩스 : 0671)34-1237

11일 중앙재해대책본부 집계결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강타한 이번 수해로 모두 230명이 실종·사망하고 12만명의 이재민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산피해만도 2조원에 달한다고 하니 실로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다. 이번 재해는 다분히 '인재(人災)'였다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다. 지난해 물에 잠겼던 경기 파주·문산 일대가 이번 홍수로 또다시 물바다가 되는 등 재해지구 곳곳이 제대로 방비를 하지 않아 비만 오면 잠기는 '연례행사'를 치루고 있다. 더우기 전국 대부분 중소하천의 홍수관리가 원시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건교부의 최근 조사결과는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웬만한 비로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충격을 준다. 이제는 근시안적 도시정비와 허술한 방재시스템에서 벗어난 만반의 예방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각종 재해·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경전말씀을 통해 다져보자.

이렇게 들었다

재난예방

"지혜로운 이 미리 둑 쌓는다"

▨행하지 않으면서 말만 하는 것, 지혜로운 이는 그 잘못을 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않고서도 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도적의 허물과 같다. 〈집아함경〉

▨소 치는 다니야가 말했다. "나는 이미 밥도 짓고 우유도 짜놓았습니다. 마히강 기슭에서 나는 처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내 움막은 지붕이 덮여 있고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이여, 만일 비를 내리시려거든 비를 내리시옵소서." 〈숫타니파타〉

▨국왕이 만일 진정으로 교화하면 여덟가지의 큰 공포가 그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나니 타국의 침범, 국내의 반역, 악귀와 질병, 국토의 기근, 때아닌(非時) 풍우, 뒤늦은(過時) 풍우, 일월의 박식(薄蝕), 성수(星宿)의 변괴이다. 〈심지관경〉

▨보살은 마땅히 온갖 중생을 위해 큰 불이 날 때와 큰 물에 떠내려 갈 때와 폭풍이 불 때, 배나 강물·바다·나찰의 환난에도 마땅히 이 경률을 독송하고 강설해야 한다. 〈범망경〉

▨미래세에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이 경을 듣거나 독송하고 향 꽃 음식 의복 코배 등을 가져다 보시 공양하고 찬탄하여 우러러 예배하면 위난을 당할 때에 신들의 보호를 받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질병에 걸리지 않으며, 홍수나 화재의 재앙이 근접치 못하고, 도적으로부터 액란을 당하지 않으리라. 또한 총명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지장보살본원경〉

▨선정을 얻은 사람은 다시는 마음이 동요하지 않을 것이니, 마치 물을 아끼는 집에서 둑을 잘 쌓아 놓은 것과 같다. 수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여서 지혜의 물을 간직하려는 까닭에 선정을 잘 닦아 그 누실을 막는 것이다. 〈유교경〉

▨설사 저 허공을 땅으로 만들고 땅을 허공으로 만들 수 있다 해도 이미 뿌려놓은 인연의 씨앗은 썩어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나니 인연이 무르익는 날에는 그 결과를 반드시 받아야 하리. 〈증일아함경〉

▨보살은 보리도를 수행할 때 길을 잃은 중생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며, 길의 와석(瓦石)과 가시덤불을 제거하며, 건너야 할 물이나 험한 곳에 다리를 놓으며, 어두운 곳을 위해 등불을 단다. 〈대집경〉

▨인간은 자연을 이용하기를 꿀벌이 꽃가루를 채집하듯 하라. 꿀벌이 꽃의 아름다움이나 향기를 다치는 일이 없듯이 사람도 자연을 이용할 때 자연의 풍요로움이나 아름다움을 오염시켜서도 안되며 자연에게서 회복력과 활력소를 빼앗아서도 안된다. 〈법구경〉

열린마당

연등축제, 서울문화축제로

고건 서울시장이 지난 6월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공약으로 밝힌 연등축제의 서울시 문화행사 추진을 거듭 확인했다. 고 시장은 7월 31일 방송된 불교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연등축제를 서울의 특색있는 문화축제로 다듬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뿐 아니라 각 지역마다 불교행사가 그 지역의 문화행사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는 의견과 함께 차분한 준비를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에서는 성스런 종교의식의 관광상품화를 우려하면서 불교문화에 깃든 신앙의 정수를 보여줘야 한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연등축제의 서울시 문화축제 지정과 관련한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지난 5월 서울 종로에서 봉행된 연등축제. 수만개의 촛불을 밝혀 IMF 경제난 극복을 기원했다.

"불교행사에서 시민 한마당으로"

지현스님 〈조계종봉축위 기획단장〉



연등축제는 근대들어서의 제등행진의 종교행사에서 국민축제로 전환하면서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연등회의 역사성을 잇고 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그동안이 토대를 구축하는 시간이었다면 98년을 기점으로 천년까지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정착하는 시기이다.

이에 98년 연등축제는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해로써 연등축제라는 명칭에서도 드러나듯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할 것이다. 봉은사의 지원으로 세인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전통등 연구·재현 사업의 성과를 사찰단위로 보급 회향함으로써 전통등은 물론 불자들 개개인의 창작등으로의 저변확대를 이뤄 산업화로 사라지고 있는 등문화를 되살리는 한편 그 다양함에 축제적 요소를 더하여 다수의 장업등을 중심으로 풍부한 등놀이 문화의 장으로써 연등축제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이제 불교만의 연등축제가 아니다. 서울의 유일한 지역축제로 그 위상을 달리 하며, 나아가 1600년 민족불교에 상응하는 국민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문화관광부와 서울시 관계자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이를 검토하고 있음도 밝혀둔다.

연등축제가 국민축제로 정착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우리 불자들 자신에게 있다. 이 땅에 부처님께서 오신 것을 찬탄하여 기쁘게 맞이하고, 빈자일등의 교훈을 되살려 자신의 참된 등을 만들어 밝혀들고 이웃과 함께 하는 환희심에 넘치는 연등축제를 모든 불자들과 만들어가고자 한다.

"한국불교 1600년은 그대로 문화"

이상기 〈한국관광공사 상품개발과장〉



오늘날 관광분야에 있어서 우리 고유의 역사, 문화 관광의 비중은 점점 더 증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1천6백여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의 불교문화는 훌륭한 문화관광 자원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일례로 불교전통의 식인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도 관광상품화되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한국불교 문화를 체험케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관광공사에서는 자랑스러운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관광상품화하고 이를 널리 홍보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고 최근 정부가 문화관광코스를 지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화관광자원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에서 불교의 연등축제를 서울시 문화축제로의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불교문화행사가 시문화축제가 된다는 것은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통해 외국 관광객 유치는 물론 우리의 고유 문화를 전세계에 널리 알리는 홍보사절 역할도 함께 하기 때문에 지역과 국가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문화유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와 관광상품으로의 적극적인 활용은 아직까지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교문화 행사인 연등축제가 서울시 문화축제로 지정되고 또 이를 계기로 각 지역의 다양한 불교문화행사도 자치단체의 문화행사로 적극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

"보여주기식 관광상품화 우려"

도관스님 〈불교문화교육연구소 자료실장〉



역사적으로 연등회나 관등놀이가 전기가 없었던 시대에 얼마나 큰 나라잔치이며 놀이였는가는 여러 기록으로도 알 수 있다. 나이든 노모가 아들에 업혀 남산에 올라 정월과 이월에 벌어지는 서울장안의 가가호호 관등을 밝힌 것을 보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다는 기록도 있다.

연등축제를 서울시에서 문화축제로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충분한 고증과 그동안 행해지고 있는 봉축행사의 내용과 형식을 반성하는 논의를 통해 정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과거 만백성들이 광명을 발원했던 민중적 축제를 현대에 어떻게 발전, 계승할 것인가가 깊이 고민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모든 관에서의 축제가 국민들과는 내용이 겉도는 형태를 많이 보아온 우리는 축제의 내용이 외국인들이 보고 즐기는 보여주기식 관광상품으로 되는 모양보다는 실제로 서울시민이 부처님 오신뜻을 새기면서 각자의 소망을 가지고 즐기고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종교의식의 틀을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도자기문화 전통의 현대적 계승은 온도계를 만들기 시작하여 항공기엔진을 도자기로 만드는 성과를 내놓고 있으며, 그러한 내용으로 현대화된 축제를 일본의 한 마을에서 하는 것을 보았다. 좋은 전통의 살아있는 계승의 문제를 재삼 고민하면서 연등축제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형식적 지원보다는 실질적 시민축제와 살아있는 전통계승의 문화모델을 만들어낼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독자마당

독자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천리안 : aeum ·하이텔 : 34713

방송 종교중립 지켜야

SBS-TV에서 2일 오후1시에 재방송된 '서세원의 좋은 세상 만들기'를 보다가 분노를 느끼는 대목이 있었다.

이 프로그램 전반부에서는 어린아이들이 하고 싶은 말 등 천진 난만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이때 한 아이가 앵무새를 향해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무리했다.

순진한 어린아이들이 보았을 때에는 기도는 무조건 예수님에게만 하는 것이다 라는 인식이 충분히 들 수도 있는 부분이었다.

기독교 방송도 아닌 SBS-TV가 특정 종교를 선교하는 장면을 여과없이 내보낸 다는 것은 국민앞에 평등해야할 언론매체의 공정성을 외면한 처사다. 고의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

장혜원〈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유적지 안내 자원봉사자 필요

지난 겨울 강릉에 있는 '참소리 박물관'에 다녀왔다. 이곳에서는 10여명의 관람객이 모이면 큐레이터가 이들을 데리고 다니며 유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다.

1600년 전통의 불교문화유산을 간직한 사찰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큐레이터를 본 적이 없다. 따라서 전문 큐레이터는 아니더라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면 어떨까.

대부분의 대학에는 사학과나 문화재 관련 학과가 설치돼 있다. 이들 학생들의 자원봉사를 적극 유치한다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도 높일 수 있고, 문화유산에 대한 일반인들의 지식을 보다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동수〈대학생·서울 영등포3동〉

군법당에 자비의 손길을

한시도 긴장을 풀 수 없는 엄격한 규율과 질서를 요구하는 병영생활 가운데서 잠시나마 긴장을 풀 수 있고 마음편히 보낼 수 있는 신간이 있다면 바로 종교활동 시간이다.

부처님전에 와서 몸과 마음을 쉬게 하고, 그들에게 떡 한조각, 빵 하나라도 더 먹여 보내는 것이 진짜 법문이라고 생각한다. 장래의 '거사'가 될 우리의 아들들이 훌륭한 불제자로 다시 태어나는 곳이 바로 군법당이다.

우리가 부처님전에 기도하거나 재를 올릴 때 부처님을 수호하는 신장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처럼, 조국을 지키는 '호국신장'인 군장병들에게도 공양의 손길을 나누어 주자. 군법당 포교에 불자님들의 힘이 모아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이불정심〈서울 종로구 구기동〉

金堂藝建

목조건축(신축 및 보수전문), 단청, 탱화
개금 불상, 시왕개채, 불사 문의 및 상담



문화재 관리국 등록

보수 357호 황규원 단청 352호 박정환
보수 502호 박정환 화공 1008호 심철호

(711-830)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197-7 화원빌딩 4층
사무실 : (053)639-0407 ~ 8
F A X : (053)639-0407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바다가 있어 외롭지 않다.
은빛모래.
반짝이는 발자욱마다
추억이

가슴으로 젖어오는 바다.

들이 아니어도
외롭지 않은데
바라볼 수 있는 바다가 있어

침묵속으로 다가오는
보랏빛 물결
파랗게 부서져 내린

파도를 손목으로 감싸안으며
어깨위로 밀려온 고독은
씻내
파도울음 터트리며
잔잔하게 노을빛으로
내려앉는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본명)

大卒, 초·재혼 신원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정보 결혼연구원
원장 이 영숙 합장(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18번지 영신상가 3층 317호
대표전화 : (02)634-4910~2
(011)288-4910

어린이 포교 지도교사 전문 양성 교육기관
동련불교교사대학
〈 1기 수강생 모집 〉

21C 한국 불교를 짊어지고 갈 어린이들의 종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 법회 지도교사들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교육과 부족한 어린이 지도교사의 양성으로 어린이 지도교사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어린이 법회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착,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동련불교교사대학을 개학합니다.
이에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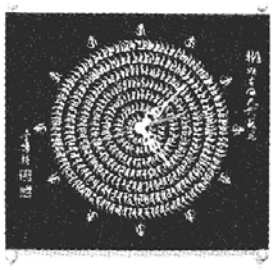
불기 2542년 8월

사단법인 불국토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부산불교 어린이지도자 회장 정 여 합장

■ 입/학/안/내

1. 입학자격 : 어린이 포교에 관심 있으신 모든 분
2. 교육기간 : 1년(1998년 9월~1999년 6월)
3. 교육일시 : 매주 화, 수 저녁 7시 ~9시
4. 교육장소 : 양정 청소년회관
5. 구비서류 : 입학원서, 반명함판 사진 2매
6.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부산불교어린이지도자회 사무국 보현선원
☎ 051)853-5486
7. 입학식 : 1998년 9월 1일
8. 수업료 : 월 20,000원
9. 특전 :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의 포교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짐.
- 포교사 시험에 합격 후 포교사 자격증과 함께 어린이 지도교사 자격증 수여함.
- 어린이 지도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신분을 보장받게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시계



다라니란 말은 총지(總持)라고 번역하는데 법을 마음에 새겨 잊지 않음이라는 뜻이며 또한 신비한 주문(神呪), 은밀한 주문(密呪), 밀언(密言), 맑은 주문(明呪)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효험은 스님들이 잘 아심으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 IMF 시대에 저렴한 가격에 불자님들에게 최고의 법보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글씨를 보내 주시면 공단 또는 한지에 족자·액자를 만들 수 있도록 제작해 드립니다.

싸이즈 39×39cm
색 상 빨강, 검정
가 격 ₩42,000

※ 우편료 별도

주문전화 ☎ 02)279-2715
FAX 02)275-3739
삼·보·기·업

부다피아-불교정보센터-목아박물관
이철수홈페이지-호암미술관-안심정사

사이버갤러리 클릭하면 '불교미술품과 접속'

게릴라성 폭우로 외출이 쉽지 않은 요즘, 안방에 앉아서도 손쉽게 불교미술을 관람할 수 있다. 다리품을 팔지 않고도 클릭만 하면 다양한 불교미술이 눈앞에 펼쳐진다.

선화로 유명한 수안스님의 그림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불교문화정보센터로 들어가 '수안스님 선화모음집(http://net-in.co.kr/sovin/suan-gallery-1.html)'을 찾아가면 된다. 수안스님의 작품세계에 대한 소개와 함께 60여 작품이 전시되어 있어 격조높은 선화의 세계로 몰입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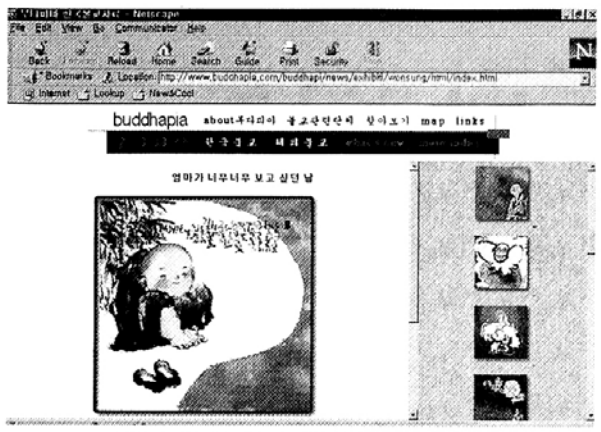
해맑은 동승의 모습을 통해 스님들의 일상을 그려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원성스님의 동승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부다피아내 '원성스님 동승전(http://www.buddhapia.com/buddhapi/news/exhibiti/wonsung/html/index.html)'에 들어가면 '마음 한점 고요하니 무명은 사라지고' '선방' '꿈' 등 천진불심을 느낄수 있는 익살맞은 동승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 40여점을 감상할 수 있다.

특유의 선적 세계를 꾸려가고 있는 이철수씨의 판화를 감상하려면 두곳을 방문하면 된다. 먼저 문학동네 사이트내에 개설해 놓은 이철수홈페이지 '소리하나(http://www.munhak.com/mandala/leechull/leechul.html)'에서는 120점의 판화를 감상할 수 있다. 간명한 선과 대담한 공간, 산뜻한 색깔 등의 판화와 작품마다 선시가 곁들여져 있다. 이철수씨의 또다른 사이버갤러리 '이철수 갤러리(http://lis.yonsei.ac.kr/~kakumila/chol.html)'는 '내집풍경' '소리' '대나무는 그 빈자리를 얻고' 등의 주제로 대표작 40여점이 전시되어 있다.

조선후기국보전을 관람하기 위해 굳이 호암미술관을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 호암미술관 홈페이지(http://www.hoammuseum.org)에 들어가면 현재 열리고 있는 조선후기국보전, 특히 추사 김정희가 쓴 반야심경첩, 철제은입사기미년부석사명향완, 종이로 만든 여래좌상 등 많은 불교문화재를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호암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금동미륵반가상등 소장품들과 그동안 호암미술관에서 열렸던 조선전기국보전, 금속유물특별전 등도 감상할 수 있다.

불교조각품 3천여점을 소장하고 있는 목아불교박물관 홈페이지(http://www.moka.or.kr)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불모(佛母)들의 조각작품들과 목아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불 보살상, 동자상, 나한상, 장엄구, 복장출토품 등 불교미술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안심정사갤러리(http://blue.nowcom.co.kr/~ansim)'에는 군위삼존불, 한송사석조보살상 등 국보로 지정된 불상만을 모아놓은 코너가 있으며 동국불교미술인회 홈페이지 '사찰서 만나보는 불교미술(http://www.buddhapia.com/buddhapi/kor/hanbul/culture/art/index.html)'은 △사원과 불상, 불화 △법당과 부처님 △탑 △석조물 △법구 △단청 등 분야로 나눠 대표적인 불교미술을 보여주며 그 불교적 의미와 미술적 특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부다피아에 개설된 '원성스님 동승전' 홈페이지.

불심시심 〈140〉

지는 해에 시름 풀다

自別先師化翠微 스승님께서 취미산에 드신 이후로
(자별선사화취미)
兩南雲水幾年違 영호남의 구름 물이 몇 해나 지났죠
(양남운수기년위)
湖添夏雨魚兒出 여름 비에 붉은 호수 고기들 뛰놀고
(호첨하우어아출)
嶺老霜風雁子飛 서리 바람에 늙은 산마루 기러기 돌아오다
(영로상풍안자비)
月白武陵吹笛洞 달은 무릉골 취적동에 흰히 밝고
(월백무릉취적동)
煙深華寺影堂扉 동화사의 영당 사립문엔 안개 자욱하죠
(연심화사영당비)
洛東江月心相照 낙동강 달빛으로 마음 서로 비추고
(낙동강월심상조)
愁解西山落日歸 서산의 지는 해에 시름 풀고 돌아옵니다.
(수해서산락일귀)

상월대사가 '설송장로에게 드리는(呈雪松長老)' 시이다. 서로 다른 지역으로 떠난지 몇해된 스승에게 드리는 시이다. 스님들의 행각이 구름과 물을 벗삼아 유유자적한 걸음이니 얼마였을까 하고 회상하는 사이에 벌써 몇 년이 지난 것이다. 여기에서 더해간 사제간의 그리움을 자연물에 의탁하여 담담하게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여름비 가을서리의 계절적 변화에서 느끼는 그리움이 다를 것이지만, 이 시에서는 그러한 변화만 말했을 뿐 자신의 정감을 노출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전편에 숨겨진 그리움을 독자로 하여금 느끼게 한다.

동구에 밝게 떠오르는 달, 절 문에 짙게 드리운 안개에서 스승의 모습을 보는 것이다. 이러한 그리움을 결구에서 달을 매개로 하여 접합시키고 있다. 여기 낙동강에 비치는 달은 스승이 계실 산사 어느 곳에도 똑같이 비칠 것이니 이 달을 통하여 서로의 심상을 상상하는 것이다. 이런 두 사람의 마음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특징적인 자연사물을 중간에 삽입하여 계절의 아름다움을 서술하였다. 여름철의 장마비에 못위로 뛰어오르는 새끼고기, 그저 물고기가 아니라 새끼 고기이다. 어아(魚兒)라는 시어가 묵시적으로 전하는 정감이 그저 그냥 고기가 아니다. 이것이 시어의 묘이다.

가을이면 기러기는 오는 것이지만, 여기에 서리 바람을 연결시켜 놓았으니 모든 사물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인연 속에서 존재한다. 대사는 이러한 자연의 변화에서 스승의 모습을 찾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사사로운 정감을 쉽게 드러내 보이지 않으면서 깊게 간직하는 수도자의 자세일 수도 있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고미술 소품전 다보성, 31일까지

다보성고미술전시관은 31일까지 토기 목기 금속 도자기 회화 민예품 등 고미술 신자료소품 5백여점을 전시 판매한다.

이번 전시의 백미는 청자관음보살입상(높이 23cm). 12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관음상은 머리에 화관을 쓰고 양손에 향통을 든 매우 특이한 모습으로 표면에 청자유를 칠해 윤이 난다. 청자로 만들어진 불상을 보기는 쉽지않은 일. 또한 통일신라시대 금동여래입상, 은상감청동향합, 분청사기흑상감모란문장군 등 다양한 문화재 소품들을 만날 수 있다. (02)581-5600


◇청자 관음보살입상.

화제의 전시


◇주일스님作 '학'. 인사동 백악예원에 전시된다.

주일스님 선화전 20~26일 백악예원

주일스님(지리산 명성사 회주)의 여섯번째 개인전이 20일부터 26일까지 인사동 백악예원(02-734-4205)에서 열린다. 달마도, 사군자, 학, 사슴, 연꽃 등 이번에 선보이는 50여 작품들은 먹과 채색을 이용해 간결하면서도 거침이 없는 붓놀림과 여백의 운용으로 선화의 독특한 품격을 나타내 주고 있다.

주일스님은 "내 마음과 행동을 형상화한 이 그림들을 통해 서구적 물질문명에 찌든 오늘의 중생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17~23일 백양사 고불미술관 / 25~31일 부산국제문화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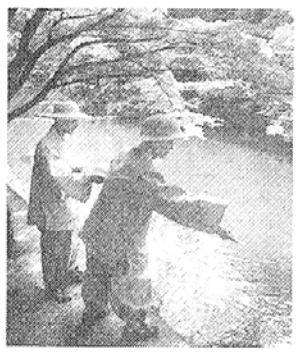
'큰 스님 사진전' 연다

18일~23일 고불총림 백양사에서 열리는 무차선회를 기념하는 '큰 스님 사진전'이 17~23일 백양사 고불미술관(0685-92-7821)과 25~31일 부산 국제문화센터(051-500-5381)에서 각각 열린다.

'조조동천일륜홍(朝朝東天一輪紅 '아침마다 아침마다 동쪽 하늘에 한 바퀴 둥근 붉음이로다'는 뜻)이라 이름붙여진 이번 사진전에는 사진작가 박보하씨가 찍은 고불총림 방장 서옹스님(87), 조계종 원로회의장 혜암스님(79), 해운정사 금모선원 조실 진제스님(65) 등 세 선지식의 걸림없는 일상사를 45장의 사진으로 볼 수 있다.

큰 스님들이 참선에 든 모습, 상좌들과 함께 포행하는 모습, 참선을 지도하는 모습 등에서 그 심오한 선적 경지의 편린이나마 이심전심으로 느낄 수 있으면 얼마나 다행일까.

이경숙 기자


◇서옹스님이 상좌와 함께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을 렌즈에 담았다.

문화 단신

'위안부 역사관' 기념 창작판소리 '접동새' 고은시인 대본집필

시와 소설 등을 주로 발표해온 고은시인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픈 역사를 담은 창작 판소리 '접동새'의 대본을 집필해 화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나눔의 집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만든 판소리 '접동새'는 고향을 그리며 이역만리에서 고통을 견뎌야 했던 일본군 위안부들의 한을 고향 접동새의 피맺힌 울음소리로 표현했다.

이번 관소리는 15일 용인 호암미술관앞 전통정원 희원에서 광복 53주년 8·15 예술 한마당 공연의 일환으로 안숙선명창(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예능보유자)에 의해 첫 선을 보였다.

이외에도 이날 행사에는 사물놀이와 대동놀이, 대금산조, 가곡 '목련화', 진흥굿 등이 연주됐다.

김경녀 찬불가집

소프라노 김경녀씨(이서고등학교 교사)가 불교음악모음집 '부르고 싶은 노래 들려주고 싶은 노래' 1·2집을 펴냈다.

현재 대구 경북 불교음악인협회 성악이사로 있는 김씨의 이번 모음집에서 '찬미의 나라(박범훈 곡)' '청산은 나를 보고(변규백 곡)' '반야심경(서창업 곡)' '사랑하는 부처님(최영철 곡)' 등 널리 사랑받는 찬불가 총 27곡이 들어있다.

보물지정

전남 영암 월출산 용암사지 삼층탑

문화관광부는 7일 전남 영암군 소재 월출산 용암사지 삼층석탑〈사진〉을 보물 제1283호로 지정 고시했다.

고려시대에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암사지 삼층석탑은 1층 탑신 상부에 또 하나의 부재를 얹어 2매로 구성했으며 옥개석 가공수법 등이 백제계 양식을 띠고 있다. 이 탑은 자연암반을 지대석으로 이용하여 하대석을 두었는데 둘레에는 하대석이 밀려나지 않도록 석재를 반원형태의 조각으로 짜맞춘 것이 특징이다. 탑신에는 우주가 돋보이도록 양각을 하였고 옥개석에는 자연스러운 곡선과 내림마루를 조각하여 한식지붕 형태를 갖춰 학술적 가치가 높은 탑이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국내 첫 '영화문화관'

남양주시 종합촬영소내에 불교영화등 4백여편 관람

한국영화의 변천과정을 한 눈에 살필 수 있는 '영화문화관'이 7일 개관됐다.

영화진흥공사(사장 윤일봉)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서울종합촬영소내 영상자원관 1층에 370평규모의 영화문화관을 마련, 일반에 무료로 공개중이다. 국내 유일의 영화박물관인 이 전시관에는 국내외 영화와 관련된 각종 사진과 포스터, 모형, 영화기자재 등이 일목요연하게 전시돼 있다.

또 '아제아제 바라아제' '만다라' '달마가 동쪽으로 가는 까닭은' 등 불교영화를 비롯한 4백여편의 영상자료를 장르별로 분류해 놓아 원하는 영화를 손쉽게 만날 수 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前 조계종 5대宗正, 現 백양사 古佛叢林 方丈

西翁禪師法語集

1권 上堂法語 2권 大衆法語

드디어 큰스님의 법어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불교 曹溪禪宗의 正脈으로서
임제가풍의 明眼宗師이신 이 시대의 대선지식,
西翁큰스님 법어집 출간!



• 1권 상당법어는 큰스님께서 30여 년간 제방선원의 조실로 계시면서 납자들에게 수선 참구의 지남으로 보여 주신 격외도리의 활구법문으로서 知解思量이 완전히 끊어진 本地風光의 참소식이며,
• 2권 대중법어는 현대문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역설하신 것으로 서양문명에 의해 상실된 인간의 근원적 참모습을 각성케 하신 법문입니다.

西翁禪師法語集刊行會 編
46배판 고급양장 / 전2권 / 값 38,000원

민족사 종로구 청진동 208-1
전화(02)732-2403~4

불서출판도 '독립 815'

입문·개론서등 日의존 벗고 독창성 확보

그 어느 분야보다 일본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온 한국불교 출판계가 서서히 일본불교의 그늘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0년대 이후 한국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일본서적 번역출판이 95년 이후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학계와 출판계는 현재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독자적인 학문적 성과 확보와 이를 통한 새로운 출판영역 개척에 박차는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번역서는 80년대 한국출판시장에서 30%의 점유율을 차지했을 정도. 교계 출판관계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해방이후 지금까지 번역돼 우리 출판시장에 나온 일본 불교서적은 대략 5백 여종 정도로 대부분이 일본서적 번역출판이 가장 활발했던 85년부터, 94년까지 출간된 것이다.

특히 이들 번역서는 교리일반과 소승·대승불교 등 불교철학, 경전과 선 관련서 및 사상사 등이 주류를 이룸으로써 한국불교의 근간이 일본에 맡겨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80년대 중반까지 변변한 입문서 하나 제대로 내놓지 못했던 한국불교학계와 출판계가 불교학이 가장 발달한 일본의 학문과 저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불서의 무분별한 수용과 잦은 오역으로 일본불교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문헌비평적 연구방법론을 답습함으로써 독창적이고 생동감있는 우리불교에 대한 해석을 방해하는 등 자체 저술활동과 출판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일본 불교서 총목록 간행회 부설기관인 출판관계조사연구소에 따르면 한 해 평균 출판되는 일본의 불교관련 서적은 4백여종. 불교학관련 논문 저서가 일년에 2천5백권이 넘는다는 일본불교출판연합회의 통계자료와 대비하면 얼마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해 양질의 출판을 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야나기다 세이잔의 〈임제록〉, 스즈키 다이세쯔의 〈선의 진수〉, 마스다니 후미오의 〈근본불교〉 등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명저로 군림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이 책들을 대체할만한 한국불교의 독자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도 되지만 그만큼 일본의 학술적 연구와 출판이 뛰어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95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일본서적을 비롯한 외국서적의 번역출판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지난 95년 3월을 기준으로 불교서적 총관 운주사가 펴낸 〈1995년도 불교서적 종합목록〉을 분석한 결과 일본서적 번역서는 전체 불교학술서적의 31.9%였으나, 98년도를 기준으로 한 분석에서는 전체 1천6백85종 중 1백64종인 9.7%로 조사됐다. 이는 그동안 한국불교의 학술서 출판이 크게 늘어난 반면 일본서적 번역서는 급격히 감소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95년 이후 4년간 출간된 일본서적 번역서는 모두 35종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급격한 감소원인은 크게 세 가지. 번역돼 나올 책은 거의 다 나온 데다, 94년부터 지금하기 시작한 저작권료에 대한 부담으로 그 필요성과 상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또 한국 불교학계가 자생적인 저술능력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것도 한 이유다.

학계와 출판계가 이같은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도 번역서 감소현상을 호기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태혁 박사(동국대 명예교수)는 "일본서적 번역서 감소는 그간의 오류를 바로잡고 우리 출판계와 학계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족사 윤창화 사장도 "지금부터는 국내 필자의 발굴과 함께 기획출판을 통한 학술출판의 질적 향상, 학술서적의 지속적 발간을 위한 경영의 다각화로 한국불교의 특성을 살린 출판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80년대 日불서 번역 30%이상 시장 점유

95년 이후 4년간 35종 번역…급감세



◇80년대에 한국불교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일본불서 번역서들.

"원효사상연구 현재진행형"

화쟁 회통사상과 일심사상으로 요약되는 원효스님의 사상은 시대와 민족, 종교의 벽을 뛰어넘는 보편성을 지니며 오늘날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효연구원 '원효사상' 펴내

원효스님의 사상 연구를 통해 불교의 현대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96년 설립된 원효연구원(이사장 이영무)이 펴낸 〈원효사상〉(신우당 刊)은 원효스님의 삶과 사상을 재조명하고,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책은 '원효의 서당설화(誓幢說話)에 대한 일고찰'(이영무) '원효대사의 신심과 발심관'(오형근) '고려에서 원효의 추앙과 종파별 변용'(허흥식) '원효진나후신설(陳那後身設)의 검토'(김상현) '원효의 정토사상'(김 훈) '원효와 신라중대 왕실의 관계'(남동신) 등 모두 6편의 논문과 원효의 저술개관을 부록으로 실었다.

특히 '서당'이 당시 군사계급이라는 '군관설'과 원효스님이 태어난 곳과의 연관성 때문에 볼여졌다는 종래의 학설 모두를 반박한 이영무 이사장의 논고나 원효스님에 대한 인도 논리학자 진나(陳那, 480~540)의 후신설을 살핀 김상현교수(동국대 사학)의 논고는 관심을 끈다. 한명우 기자

"중국 불교조각은 회화적이다"

정예경씨 '중국 불교조각사 연구'



정예경씨(동국대 강사)가 펴낸 〈중국 불교조각사 연구〉(혜안 刊)는 중국 조각양식의 전개과정을 중국조각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불교조각을 통해 탐구한 책이다.

제1·2장 '북제 조각의 원류'는 북제의 조각을 대표하는 하북성 북향당산석굴의 보살상과 산서성 천룡산석굴의 여래좌상에 보이는 도티프(장신구)와 표현양식의 원류를 탐구하면서 조각 양식의 변화에 접근하고 있다.

북제·북주, 수(隨)의 조각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성립했고, 또 어떻게 전개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제3·4장에서 성도 만불사지 출토 군상의 양식과 북향당산석굴의 나체형 보살상을 통해 밝혔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성립된 3차원적인 조각은 남인도·동남아시아의 조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띠게 되며, 저자는 그 이유를 회화적이고 선적(禪的)인 중국의 오랜 조각전통을 지렛대로 삼으면서 외래요소를 수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요약하고 있다.

한글로 읽는 '팔천송 반야경'

해탈스님 '…가장 오래된 반야경' 펴내

반야경 중에서 가장 일직 성립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팔천송 반야경〉.



해탈스님(울산 월은사)이 펴낸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반야경〉(출판시대 刊)은 〈팔천송 반야경〉의 한글 번역이라는 점 외에도 독창적 해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만하다. 〈팔천송 반야경〉의 현존 산스크리트본은 서기를 전후해 1세기 중엽사이에 성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모두 32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 책은 〈팔천송 반야경〉의 정수로 꼽히는 제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1장에서는 보살·마하살·대승·공의 의미 등에 대한 문제를 제2장에서는 불생(不生)의 의미, 반야바라밀의 무한성 등에 대해, 제3장에서는 반야바라밀이 차지하는 중요한 의미에 관해 접근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새로나온 책



▲초심자를 위한 재가불자 섭신요집=불산스님(진주 토왕암 주지)이 펴냈으며 불자로서의 올바른 몸가짐과 불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초심자의 경우 사찰예절에서부터 기초교리 등에 대한 의문을 막연히 사찰을 다니면서 한 두개씩 해소해 나가기보다는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불교의 참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설·설화나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 등을 예로 들어 꾸미고 있는 것이 특징. 〈정우서적, 1만원〉



▲지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편지=30년동안 재소자들을 위해 포교활동을 벌여온 삼중스님이 자신에게 보내온 사형수들의 편지를 모아 엮은 책. 매일매일 형장으로 떠나는 두려움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형수들의 회한과 절규를 담았다. 곡절 끝에 아버지를 살해하고 사형수가 된 독실한 기독교 신도인 김진태씨와 삼중스님과의 인연은 진실한 삶과 종교에 대한 물음표를 던진다. 사형수들의 삶에 대한 애착이 눈물겹다. 〈인화, 6천5백원〉



▲인도에 두고 온 눈물=소설 〈만다라〉에 나오는 지산스님의 실존 모델인 떠돌이 스님 현몽의 기상천외한 인도 기행기. 단순히 볼거리에 대한 이야기와 느낌 보다는 쉰 다섯이 되도록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 외로움의 끝을 캐기 위해 인도를 유랑한다. 그래서 기행기라기 보다는 오히려 삶을 느끼게 하는 인생의 역정기처럼 느껴진다. 가난과 범죄로 물들어 있으면서도 신비로움을 간직한 인도를 그대로 보여준다. 〈창해, 8천원〉



▲누구세요 접니다=양의학과 한의학, 정신세계를 포괄하는 기와 선의 세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책으로 중국인 의사 이동진씨와 내과 전문의 조왕기씨가 함께 썼다. 자연과 나는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기 흐름의 분포와 변화 과정에서 비롯된 관계임을 밝히면서 '자연은 곧 나'라는 명제를 제시하고 있다. 혈점을 이용한 진단 및 치료와 기를 이용한 경락 마사지 등의 방법도 제시했다. 〈하남, 9천원〉

화제의 책

산천을 닮은 사람들 고은 외 지음

문인 12명 화가 13명이 만난 자연



우리의 산천은 반만년을 민족과 함께 살아왔다. 이 산천을 문인 12명과 화가 13명이 지난 1년간 누비며 글과 그림으로 담은 〈산천을 닮은 사람들〉은 민족과 고락을 함께 한 '우리의 얼굴' 백두대간을 보여준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고은 신경림 고형렬 등의 문인과 김정헌 임옥상 민정기 등의 화가들이 1대1 짝을 이뤄 자신의 연고 산천을 찾아 각각 글과 그림 4~5점씩을 실었다. 불국토의 염원이 어린 경주 남산과 천불천탑의 신비를 간직한 운주사, 백두산 정상에 오른 고은 시인이 민족혼을 일깨운다. 〈효형, 9천원〉

그냥 갈 수 없는 길 이도원 지음

진리향한 과정 그림그리듯 서술



"버릇처럼 절간을 찾아 복을 비는 아내를 보고 불교를 알고 싶었다. 그렇게 불교를 접한 나는 마침내 진리 앞에 합장하게 되었다."

이도원 거사(전 부산불교교육대학 이사장)가 펴낸 〈그냥 갈 수 없는 길〉은 불교를 만나면서부터 수행의 한걸음 한걸음을 마치 그림 그리듯이 펼쳐 보이고 있는 자전적 구도기. 불교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불교의 진리를 알아나가는 과정을 꾸밈없이 진솔하게 써내려 갔다. "까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 마지막 고백. 〈불광출판부, 7천5백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산에는 꽃이피네	법 정	중앙나라
2	세상에서 참 행복한 사람	나무불	민족사
3	부처님 마음에 오셔서 마음에 사시다 마음에 가셨네	정태혁	여시아문
4	불교신행의 주춧돌	우용	효림
5	남산이 북산을 보고 웃네	맹란자	세훈출판사
6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효림
7	성지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윤율순	신우당
8	논쟁으로 보는 불교철학	이효걸외	예문서원
9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김종서	여시아문
10	똑똑똑 불교를 두드려보자	윤원철외	시공사

구입문의:(02)737-0695


우룡큰스님 (울산 학성선원 조실)
"기도하는 시간의 길고 짧음보다, 절을 하는 횟수의 많고 적음보다, 마음을 잘 모아 염(念)을 하고 정성을 다해 한배 한배 절을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디 믿음의 주춧돌을 견고히 놓아, 일어나는 번뇌를 좇아가지 말고 정성껏 기도하십시오."

우룡큰스님 법문집

불교신행의 주춧돌

불교! 어떻게 믿고 실천해야 합니까?

일평생을 수행과 중생교화를 위해 살아오신 우룡큰스님의 불교신행 지침서.
신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피하고 올바른 정진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과 신행방법 등을 자상한 문체와 일화들로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Ⅰ. 지성(至誠)으로 살자
Ⅱ. 불자의 살림살이
Ⅲ. 불자의 축원
Ⅳ. 불자의 기도
Ⅴ. 일체고액을 벗어나는 길
Ⅵ. 불교신행의 주춧돌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필독서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이신가요?
관음기도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 알고 계십니까?

이 책에는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의 가피와 기도성취를 원한다면 꼭 이 책을 펼쳐 드십시오.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B6 / 값 3,500원

예불을 통한 불보살의 가피!!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지음

많은 불자들이 아침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불문 속에 담긴 의미를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약 예불문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물론 삼보의 가피를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불을 올리는 불자들이 궁금해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것들, 이 책에 모두 담았습니다. 신국판 / 값 5,000원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지음

절에 오래 다닌 불자들조차도 무심히 흘려보냈던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찰 초입(初入)의 일주문에서부터 사물(四物), 석등, 탑 그리고 여러 법당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독자들에게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신국판 / 값 7,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 팩시밀리 : (02) 586~9078

19~22일 무차선회 세미나

23일 한-일 불교학자 토론회

국제학술세미나

세계불교석학들 '한국 집합'

10월 신라 硏 학술발표회

11월 경주엑스포 학술회

IMF 금융지원 이후 가속화되는 경제불황으로 학술회의 개최가 어려움을 보이는 가운데 세계 불교석학들이 대거 참석하는 국제 학술회의가 올 하반기 잇달아 준비되고 있다.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지선)에서 8월19~22일 열리는 한국선 국제학술대회는 1921년 건봉사 무차법회 이후 77년만에 열리는 무차선회(無遮禪會)의 일환으로, 국·내외 불교학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선(祖師禪)에 대한 다각적 조명이 펼쳐진다.

19일 제1분과 '동북아시아의 조사선 전통'에서는 △동북아 불교연구에서의 한국선의 역할과 의미(루이스 랭카스터·美버클리대) 등 3편이 발표되며, 20일 제2분과에서는 '여러 불교전통하에서 본 불성에 관한 견해들'을 주제로 △불성에 관한 논의:중국불교의 선문답 시원(존 매크래·美인디애나대) △일본 임제선 전통의 원리와 실천(니시무라 에신·하나조노대) △현대 한국 선불교 논의에 나타나는 본성론적인 전제들의 반성(종림스님·고려대장경연구소장) 등 7편을 다룰 예정이다. 이어 21일 제3분과 '한국 선불교 전통에서 본 불교적 깨우침에 대한 이해'에서는 △조사선의 수행체계(성본스님·동국대) 등 3편, 제4분과에서는 '선불교의 현대적 의미'를 주제로 △현대 과학시대에서의 선불교의 의미:21세기 지식사회와 선(김용정·前 동국대 교수) △현대 선불교 논의에 대한 비판불교 논쟁의 기여 가능성(찰스 퓰러·도요가쿠엔대) 등 3편이 발표된다.

날짜	행사	주제	주최	연락처
8/19~8/22	무차선회 국제학술회의	'조사선'의 재조명	백양사	(0685) 92-7502
8/23	한·일 불교학자 학술토론회	불교와 불교학	가산불교 문화연구원	(02) 765-9602
10/9~10/10	신라문화제 국제학술발표회	분황사의 종합적고찰	동국대 신라 문화연구소	(0561) 770-2502
11/5~11/7	경주문화 EXPO 국제학술회의	세계석학들과 함께 찾아보는 인류의 나아갈 길	경주 EXPO 조직위원회	(053) 950-2555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스님)은 8월23일 '불교와 불교학'을 주제로 우당기념관 2층 연구원 강당에서 한·일 불교학자 학술토론회를 갖는다. 19세기 이후 나타난 근대불교학과 전승교학 사이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조명하고, 그 속에서 불교정신과 패러다임의 전승을 위한 한국 불교학의 정체성 회복에 대해 전망해 볼 계획이다. 동경대 기무라 기요타카(木村淸孝)교수가 발제에 나서며 동경대 불교청년회 회원 7명과 가산연구위원 등이 참석한다.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소장 김갑주)는 제20회 신라문화제 행사로 10월9~10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국제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분황사의 종합적 고찰'을 주제로 △분황사의 창건연대 및 가람배치에 대한 조명과 함께 △〈삼국유사〉에 나타난 분황사 △자장율사와 분황사 △원효스님과 분황사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분황사 해체복원과 관련, 그에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도 집중 조명된다. 장충식(동국대 그고미술사) 남동신(서울대) 하전정(河田貞·중국 남충산대) 교수, 강우방(국립경주박물관장) 신창수(창원문화재연구소장)씨 등 12명의 국·내외 학자가 참석한다.

또한 '98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의 일환으로 '세계 석학들과 함께 찾아보는 인류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회의가 11월5~7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다. 이어령(이화여대 석좌교수) 정병조(동국대 교수) 등 국내학자 35명과 박성배(美 스토니브룩대) 스탠리 탐비아(美 하버드대) 하방천(何芳川·중국 북경대 부총장) 등 10명의 국외학자가△경주 문화의 지역성과 세계성 △문화의 전승과 환경보호 △문화의 만남과 융화 △정보화 사회와 문화적 대응에 대해 고찰한다. 학술회의 폐막식에서는 21세기 인류문화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할 '경주문화선언'도 채택할 계획이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작년 3월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주최로 열린 '세계승가공동체의 교학과 수행체계' 국제학술회의.

"열반경과 주석서 붓다관 차이"

英 옥스퍼드대 안양규씨 박사논문

팔리어 〈열반경〉 주석서에 나타난 초기불교와 상좌부의 붓다관의 비교연구와 함께 처음 영문 번역한 논문이 발표돼 화제다.

안양규씨(옥스퍼드大 동양학과)는 지난 7월 박사학위 논문 '열반경과 그 주석서에 보이는 붓다관-붓다고사의 열반경 주석서 번역과 아울러'에서 "붓다고사는 부처의 죽음의 원인이 아난다에게 있다고 보는 〈열반경〉의 내용과는 달리 '무상의 법칙'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같은 합리적 해석은 상좌부의 붓다관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붓다고사의 팔리어 〈열반경〉 주석서는 부처의 전기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학자들의 연구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안씨의 이번 논문은 〈열반경〉 주석서를 처음으로 영문 번역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열반경〉 주석서는 붓다고사에 의해 5세기경에 쓰여진 것으로, 아직까지 한번도 번역되지 않았기에 안씨의 〈열반경〉 주석서 영역은 붓다고사 주석서 번역의 최초라는 점에서 곧 팔리성전협회(Pāli Text Sosiety)에서 책으로 출판할 예정이다.

"보살사상 초기불교시대 성립"

이봉순씨 박사논문 '보살사상 성립사 연구'



"보살사상은 대승불교 이전, 초기불교시대부터 성립돼 역사적으로 발전하고 체계화됐다."

이봉순씨는 동국대 97학년도 하반기 박사학위 논문 '보살사상 성립사의 연구'를 통해 "보살사상은 기원전 2세기 초 또는 1세기 초, '연등불 수기(授記)'를 설하는 불전(佛傳)문학이나 〈본생경〉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일반적으로 보살사상은 대승불교에 성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부파불교와 대승불교의 보살사상은 초기불교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며 "대승경전에 이르러 깨달음을 구하는 자리적(自利的)인 면보다는 중생구제라는 이타서원(利他誓願)의 면이 더 강조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살사상의 기원이 석가보살의 고귀한 체험을 찬탄하고 자기도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에 있다면 '초기불교에는 보살사상이 없다'는 주장은 보편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7불사상이 나타났을 무렵, 이미 석존을 설법교화의 방편으로 〈본생경〉의 이야기 중 초기의 것들을 이용했다는 것. 이씨는 "부처님 재세시(在世時)부터 있었다고 하는 불교 최고의 경전 〈숫타니파타〉나 〈장로게〉에도 '보살'이란 용어를 볼 수 있다"며 보살사상의 초기불교 기원설을 강조했다.

김정은 기자

국제소식

반테스님 선출

45년간 힌두교도가 맡았던 인도 대보리사 관리위원장에

"인도의 모든 불교신자들은 이날을 승리의 날로 기억할 것입니다."

7월13일 대보리사 관리위원회 5대 위원장으로 반테 프리지나 쉘스님이 선출됐다. 대보리사와 대탑은 부처님이 6년간 고행하며 보리수 아래서 득도하였다는, 부다가야에 있는 세계적인 불교성지로 스님이 위원장직을 맡은 것은 45년만에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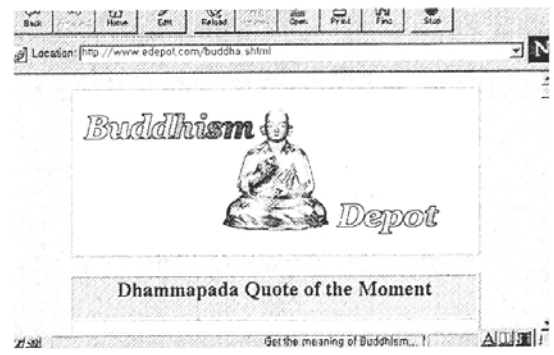
대보리사 관리위원회는 1953년 부다가야 성지 내 대보리사와 대탑을 관리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불교도 4명, 힌두교도 4명 등 총 9명이 있지만 대보리사과 관련된 모든 행정권은 외원장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위원장직은 그동안 힌두교도가 맡아왔다. 불교성지의 권리가 45년간 힌두교도의 손에 있었던 것. 이에 따라 대보리사을 둘러싼 불교와 힌두교의 갈등이 끊이질 않았다.

반테스님은 "불교와 힌두교의 고대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 사원은 사실 불교성지인 동시에 힌두교 유적지이기도 하다"며 "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두 종교의 갈등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스님은 "사원과 관련해 불교계와 힌두교의 균등한 개발권이 인정돼야 하나 지난 45년간 힌두교 시설물은 크게 늘어난 반면 불교계 시설물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종교간 갈등의 이유를 꼽았다.

현재 반테스님은 부다가야에서의 불교 시설물 확충을 위해 △사원 근교에 시민들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명상공원 조성 △대보리사 도서관에 불교서적 확충 △3백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불교병원 신축 △9월중 50여개의 방이 있는 룸비니 호텔 신축 △인도 다람살라에 있는 티벳망명정부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불교창고

불교토론실 다양한 주제 불교적 해설

외국인 불자들과 채팅 '법우와의 만남'

게릴라성 호우와 열대야! 약속 하나 변변히 챙길 수 없는 날에 인터넷의 고급한 하이테크 기술을 즐기며 이국적 불교를 탐험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불교창고'(Buddhist Depot)는 불자 네티즌의 이런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사이트.

미국불자들이 관심 갖는 시사적·학술적 주제는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은 이 사이트의 △불교토론실에서 풀 수 있다. 이곳에서는 가장 인기있는 주제는 헐리우드 영화 '쿤둔'에서 나오는 중국인 부자(父子)의 죽음. 이에 대해 다양한 불교적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 미국인 불자들의 자유로운 상상이 돋보인다.

이외에도 이 서비스에는 〈법구경〉 〈반야경〉 등 경전에 대한 진지한 질문과 대답을 비롯해 10여개 주제에 대한 논의를 열람할 수 있다.

인터넷 상에서 외국인 불자들과 채팅(대화)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이트의 △생생한 대화방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영어를 잘 모르더라도 채팅방을 들어서면 보살심 가득한 불자들이 맞아준다. 'Hi' 'In Dharma' 등의 단순한 영어로도 가슴 뛰는 추억을 경험할 수 있다. 만약 이곳에서 좋은 법우(法友)를 만나면, 이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전자우편 주소 등록 서비스를 이용, 자신의 전자우편 주소를 남겨 놓으면 된다. 그리고 인터넷 전자우편을 통해 서투른 법거량을 주고받을 수도 있다.

△동화상 도서관 서비스에서는 틱낱한 스님이 지난해 7월 '삶의 수레바퀴'를 주제로 한 법회 현황을 녹화한 비디오를 감상할 수 있다.

또 △불교미술관 서비스는 항마촉지상 고행상 등 부처님의 다양한 수행상과 네팔 카투만두 계곡에 있는 탑골사원의 장관, 네팔인들이 만든 루파스와 상카스 등 20여장의 그래픽 사진을 다양한 크기로 화면상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여성불교계의 대표적인 인사인 벨 훅과 페마 초드론 스님이 '두카(dukkha), 고통'을 주제로 한 대담을 열람할 수 있다. △서적 및 문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이 대담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고통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는냐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떻게 고통을 다루어야 마음의 깨우침을 얻어 더욱 더 우리의 고통 속으로 몰아 붙이는 일상의 습성이나 타성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등의 지적들이 인상적이다. 이외에도 〈불교-비(非)종교의 종교〉(알란 와츠 著) 〈아주 짧은 불교학 개론〉(데이비드 키온 著) 등 30여권의 불교서적를 추천하고 있다.

스리랑카와 미국에서 읽혀지고 있는 팔리어 대장경에 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팔리경전 서비스는 율장·경장·논장 등으로 구분된 경전석인본을 제공하고 있다. 특장 경장부 색인의 경우 총 351권의 경전을 색인해 놓고 있다. 미국에서 1993·96·98년 각기 발간된 영역본 〈법구경〉의 일부를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 △'법구경' 읽기도 제공된다.

http://www.edepot.com/buddha.shtml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1998학년도 가을학기

사회교육원생 모집

1. '98학년도 가을학기 수강생모집계획

과정명	세 부 과 정	과 목(반)	교육기간
교양교육과정	불교란 무엇인가	1, 2	1학기
	좌선 법의 이해와 실제	1, 2	1학기
	사군자	오전, 오후, 야간반	1학기
	서예	한글/한문	2학기
	재(材)테크 교실	금융재테크컨설팅, 생활재테크	1학기
	선기공	초급, 중급, 고급, 시범	1학기
	생활중수	주간, 야간	1학기
	생활역학	초급, 중급, 연구	1학기
	외국어 회화교실	일어 1, 2, 중국어 1, 2	1학기
	사진촬영	주간, 야간	1년
	댄스스포츠		1년
	실용음악		1학기
	수지침		1학기
	한지그림공예	기초, 고급반	1학기
	전통생활자수		1년
	전통민화실기	1, 2	2학기
	전통무용		2학기
	스포츠마사지		1학기
전문교육과정	불교전문교육	유식학	2년
		비교종교	
		인도의 수행론	
		정토사상	
		공의 시계	
	불교연구	불교의 생활	2학기
		깨침의 시계	2학기
		불교영어 I·II	2학기
		회업사상의 실천적 이해	2학기
통신교육과정	동국대 TV불교아카데미	부처님의 생애와 사상 한국선사상의 이해 한국불교의 발전 유식학 불교미술의 이해 인도사상의 전개와 불교	1년
	가상강좌	사이버 창작입문, 사이버 작문	1학기
박물관교육과정	불교박물관대학		2학기
특별교육과정	컴퓨터만화	멀티미디어제작 워크샵	1년
		영상 세미나, 디지털 애니메이션	
	표현예술치료	1, 2, 3, 4단계	1학기

2. 모집대상 및 자격
제한 없음(단, 불교영어 지원자는 고졸 및 동등학력이상자에 한함)
3. 원서교부 및 접수 : '98. 8. 10(월) ~ 8. 28(금)
사회교육원 교학과(90주년 학술관 1층)
4. 제출서류 : 수강원서(소정양식) 및 사진(3×4cm) 3매
5. 문 의 처 : 사회교육원 교학과 전화 : 260-3728~9 / FAX : 260-3730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6

김재일법사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불교교리 강좌개강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본교리를 알기쉽게 공부할
제 3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강의개요

1.강의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가을반)
2.교육장소	동산법당(안국동 로타리)
3.개강일시	1998년 9월 2일(수)오후7시
4.교과목	불교의정의, 불교의특징, 불교의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제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자의 실천덕목, 불교상식 및 사찰예절
5.지도법사	김재일 법사
6.교 재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 (불교의기본교리, 교리노트)
7.입학금	30,000원(반명함판 사진2매)
8.지원자격	제한없음

※문의 : 사무국
TEL(02)732-1206~8
FAX(02)732-1207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반야회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신(편)입생 모집 요강

1989년 설립된 불교 전통 의식 교육대학에서는 범음·범패, 요잡 및 작법등 불교 전통의식을 보다 높이 계승발전 시키고져 하오니 뜻 있는 스님및 불자들의 입학을 바랍니다.
-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학장 合掌 -

1 모집학과

학 과	교 육 내 용	모집인원	비고
초급 교육과정	예경의식 및 기초교리	20명	6개월
전통 교육과정	상주권공 및 불교의식론	20명	1년
연 구 과 정	요잡, 작법, 안차비 등	10명	1년

2 응시자격
(다음 사항중 한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1) 수계 득도한 자
2) 오계를 수계한 자
3) 각 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3 전형방법 : 서류전형(면접)

4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5 제출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수계증명서 사본
3) 추천서
4) 반명함판 사진 4매

▶ 교육시간 : 주 5회(월~금)
▶ 접수일자 : 1998년 8월 17일~9월 6일
▶ 개 강 : 1998년 9월 7일

■ 찾아오시는 길
청량 전화국 / 미주 아파트 / 청량리 전철역 / 롯데 백화점 / 홍릉← / →청량리 / 교육대학 / 제기동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교학처
130-012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604번지 전화 (02)967-7093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최근 일본문화의 국내침투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일본문화 침투는 '신식민주의 시대의 도래가 아니냐'는 우려조차 낳고 있다. 특히 일본 종교의 국내 침투는 일본문화 개방을 눈앞에 두고 더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민족의 정신과 문화의 정수인 종교마저 일본화 된다면 민족의 혼은 그 존립기반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 한국불교의 각성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속의 일본불교

20여 종파 신도 130만…민족정신 허찔려

1965년 한일국교수립후 급속 확산
사회활동 활발 '신식민주의' 우려
SGI 한국불교회 25개 지역신도 1백만 교세 자랑

현황

현재 국내에 유입된 일본 종교 가운데 불교세가 가장 강하다. 신도 1백만여명의 교세를 자랑하는 국제창가학회 한국불교회(SGI 한국불교회)를 비롯 입정교성회, 정토진종 등 법화·정토계통의 일본 불교계는 20여 종파 1백30만여명의 신도를 확보하고 있다.

그 다음은 56만여명의 신도를 보유한 천리교가 뒤를 잇고 있다. 이밖에 기독교계열인 대한민국세계구세교와 세계메시아교 한국본부, 일본 토착 신종교인 선린교 한국교구와 '생장의 家' 등은 아직 교세가 미약한 편이다.

현재 30여 종파에 달하는 왜색종교 신도는 최소한 2백여만명. 이들 가운데 일부는 친일사상이 종교적 성격으로 승화돼 깊거 몰입되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2~3년전부터 SGI한국불교회, 입정교성회 등 일본 불교는 국내에서 환경·시민운동에 동참하는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일련정종은 올해 초 조계종 총무원장을 예방하기도 했으며, 입정교성회는 지난 6월24일~7월3일 불교인권위원회와 함께 일본의 한국침략에 대한 반성과 참회를 촉구하는 '생명과 평화의 제2차 한일 제종교인 국토순례'를 실시하고 한국불교 주요단체를 시찰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들 일본 불교는 언제부터 한국에 상륙한 것일까. 그것은 일제가 문화침투전략의 일환으로 문화적 이질감이 적은 불교를 적극 활용하면서 부터였다.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이듬해에 일본 정토진종 본원사의 별원을 부산에 설치하여 종교문화를 통한 조선침략을 획책하였다.



◇SGI한국불교회의 인터넷 초기화면.

일본 불교는 1910년 일제강점이후에도 전통 수행위주의 한국불교에 대처승 장려등 왜색화를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1945년 패전한 일본이 우리나라를 떠나면서 신도(神道)나 불교 각종단 등 대부분의 종교교단이 되돌아 갔으나, 천리교 등은 토착세력으로 남게 된다. 그러나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 일본 불교의 각 교단이 일본 신흥종교와 함께 다시 전래되었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력한 일본 불교종파의 교세와 특징 등을 살펴본다.

■ 국제창가학회 한국불교회

국내 최대의 일본종교인 SGI(Soka Gakka International)한국불교회는 국민들에게 '남묘호렌게쿄'로 널리 알려져 있다. 교세는 전국 25개 지역의 신도 1백만여명, 연수센터 1곳, 월간잡지와 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 3개, 문화공간 2백61곳 등이다.

교리는 〈법화경〉을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일련의 각종 저술 등을 하나로 묶은 〈어서(御書)전집〉과 초대회장 마키구치 스네부로와 2대회장 도다 조세이, 3대회장 이케다 다이사쿠의 저서와 교시가 실제적인 소의경전이다.

주요 수행방법으로는 '나무묘법연화경'이라고 쓴 만다라인 '어존불'을 동쪽에 모시고 '남묘호렌게쿄'를 외운다. 이와함께 좌담회와 공덕담이라는 의식을 통해 체험담을 공유한다.

92년 창가학회가 일련정종으로부터 파문당하고 독자적인 종교법인으로 일본에서 활동하게 되자 일련정종 계열은 여러 분파의 일련정종과 SGI한국불교회(1975년 한국일련정종불교회로 명명하며 독립)로 완전히 분리된다.

창가학회는 1253년 일본 나가사군 도죠지방의 고미나토에서 일련(日蓮)에 의해 창시된 일련정종에서부터 연원한다. 1930년 일련정종내 교육자 중심의 신도모임인 창가교육학회로 출발, 75년 이케다 다이사쿠 현회장에 의해 '국제창가학회'로 개명됐다. '공명당'이라는 정당까지 만들어 종교의 정치세력화를 성공시킨 이들은 1백28개국, 1천3백만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 일련정종 중앙회

1991년 홍종희가 창교, 기관지 〈정법〉을 강행했다. 조직 당시에는 SGI한국불교회에 대항, 일련정종의 각 사원 및 신도를 총괄하려는 협의체로 구성되었으나 각 사찰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실질적인 활동은 자율에 맡기고 있다. 특히 동대문 일련정종(한국일련정종총본부), 일련정종 강동본부(대한정법일련정종법화강불교회), 일련정종 대한사(연화산 대한사)가 소교단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일본인이 이끄는 대한불교일련종대법산광선사(대표 影山信雄, 신도 5천명)를 제외하면 SGI한국불교회 소속 이외의 일련정종계 사원을 망라하고 있다. 부산 일련정종 고려사가 20만여명의 신도를 보유하고 있는 등 18개 주요 종파에 25만여명의 교세를 보이고 있다.

■ 재가불교 한국입정교성회

이복순 이사장이 1982년 3월 2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창교했다. 2개의 교당에 1만여명의 신도를 보유하고 있다. 입정교성회는 일본 일련법화계의 유력한 종단의 하나로서, 현재 명예회장이자 성조(聖祖)로 받들리는 정야일경(庭野日敬)이 1938년 3월 5일 영우회(靈友會)에서 분립, 포교활동을 시작했다. 일본의 신도수는 5백65만명이 넘는다.

교리는 창교자 庭野의 독자적인 성명학(姓名學)·기학(氣學)적인 것과 진언밀교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수행법은 법좌(法座)를 중시한다. 이는 7~8명에서 많게는 십수명이 한 조가 되어 지도자를 중심으로 법을 담론하는 것. '법좌는 교성회의 생명'으로 표현된다.

■ 연화산 대한사

일본 일련종 종립대학인 입정(立正)대학을 졸업한 강호실이 1979년 4월 20일 서울 관악구 봉천4동 창립, 일련정종을 전교하다가 1989년 법인등록했다. 교리는 〈법화경〉을 말법유포의 부촉을 받은 상행(上行)보살의 소지인 〈법화경〉 제목 즉 '남묘호렌게쿄'를 독송하여 적공루덕(積功累德)하는데 있다. 소의경전은 법화3부경.

교단조직은 지도교사 휘하에 운영위원장이 있고, 그 아래에 지방특별강 13개소가 있다. 월간잡지로 〈화광(和光)〉을 3천여부 발간하고 있다. 중점사업으로는 납골당·지방사찰 건립, 승려 육성 등에 힘쓰고 있다. 포교·문화·사회사업 분야를 강화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일련정종의 대표적 종파인 연화산 대한사. 서울 관악구 봉천동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포교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4월 11·14일 열린 '다가모리 정토진종친란회 회장 불교강연회', 대한정토진종불교회는 '일본어 불교강의'를 통해 신도를 끌어 모으고 있다.

"임란·일제 침략주의자들 신봉"
日 법화신앙 잘못지적 묘각스님



국내 일본불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련정종계는 법화계열의 종단이다. 특히 소위 창가학회에서는 '나무묘법연화경'을 일본음으로 '남묘호렌게쿄'로 불러야 공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그들의 도국(島國)근성에서 나온 꽛쇼적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그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일련대사와 비교하면서 자국의 대사는 말법(末法)시대의 본불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시효넘은 감기약이요, 작년달력이라고 한다.

일본의 잘못된 법화신앙은 역사적으로도 증명된다. 임진왜란 때 일련종의 현소(玄蘇)라는 승려와 가등청정이 '南無妙法蓮華經'이라는 깃발을 앞세우고 우리나라에 쳐들어 온 것이다. 또 일제강점의 원흉 이또오 히로부미와 조선총독부의 미나미 총독, 그리고 마루따의 생체실험 장본인인 731부대장 등이 '남묘호렌게쿄'를 봉창하며 동양삼국의 평화를 짓밟은 장본인들이었다.

〈법화경〉의 제목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즉 실상묘법연화경(實相妙法蓮華經), 일승(一乘)묘법연화경, 대승(大乘)묘법연화경, 나무묘법연화경 등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래로 '실상묘법연화경'이라고 불리어 왔다. 〈석문의범〉이나 고찰에 가보면 주련등에 그렇게 적혀 있다.

〈국청사 주지〉

왜색불교 확산 원인과 대책

日연수등 자금 공세 출세등 기복 강조
정부·범종단차원 규제방안 마련해야

SGI 한국불교회의 경우 일련대사를 석가모니 부처님과 동격인 교주로, 이케다를 비롯한 초대와 2대 회장을 종조로 삼는 비불교적인 교리를 갖고 있다. 국제창가학회가 이케다 회장을 생불(生佛)로 찬양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도 신흥종교에 나타나는 우상화의 전형을 보여주는 한 예다.

그들이 회관 동쪽벽에 걸고 어본존(御本尊)으로 섬기는 '남묘호렌게쿄 만다라' 가장자리에는 여러 보살과 호법선신 등의 명호와 함께 천조대신(일본 개국신)과 팔번대보살(고대 한국을 침략했다는 장수)이 등장하고 있다. 한국불자들이 일본 개국신과 수호신에게 날마다 절을 하고 복을 비는 동방요배나 다름없다. 이밖에 일본어 '제목 봉창'이라는 수행방법도 왜색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왜 이들 왜색불교에 경도되는 것일까.

이들 왜색불교들은 한국국민의 반일감정을 감안, 공개적인 포교활동은 자제하고 있으나 일체의 포교자금도 음성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학술연구세미나지원, 한국스님 및 신도 일본연수및 지원등도 최근에 이르러 급증하는 형태이다.

종교학자들은 "일본종교에 쉽게 빠지는 것은 그것이 무병장수와 출세 등 현세적인 기복신앙을 강조하면서 한국불자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기 때문"이라며 "현세의 부귀영화가 종교의 목적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전통불교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본불교들이 현재 벌이고 있는 각종 사회봉사활동에 대해 막연히 우호적인 사고를 가질 경우 일본 국수주의 종교의 한국 지배라는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음을 불교학자들은 경고하고 있다. 정부도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왜색문화 조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정규과정, 통신과정》
개강: 9월 3일(목)
9월 4일(금)
선착순 3,000명
(학력·연령 제한없음)

1. 기본 6개월 과정
불교 기본교리, 예불, 반야심경
★ 천수경, 금강경, 법화경, 육조단경 등도 공부할 수 있음.

2. 저렴한 학비
·3개월 동안 3만원
(처음 3개월은 입학금 만원추가)
·교재비 무료
(6개월 기본과정)-IMF

3. 교수진
·우학스님(저거는 맨날 고기묵고와 장가 안가길 잘 했네의 저자)
·무비 큰스님, 박삼중 큰스님, 무진장 큰스님, 박완일 교수, 법산 큰스님, 보각 큰스님

※통신과정"교재+테이프" 집에 앉아서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053)474-8228

건강에의 신비! 옥
春川 玉山家玉
태교에서 무덤까지 玉을 갈고 산 한국인들
'보석'인가?
'영험한 치료제'인가!
※ 처녀가 옥을 접하면 신비한 미인이 되고 중년여성은 피부가 고와지고 건강해진다. 양귀비는 진옥을 노상 입에 물고 살았다고 한다.
※ 옥을 경락이나 피부에 접촉하거나 몸에 지니고 살면 난치병에 이롭고 옥판위에 손바닥 발바닥을 마찰하면 노인도 회춘한다.
(「王室養命術」에서)
※ 옥도자기 타일위에서 흰쥐를 기른 결과 숫놈 쥐의 정자가 40%증가했다(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창규박사팀)
※ 특히 심장질환, 두통, 불면증환자의 그 절반정도가 완치 효과를 보았고 그외 나머지는 37%~84.8%의 치유효과를 보았다.
(북경중의병원 임상 보고서)
제품 옥목걸이외 장신구, 침대침구류, 기초화장품, 옥도자기등
• 옥의 명성은 2000년전 중국 신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진옥(眞玉)은 이제 전설속으로 사라지고 오늘날은 지구상 유일하게 한국기옥만이 강한 기(氣)가 방사될 뿐입니다. 이옥의 효능과 명성을 모방하여 외국에서 수입된 옥들이 춘천옥 자연옥등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링테스트 한가지 만으로도 쉽게 구분됩니다. 진옥이라야 승패가 걸립니다.
玉山家® (02)777-0105 (백오옥)

신비한 우주 에너지(빛) 발생장치, 명상용
수정 피라밋 허란야!
규격 사방 2m 높이 1.3m
피라밋 모자
〈특허청 의장특허 등록 NO.204454〉 피라밋 모자
「의료용 '氣' 발생기」 의장등록원 NO.1822, 1823, 1824
◆ 피라밋 안에서 명상이나 취침시는 원인불명의 신체 정신적 증상과 두통 불면증이 해소되고 체질이 개선된다.
◆ 깨달음과 영적각성 및 차크라 개발을 촉진시키는 고차원의 빛 에너지가 대량 생성된다.
◆ 인체에 유해한 수맥을 차단하며 컴퓨터, TV등 전자제품의 인체 유해전자파를 중화·소멸시킨다.
우주문명과 피라밋 허란야
문덕 출판사
한국 피라밋 허란야 체질개선 연구회
부 설 문덕출판사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305-1 보라B/D 303호
TEL. 792-0960, 0966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 야 심 경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禪筆」 최초로 공개.
⊙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그림, 龍자그림 (수액파 차단) 특별보시!
⊙ 옥판·동관·인쇄 복사본보다 생필인 진품이 영기와 영험이 더 있습니다.
※ 정통으로 배우는 사경예술 실습, 사군자, 달마도, 용자그림, 전수자 수강생모집. (통신도 가능)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 ☎ (02)242-0331,242-0255 (야)216-0307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文化藝術院
雲藏法師禪筆研究會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합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합양은 재배의 적지
● 합양은 100년간의 재배를 통한 왕조격 품내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98년 조계종포교원 산하로 전국 규모의 파라미타 청소년협회가 창설돼 청소년포교의 큰 틀을 마련했다.



◇세계 최초의 불교방송인 BBS 개국('90)에 이어 96년 불교TV가 첫 전파를 발사했다. 생생한 전법현장을 전해주어 포교활성화는 물론 바른 불교를 이끄는데도 기여했다.



◇1959년 조계사에서 열린 육사 졸업법회. 이후 군승 파견, 군법당 신축으로 매년 6~7만명의 장병들이 불교에 귀의하고 있다.

정부수립 50년 전법 50년

순회포교서 방송·인터넷까지

정부 수립 이후 반백년, 현대사는 좌우 이념대립과 전쟁, 경제개발과 민주화운동으로 점철됐다. 불교는 현대사의 질곡을 고스란히 받으면서도 불자의 사명인 전법의 탑을 차곡차곡 쌓아올렸다.

조계종은 96년 전법 5개년 사업을 확정하고 그 첫 해를 '불교청소년의 해'로 선포하며 전법의 기치를 올렸다. 지나간 50년 전법의 역사를 거름으로 삼아 새로운 50년과 21세기를 준비하는 각오를 다지고 전략을 수립할 때다.

50년대

재가조직의 태동기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56년 6월 전국신도회가 창립되었으며, 58년에는 대한불교청년회의 재건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마야부인회 반야부인회 등 여성단체도 창립되었다.

정광고 금산상고 삼인중·고등학교가 문을 열었다. 동국대가 종합대학으로 승격된 때도 이 시기다. 유성갑 최법술 이종욱 허영호 박성하 전진한 등 승려출신의 국회의원 및 장관 진출이 많아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컸음을 알려준다.

60년대

정화의 여파로 조계종과 태고종으로 양분된 가운데 62년 조계종은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3대 사업으로 도제양성과 포교, 역경을 채택했다.

60년대는 해외포교에 첫발을 내딛어 한국불교의 저력을 보여준 시기로 기록된다. 대만 홍콩 일본에 홍법원에 이어 미국, 캐나다에 한국사찰이 건립됐다.

이와 함께 60년대는 대불련의 조직, 소년소녀교화연합회(청소년교화연합회의 전신)가 만들어지는 등 어린이 청소년 청년불교의 싹을 틔웠다. 최초의 어린이합창단인 불교칠보어린이합창단(칠보사)이 창단됐다. 66년 창립한 불교교육연합회가 이듬 해 각급학교 불교교과서를 발행했다.

61년 운허스님이 〈불교사전〉을 발간한 것을 신호탄으로 한글대장경 발간 착수, 〈우리말 팔만대장경〉 간행 등이 굵직한 사건으로 기록된다. 미침내 64년 7월 동국대 내에 동국역경원이 개원하기에 이른다. 68년에는 군승제도가 시행되며 군법사 5명을 과견, 군포교에 본격 나섰다.

70년대

'대중불교' 운동이 이 시기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꼽힌다. 72년 창립한 대원회는 불교교양대학을 설립해 불교대중화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75년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제정과 함께 여의도·조계사에 이르는 제등행렬이 시작돼 시민축제로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전국신도회 전국순회법회도 이 시기를 풍미하는 행사였다. 당시 회장이었던 김제원씨(신진자동차 회장)가 제공한 8톤 트럭을 개조해 71년 10월부터 3개월 동안 전국 31개 시·군에서 실시했다.

대한불교진흥원이 설립돼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물적토대를 더욱 굳건히 다졌다. 조계종 포교원의 개원과 천태종 중앙청년회, 진각종 전국청년회, 한국불교연구원 개원과 서울구도회, 삼보법회 등 굵직한 신행·교육단체가 창립돼 전법의 열기를 고조시켰다.

서창업 김용호 최영철 등이 많은 찬불가를 발표했으며, 74년 삼보법회 불교합창단 창단 이후 사찰마다 합창단을 구성, 불교행사에서 음성포교를 열었다.

80년대

불교의 대중화에 힘입어 도심포교당 개설붐이 일면서 침체됐던 한국불교가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다.

민중불교운동의 태동도 이 시기다. 84년 5월 고은 여익구를 비롯한 진보적 불교인 1백여명이 민중불교운동연합을 창설, 사회민주화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서울 구로동에 여래포교원을 열어 노동자 포교에 대한 관심을 표출했다.

80년대 후반부터 직능단체불자회가 본격적으로 창립되기 시작했다. 국회정각회 한국교수불자연합회 계비역장성불자회 연예인불자회 창립이 줄을 이었다.

86년 증산스님이 명아 대상의 법회를 처음 봉행한 것을 시작으로 점자불경 발간, 한삼회, 해광명인불자회 백화도량 창립이 이어졌다. 석주스님이 제1회 법무부 교정대상을 수상했으며, 부산교도소 교정인불자연합회, 서울구치소 불자회, 대전교도소 불심회가 창립돼 재소자교화에 나섰다.

60년 〈대한불교〉(불교신문 전신) 창간 이후 부침을 거듭했던 불교언론은 80년대 들어 〈불교회보〉(주간불교 전신), 〈법보신문〉 〈대한불교〉 등의 주간신문과 〈불광〉 등 월간잡지가 창간되며 매체포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불교출판도 80년대 중반 활기를 띠며 일반인들을 불교로 이끄는 전법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90년대

90년 5월과 95년 3월 각각 개국한 불교방송과 불교TV는 전파의 위력으로 생생한 전법의 현장을 전해 줌으로써 포교에 크게 기여했다.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부다피아' 조계종 총무원 등이 첨단매체인 인터넷을 활용한 포교에 나섰다. 성철스님의 삶은 온국민들에게 삶의 새로운 각성을 촉구했다. 성철스님의 입적으로 10년 동안의 포교효과를 거뒀다는 분석도 있었다.

94년 11월 조계종 포교원이 넬원으로 독립한 이후 활발한 활동을 펼쳐 파라미타청소년협회의 창립, 전국교사불자연합회를 만들어내는 성과를 이뤄냈다. 정치권의 불자회 탄생도 90년대의 한 특징으로 꼽힌다. 한나라당불자회, 자민련불자회, 국민회의 연등회가 속속 창립되었다.

90년대는 한 세기의 정리와 함께 새로운 시대의 도전 앞에 놓인 시기이다. 중생이 귀의하는 불교의 새로운 면모를 준비해야 한다. 정락스님(용주사 주지, 전 조계종포교원장)은 "존경받는 수행자상을 대중들에게 보여주고 경전과 불교문화의 보급이 중요하다"며 "대중들에게 불교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50년대
재가불교운동 태동기
종립교육기관 잇단 개교

60년대
해외포교 거점마련
어린이·청소년 포교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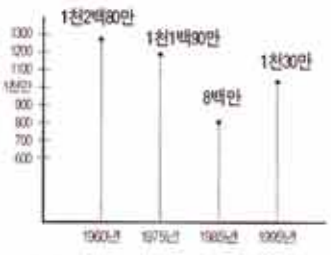
70년대
불교교양대학 설립
찬불가 제작-합창단 창립

80년대
불교언론 활동 활발
도심포교당 개설 잇달아

90년대
방송 전법시대 '활짝'
정보화시대 포교 기틀



◇음성공양은 불법의 환희심을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4백여명으로 구성된 불교연합합창단의 창작국악교성곡 '불법에 피는 꽃' 공연 모습.



* 1960년 불교인구는 서울연감('60), 75년은 정신문화연구원 발표 (사회변동과 한국의 종교), 85년, 95년 수치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인용한 것임



◇숭산스님의 해외포교 30년을 기념해 외국인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도심포교당 개설은 불교의 현대화를 촉진했다.

초대 조계종포교원장 석주스님께 듣는 '새로운 50년 전법'



"청소년 불자는 불교미래 자산"

77년 2월 포교원장에 취임할 당시 포교에 대한 열의가 한창 일어날 때였다. 의욕이 강하다보니 모든 부문이 융성됐던 것 같다.

요즘들어 가만히 보면 신도가 줄고 있다는 소리도 들리고 예전처럼 열의도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 특히 종단의 무관심으로 인해 대학생포교가 시들해진 것이 보이고, 어린이, 중·고교 불교학생회도 사찰에서는 포교하려하지만 학생들이 안나와서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다. 지도교사들의 열의가 부족하고 새로운 세대를 위한 포교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해 발생된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

또 직장 등 포교분야를 시대상황에 맞게 더욱 넓혀야 한다. 실보사의 경우 국세청불자회가 법회를 보고 있는데, 이들을 사찰에서 포용하여 포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 포교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

사찰의 경우에는 포교사를 상주케 하여 관광사찰에서 일반인들을 포교하게 하고, 하생법회 등 특수분야 법회를 담당케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21세기를 맞아 사찰행정도 구태를 벗어나 스님과 신도가 같이 사찰을 운영하도록 바뀌어야만 앞으로의 결쳐질 전법 50년이 성과있게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법 50년 주요일지

48. 8. 15 대한민국 수립 선포. 종교업무 문교부에서 관장.
49 송광사, 순천에 직할포교당 개원
55 운문스님, 목포 정혜사에 어린이법회 최초 개설
56. 6. 16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신도회 창립
9 대각회 창립
62. 1. 조계종, 도제양성 포교 역경을 불교중흥 3대사업으로 채택
9. 28 대한불교청년회 창립
63. 6. 6 대불창 성전편찬위원회, 〈우리말 팔만대장경〉 간행
9. 22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창립
64. 7. 26 동국역경원 개원
65. 5. 칠보사, 어린이합창단 창단
66. 4. 22 삼보법회 창립
5. 15 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창립
67. 3. 19 불교종립학원연합회, 불교교과서 발행
8. 15 대한불교진흥원 설립
77. 3. 6 조기종포교원 개원
79. 5.20 진각종 전국총금강회 창립
80. 3. 4 천태종 금강학회·금강불교대학 개교
85. 5. 4 민중불교운동연합 창립
87. 8. 5 대한불교진흥원 〈통일법요집〉 간행
88. 7. 1 국회정각회 창립
89. 7.15 대원회 제1회 대중불교결사 전국대회 개최
90. 5. 1 불교방송 개국
92. 3.16 불교계 최초로 점자 포교지 간행
93.11. 3 해인사 고려대장경 8백년만에 첫 나들이
94. 2. 6 캐나다 대각사 우리말 불교방송 시작
11.16 조계종포교원 법원회
95. 3. 1 불교TV 개국
96. 1. 21 조계종 전법의 해 선포
9. 30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설립
97. 1.18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창립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무인년 하안거 해제법어

"비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월하스님 (영축총림 방장)

遮裏元無心與境거늘
空生依舊愚逐物이로다.

이 자리에는 본래 마음과 경계가 없거늘
공연스레 중생이 옛을 의지하여 어리석게 경계를 좇도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오늘 해제를 하게 되는데, 꽁꽁 묶고 얽어매인 것을 푸는 날입니다. 푼다고 하여 실제로 묶었던 것을 푸는 것이 아니라 금욕을 하다가 행동을 자기 의지대로 하게 한다는 것인데 공부하는 이들은 결제다 해제다에 끄달리지 않습니다. 생사에도 초월하는데 결제, 해제를 초월 못하겠습니까?

앉아서 참선하고 화두를 참구하는 것은 정신을 모으는 것이고 다른 망상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화두가 마치 쇠말뚝과 같아서 소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말뚝을 박고 거기에 붙들어 매놓으면 길이 들어요. 처음에는 애가 삭지 않아서 나부대고 해도 오래되면 마음이 차분해져서 조용하니 길이 듭니다. 우리 마음의 소를 길들이는 데도 똑 그와 같아요. (중략)

人空亦法空이요
理相本來同이로다

사람도 공한 것이고 법도 또한 공한 것이며 理와 相이 본래 한가지입니다. 空했다고 하는 것은 형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어서 움직이고 눈에 보이는게 형상이라고 하지마는 그건 잠시 동안 있는게지 필경에 가서는 없고 공한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도 모든 형색이나 모든 걸 만들어서 다 집행하고 시행하는걸 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진리를 찾고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형식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중략)

진리도 그렇고 육안으로 보이는 형식도 그렇고 진리는 진리대로 부증불감하게 있는 것이지마는 우리가 진리를 찾기 위한 모든 방법이 진리하고 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식이나 모든 가식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 진리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鷲山在古樹하니 不假東皇力이요
恒發花爛漫하니 非色不離色이로다

영축산에 고목나무 하나 있으니
봄바람을 가장하지 않아도
항상 꽃은 만발하게 피어있으니
이는 꽃도 아니요, 꽃 아님도 아니로다.

고목은 성품자리를 비유한 것입니다. 그 나무는 봄 바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도 언제나 꽃이 만발한데 그 꽃은 빛깔도 아니고 빛깔을 여읜 것도 아닙니다.

'대중에게 묻노니 바람새는 무엇이며 비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눈은 헌 황색을 보지 못하고 귀는 푸른 대나무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 자리는 푸는 것도 묶는 것도 아니고 소리가 나는 것도 안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보는 이의 견해 따라 다릅니다. 이러한 자리를 알기 위하여 결제와 해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 많은 결제와 해제를 하면서 알고 했으면 좋겠으나 모르고 당하려니 답답할 뿐이지요. 어떤 이는 답답하여 자기의 머리를 치기도 합니다. 결단을 낸다 하여도 대명천지처럼 되고 날아 다니는 줄 알지만, 신통변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지 못하는 것을 능히 참고, 어려운 것을 헤쳐나가는 것이 공부입니다. 그러면 죽어 화장장에 가더라도 어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육체는 허무한 것이라 하지만, 육체가 없으면 공부나 수행을 할 수 없으니 이 육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과일의 껍질과 같은 것이 육체입니다. 먹을 때는 깎아내고 먹지만 껍질이 없으면 맛있는 과실이 될 수 없듯이 수행해 나가는데에는 육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육체의 중요성을 깨달아 해제 결제 없이 열심히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해제는 공부를 靜에서 動으로"

보성스님 (조계총림 방장)

오늘은 三夏安居 해제일이라
九旬前 結制上堂 때 말했지만 일대사를 마치지 못한 납자에게 해제라는 말이 있을 수 없다.

단 行脚하면서 선지식을 찾아 묻고 로機請益하고 先輩道伴을 만나 수행경험과 心身啄磨를 상담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효봉노사께서 가야총림의 방장추대를 받으시고 송광사 삼일선원을 떠나시면서 이런 송을 읊으셨다.

我來松廣今十年 國老懷中安食眼
曹溪一別緣何事 欲作人天大福田

하셨다.

이와같이 해제는 공부를 쉬는 것이 아니고 靜的인 공부를 動的인 공부로 바꾸는 것이고 回小向大의 回向으로 向上의 길을 삼는 것이다.

古人의 頌句에 百戰老卒知佛法하고 再來菩薩說家常이라 하였고 또 雲門禪師는 學道須是鐵漢이라야 着得心頭病辦하리라 하셨으니 금일 해제대중은 고인의 行李處를 잘 살펴서 期成正覺하야 勇猛不退어다.

打 柱杖一下 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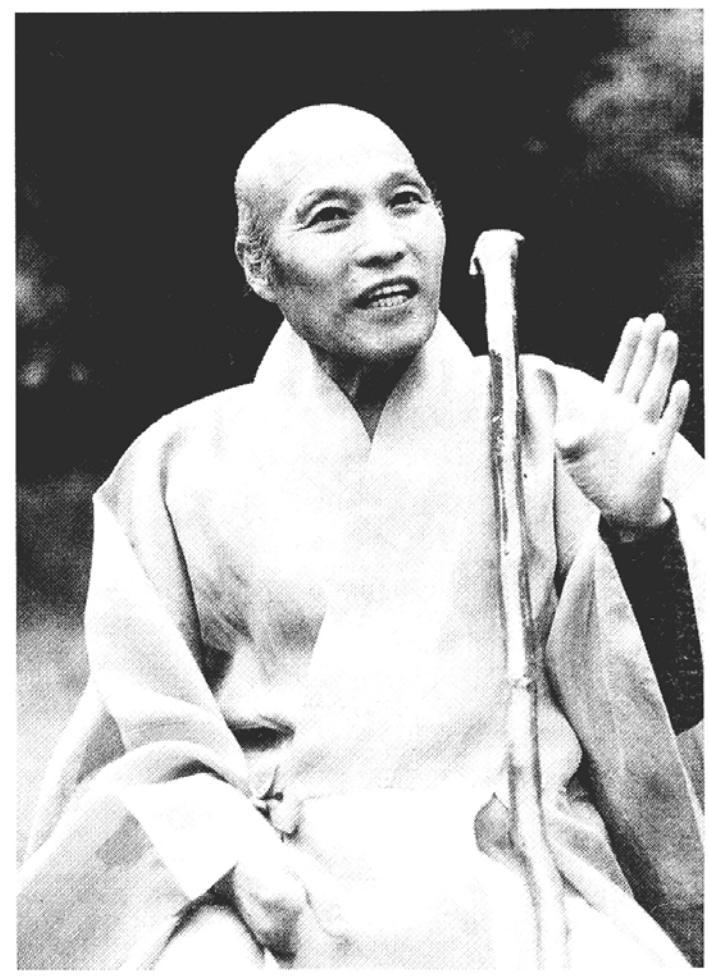
靑山은 元不動한데 白雲은 自去來로다

靑山은 不動하되 元無不動相이오
白雲은 去來하되 元無去來相이로다

큰스님 수행한담

"자기 삶 돌이켜 보면

일타스님 〈은해사 조실〉



萬里靑天(만리청천) 雲去雨來(운거우래) 空山無人(공산무인) 水流花開(수류화개)

가없이 푸른하늘에/구름흘러 비내리니/인적없어 텅빈산에/물흐르고 꽃이 피네

우리집이 친 외가를 포함해 모두 41명이 출가를 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지중한 불연의 연원은 외증조모님부터 시작됩니다.

외증조모님은 슬하에 3형제를 두었는데 모두 솜타는 공장일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들여온 기계로 실을 짰는데 거의 독점적이었던 관계로 돈을 참 많이 벌었어요. 매월 그믐날 이익분배를 했는데 수익을 4등분해서 1등분은 외증조모님 몫으로 하고 나머지는 외증조모님이 아들집에 머무르는 기간에 따라 할당을 했답니다. 즉 가장 오래 머무른 아들한테 제일 많이 주는 식이었지요. 그러자 서로 모셔가려고 야단이었습니다. 자연히 자식들간에도 내왕이 잦아지고 우애가 돈독해질 수밖에요. 주변에 효심이 소문날 정도였고 외증조모님의 3형제 자랑도 늘어만 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관옥같은 얼굴의 비구니스님 한분이 탁발을 왔다가 집을 나서면서 "가정에 너무 집착하면 업이 된다"고 하셨어요. 당시 충청도에서는 '업'이라는 말이 최대의 욕이였는데 업은 곧 구렁이를 의미했지요. 외증조모님은 그말에 충격을 받고 십리를 좇아가서 스님을 다시 집으로 모셔와서는 업을 피할 방도를 물었지요. 그 스님은 밤새 좌선만 하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비로소 말문을 열어 "업이 되기 싫으면 자식자랑 하지말고 문밖출입을 삼가며 '나무아미타불'을 지극정성으로 염송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후 외증조할머니는 바깥출입을 삼가고 돌아가실 때까지 30년동안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계속했답니다. 그러자 신통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아들더러 "오늘은 불기운이 있으니 공장을 돌리지 말고 물을 준비해라"고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옆집에 불이 났어요. 우리 어머니를 시집보낼 때도 외할아버지를 부르시더니 북쪽으로 30리 가면 연안 김씨집안에 연분이 되는 젊은이가 있으니 혼사를 추진하라고 하셨어요. 외증조모님이 돌아가시자 집주변이 백야처럼 환하게 7일간이나 방광(放光)을 했는데 이 기이한 현상을 본 가족과 친지들이 발심을 하게 된것입니다.(일타스님 일가 41명의 출가기는 본지 98호에 자세히 나와있음)

우리 어머니 역시 외증조모님의 영향을 받아 불심이 돈독했습니다. 선친 역시 불심이 깊었는데 40대 초반에 어머니와 함께 만공스님을 찾아가 스님께 '만법귀일 일귀하처(萬法歸一 一歸何處)' 글씨를 받아 집에 가져와서는 방벽에다 붙여놓고 틈나는대로 화두를 들고 좌선을 하셨답니다. 서로 자신이 누워자는 벽쪽에다 만공스님의 글을 뗐다 붙였다 하면서 경쟁적으로 공부를 하셨지요. 두분은 아마도 전생에 우애깊은 도반이셨을 겁니다.

나 역시 어릴때부터 불교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막내외삼촌이 일본 명치대학에 유학한 엘리트였는데 그 외삼촌이 저한테 '일체유심조'란 얘길 처음으로 들려줘 조그만 목판에다 새겨놓고는 수시로 외웠습니다. 한번은 뛰어가다 넘어져서 무릎을 심하게 다쳤는데 이를 악물고 일체유심조를 외우면서 마음도리로 돌렸더니 이내 아픔이 사라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약력
- 1929년 충남 공주 生
- 1942년 통도사에서 고경스님을 은사로 득도
- 1949년 통도사 강원 대교과 졸
- 1983년 해인사 주지
- 1993년 조계종 전계대화상
- 현재 해인총림 율주 ·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 저서: 〈사미율〉 〈법공양문〉 〈범망경대강좌〉 〈기도〉 〈생활속의 기도법〉 등

"생활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대하는 물건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출가한 이후로도 나는 여러번의 기도를 통해 신비한 체험을 하게되고 정진할 수 있는 힘도 얻게 되었습니다. 염불기도 단식기도 절수련등 기도를 하면 업장이 소멸되고 심신이 정화되는 효과가 있어 화두참선에 들어가기전에 한번쯤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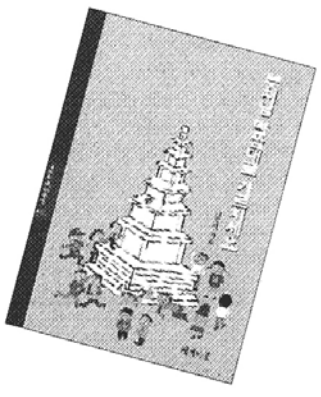
궁극적으로는 일상생활 자체가 기도가 되면 바람직하겠지요. 그럴려면 순간순간이 기도가 되어야 하는데 만나는 사람이나, 대하는 물건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면 됩니다. 싫은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사람을 위해 기도해 준다면, 그리하여 두두물물이 둘아닌 도리로 돌아가게 한다면 따로 기도시간을 낼 필요도 없게 됩니다.

외삼촌이 또 신묘장구대다라니도 가르쳐주어 마치 노래배우듯이 어렵지 않게 익혔어요. 또 〈천수경〉도 다 외웠습니다. 한번은 소풍가서 장기자랑을 하게 되었는데 학생들이 그걸 외워보라고 해요. 그래서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일쇄동방결도량 이쇄남방득청량 삼쇄서방…" 했더니 장내가 온통 폭소도가니로 변했어요. 그때 스님이란 별명도 얻었지요. 14세되던 해 초등학교를 마치자 아버지는 만공스님 회상으로 입산하시고 나는 외할아버지 추금스님의 손을 잡고 양산 통도사로 들어가 고경스님을 은사로 삭발하게 됩니다.

고경스님은 26세때 봉보종찰 통도사의 대강백이 되실 정도로 경학에 밝으신 분으로 대강백이 되어서도 빨래나 청소를 직접 하시는 바람에 간혹 강백실을 찾은 손님들이 청소중인 고경스님을 시자로 착각, 스님의 행방을 묻는 일도 종종 있었지요. 스님은 또 노모가 늙어 홀로 지내시기 어렵게 되자 통도사로 모셔와 조석으로 문안드리며 지극정성으로 봉양했습니다. 육십이 다 되어서도 팔십노모를 위해 손수 김도 굽고 반찬도 만들어 드리는등 효도가 지극하셨어요. 어머니께 염불수행할 것을 깨우쳐 '나무아미타불' 염불속에서 편안히 돌아가실수 있게 했

주머니 속 대장경 - 502 여시아문은 '틀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북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붓다의 교육관, 그리고 … 미래 교육의 열쇠



교육 현실의 병폐를 뼈저리게 통감하는 모든 이들에게 권합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황폐한 우리의 교육 현장에 던지는 부처님의 음성
— '천상천하 유아독존'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그릇대로 베풀어 주셨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대기설법'이라고 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개인차를 인정하지 않고 '획일화의 칼'을 들이대는 오늘날 우리의 교육 현실은 인간에 대한 무지막지한 횡포에 가깝다.

김종서 지음/ B6 182쪽 /값 4500원 여시아문 펴냄

여시아문 주소: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737-0695(영업부), 737-0691(편집부), 737-0697(팩스)

큰스님 수행한담

인과윤회 보입니다"



◇1976년 겨울, 해인사 조사전 앞에서. 오른쪽부터 혜암, 자운, 관응, 성철, 월산, 석주, 일타스님.

화두는 마치 열쇠와 같아 의문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근본 마음의 문을 열어 부처를 이루게 하는 방편입니다

지요. 스님은 참으로 밝은 거울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정화가 한창이던 때로 기억됩니다만 관청에 반강제로 불려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율장에 대처승을 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는가'의 여부를 두고 논쟁이 있었는데 해명을 요구받았었지요. 그래서 율장에 있는 사바라이를 근거로 음욕계를 범하면 반석을 깬 것과 같고 대망어죄를 범하면 목을 벤것과 같아서 태다라나무심을 끊어버리면 다시 움이 나지않아 어디선가 왔다가 어디론가 가 버리는 것에 불과한 것. 이럴 때 깊은 연(緣)을 심어놓아야 허생명사(虛生命死)를 면할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는 오대산 적멸보궁에서 매일 3천배씩 7일동안 기도를 드린후 오른손 네손가락 열두 마디를 모두 연비하였습니다. 모든 미련을 연비와 함께 태워버리고 홀로 태백산 도솔암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도솔암에서 동구불출하고 오후불식하며 장좌불와하기로 했습니다. 하여 한걸음 더 나아가면 참(參)화두가 되는데 참화두만 되면 깨침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참화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마, 즉 잠이라는 관문을 넘어서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칼 끝에 털을 놓고 훅 불면 털이 끊어진다는 취모리검(吹毛利劍) 즉 대용맹심입니다.

나는 밤에 잠이 오면 경전을 소리내어 읽기도 했었는데 앉아서 졸망정 누워자지는 않는다는 각오였어요. 그런데 밤에 경전을 소리내어 읽다가 딱 그치면 밖에서 "스님 경전 다 읽었다. 가자 가자"하며 사람들이 흩어지는 느낌이 옵니다. 옛 게송에도 "깊은 밤에 경을 읽으면, 보고 듣는 사람 하나 없어도 스스로 천룡팔부가 있어 귀기울여 듣고서 헤어지더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수행하던 때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루는 낮에 하도 졸려서 머리하고 아랫배를 사정없이 두들겨 괜 적이 있어요. "고인들은 공부할 때 잠오는 것을 경계하여 송곳으로 찔렀거늘 나는 왜 이리 방일한가. 옛 어른들은 하루해가 지나가면 다리뻗고 울었거늘 나는 왜 이리 방일한가"하면서 막 쥐어박았지요. 그날 저녁을 먹고 앉았는데 그야말로 성성적적이라 잠도 안오고 아주 생생한게 밤새도록 화두도 순조로웠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된셈인지 창문이 자꾸 밝아져 열어보니 날이 훤히 밝았어요. 하루밤이 후딱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놓고 보니까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목단꽃이 봉오리를 활짝 피운 채 벙긋벙긋 웃고 있는 거예요. 웃음 소자와 꽃필 소자가 같은데 꽃이 나를 보고 웃으니 그게 바로 염화미소라 느꼈습니다. 기분좋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될 정도로 환희심이 차올라 밖으로 뛰쳐 나오니 햇볕은 따스하고 새들은 뒤에서 정겹게 지저귀고 있었어요. 이제부터 진짜 공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10년만 꾸준히 하면 위없는 삼매에 들 것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주위에서 내버려두질 않습니다.

강물 흘러가는 것을 보면 인간의 삶도 물 흐르듯 하나도 고정됨이 없이 흘러가는 것을 느낄수 있습니다. 나그네길처럼 지나온 일생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인과윤회의 도리로 진행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치의 어김도 없이 말입니다. 요사이 세상이 혼란하고 몹시 어지럽지요. 이런 때일수록 사람들 마음까지 각박해지고 어두워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어둡고 혼란할수록 마음의 문을 열어 부지런히 수행에 힘써야 합니다. 수행정진에 힘쓰면 마음이 공(空)해집니다. 공해지면 마음이 환해지고 밝아집니다. 그 빛은 밖으로까지 뻗쳐나와 그 빛을 받는 주위 사람들까지 기쁘고 즐겁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상좌들에게 당부를 했어요. 내가 몸을 벗으면 바로 그 곳에서 화장을 해서 3등분하되 한움큼은 큰 고무풍선에 매달아서 허공에 실어보내고 또 한움큼은 찰밥에 섞어 산에 흩어주며 나머지는 강이나 바다에 뿌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새와 산짐승 그리고 물고기의 밥이 되도록 해 달라고요. 부도탑조차도 거추장스러워요. 생사가 둘이 아닌데 몸을 벗었다고 해서 요란스럽게 떠들 이유가 없습니다.

死生出沒(사생출몰) 月轉空中(월전공중) 東谷日陀(동곡일타) 西岸月明(서안월명)

나고 죽음은/달의 공전과 같네/동쪽 계곡에 해 저물면/서쪽 해안에 달 밝으리.

정리=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기사넘쳐 '다시 푸는 경서'와 '나의 수행일기'쉽니다.

"세상 혼란할수록 마음열고 수행하세요"

마음 밝아지면 이웃까지 기쁘고 편안

고 바늘귀가 뚝 떨어지면 다시는 사용할 수 없는것과 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런 일을 자주 겪다보니 나중에는 대중공사에서도 자꾸 불러서는 율장에 대한 얘기를 묻는 겁니다. 화두하나만 갖고 살다가 죽겠다고 결심했는데 엉뚱한 일에 휩쓸리다보니 안되겠다 싶어 오대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굳은 심지가 없이는 생사일대사를 해결할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연비공양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손가락이 없으면 세속적인 모든 생각이 뚝 끊어질 것이고 손가락없는 나에게 누가 사람노릇 시키지도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지요. 연비에 대한 마음도 점검할겸 여름한철동안 장좌불와를 했는데 어느날 문득 대관령꼭대기에 구름 한점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인생 무상이 뼈져리게 와 닿았습니다. "이 몸뚱이는 뜬구름과 같아 어디선가 왔다가 어디론가 가 버리는 것에 불과한 것. 이럴 때 깊은 연(緣)을 심어놓아야 허생명사(虛生命死)를 면할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는 오대산 적멸보궁에서 매일 3천배씩 7일동안 기도를 드린후 오른손 네손가락 열두 마디를 모두 연비하였습니다. 모든 미련을 연비와 함께 태워버리고 홀로 태백산 도솔암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도솔암에서 동구불출하고 오후불식하며 장좌불와하기로 했습니다. 마음깨치는게 정화지 절뺐는게 정화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 십년간 가부좌를 틀어야겠다는 각오가 생겼습니다.

화두를 들고 공부를 했는데 화두참구법은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는 공부요, 내 마음을 가지고 내마음을 잡는 공부입니다. 화두는 마치 열쇠와 같아서 의문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팔만사천 법문이 가득 차있는 근본 마음의 문을 열어 부처를 이루게 하는 도구요 방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화두가 잘되지 않으면 부처님 명호를 외우듯 속으로 화두를 외우는 송(誦)화두라도 해야 하고 그게 계속되다 보면 생각으로 화두를 드는 염(念)화두가 됩니다.

염화두가 지속되면 일을 하면서도 말을 하면서도 화두가 또렷하게 들리는 간(看)화두가 되고 거기서 대용맹심을 발하여 한걸음 더 나아가면 참(參)화두가 되는데 참화두만 되면 깨침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참화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마, 즉 잠이라는 관문을 넘어서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칼 끝에 털을 놓고 훅 불면 털이 끊어진다는 취모리검(吹毛利劍) 즉 대용맹심입니다.

나는 밤에 잠이 오면 경전을 소리내어 읽기도 했었는데 앉아서 졸망정 누워자지는 않는다는 각오였어요. 그런데 밤에 경전을 소리내어 읽다가 딱 그치면 밖에서 "스님 경전 다 읽었다. 가자 가자"하며 사람들이 흩어지는 느낌이 옵니다. 옛 게송에도 "깊은 밤에 경을 읽으면, 보고 듣는 사람 하나 없어도 스스로 천룡팔부가 있어 귀기울여 듣고서 헤어지더라"는

무인년 하안거 해제법어

"조각배로 파도를 달리니…"

서옹스님 (고불총림 방장)

擧禾山垂語云習學謂之聞絶學謂之隣
過此二者是爲眞過
僧出問如何是眞過
山云解打鼓
又問如何是眞諦
山云解打鼓
又問卽心卽佛卽不問如何是非心非佛
山云解打鼓
又問向上人來時如何接
山云解打鼓

화산스님이 법어를 하였다.
"익히고 배우는 것을 들음(聞)이라 하고, 더 배울 것이 없는 것을 (도에) 가까움(隣)이라 한다. 이 두가지를 초월해야만이 참된 초월이라 한다."
스님이 다가와서 물었다.
"어떤 것이 참된 초월입니까?"
"쿵 쿵 쿵더쿵!"
"무엇이 참다운 이치입니까?"
"쿵 쿵 쿵더쿵!"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쿵 쿵 쿵더쿵!"
"향상인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쿵 쿵 쿵더쿵!"

看語

串錦老漁懶就市하야
飄飄一葉浪頭行이로다.
喝

금빛물고기를 낀 늙은 어부는 저자에 갈 생각을 하여
가벼이 나부끼는 조각배로 파도를 한없이 달린다.
아 악!

"동쪽나무 쉬지않고 나부끼도다"

원담스님 (덕숭총림 방장)

一口吸盡西方水
一舌呑吐天地顯
東樹不休風吹搖
從來宗師坐不動

한 입으로 서방수를 다 마시고
한 혀로 삼키고 토하니 천지가 나타나는도다.
동쪽의 나무가 쉬지 않고 바람에 나부낌에
이로 좇아 모든 종사가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다.

"눈을 비벼 허공꽃 내지 말라"

법전스님 (해인총림 방장)

동산스님께서 해제날 대중에게 일렀습니다.
"해제대중들은 첫가을 늦여름에 여러분은 동쪽이건 서쪽이건 모름지기 바로 만리에 한치의 풀도 없는 곳을 향해 떠나야 한다. 그 만 리의 한 치의 풀도 없는 곳을 어떻게 가야하는가?"
동산스님 회상에서 여름을 난 한 수좌가 장사(長沙) 땅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때 석상스님이 속복으로 도자기 굽는 집에서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수좌를 보고는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오는 길입니까?"
"동산에서 옵니다."
"동산화상께서는 어떤 말씀으로 제자들을 지도하십니까?" 그러자 해제법문을 들려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석상이 한마디 하였습니다.
"문득 문을 나서기만 하면 그대로가 풀밭이니라."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수좌는 다시 돌아와 동산화상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천오백명을 제접할 선지식의 말씀이다. 당나라 안에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하고 크게 칭찬하였습니다. 이 공안으로 인하여 석상은 천하에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사실 동산노인은 입은 있어도 혀가 없어서 입을 열면 으레히 조도(鳥道)같은 현묘한 경지요, 석상노인은 흐린 물을 휘저어 맑음을 드날려서 없는 구절에서 없는 구절에만 치우쳐 사랑했습니다.
해제대중들이여!
여러분은 여름 끝 가을 첫머리에 여섯가닥의 길이 있으니, 한 가닥은 갈만하고 다섯가닥은 갈 수 없습니다.
첫째, 성스럽고 묘한 경지 위에서 눈을 비벼 허공 꽃을 내게하지 말 것이요, 둘째, 평탄한 경지 위에서 하인을 상전으로 오인하지 말 것이요, 셋째, 광채와 경계의 문턱에서 죽과 밥의 기운으로 재룡을 떨지 말 것이요, 넷째, 일없다는 갑옷 속에서 칼을 두려워하거나 화살을 피하지 말 것이요, 다섯째, 갈등의 구덩이 속에서 노란 것을 검다고 말하지 말 것이요, 여섯째 길은 여러분에게 가기를 허락한 길입니다.
이 한가닥 길을 어떻게 가야 합니까?

건·강·보·조·식·품·허·가

몸을 다스리는 (治身)
자·연·건·강·식·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피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라야 제가(齊家:집을 다스림)·치국(治國):나라를 다스림)·평천하(平天下:세계를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첫째 수(壽:건강과 장수)·둘째 부(富:부와 귀)·셋째 강녕(■:편안함)·넷째 유호덕(攸好德:덕을 좋아함)·다섯째 고종명(考終命: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 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질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

「불로화정(不老化精)·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등 「치신(治身) 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방장산)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 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不老化精)



산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스님이 40여년간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영자(검은 깨)와 감식초 외 10여종의 첨가물 【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불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펴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격
불 로 화 정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40만원(2개월분)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



장생불사하면서 산에 사는 사람인 신선(神山人)의 주식(主食)은 사계절에 푸른 소나무이니 소나무의 놀라운 효능은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으랴.
나무는 자기 몸을 불태워 없앰으로써 불을 생(生)하기 (五行相生의 수생화중의 나무인 소나무는 동방(東方:五行의 三八木)의 나라인 한국을 대표하고 상징한다.

사찰 및 민간의 비전(秘傳)된 많은 처방을 아는 여래치신(치신) 자연건강종합식품회사를 경영하는 시연스님과 지리산에서 30여년간 소나무만을 연구한 토종지 소나무임업장주(業場主)가 힘을 합쳐 만든 소나무자연건강강정(强精)종합식품이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이다.

「솔효소정액」은 솔잎·솔순·솔씨방·솔마디·송화가루·송진·송근백피·송목피·송이버섯·백봉령·적복령·백복신 등 지리산의 정기(精氣) 덩어리인 조선소나무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당귀·감초·표고버섯·흙설탕 기타 여러가지 첨가식품을 배합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발효 숙성시켜 수천종류의 식물성 효소와 미생물 효소 뿐만 아니라 비타민·미네랄 기타 고단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자연치유의 힘을 길러줌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하여 난치병도 낫게 하며 병의 예방도 하여 정(精)·기(氣)·신(神)이 왕성하게 하는 기적의 솔강정증합식품이다.

「솔선식」은 곡식종류는 한 톨도 들어감이 없이 **「솔효소정액」**과 똑같은 솔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여러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든 것인데, 속세의 사람들이 하루 세끼 먹는 음식 대신에 신선이 먹는 작은 알갱이로 된 선식(仙食)으로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으며 3개월 정도만 먹어도 비만체중 20kb 이상이 빠지는 다이어트 식품이고 성인병과 난치병의 예방 및 치료와 특히 당뇨병에 효력이 있으며 몸일 날아갈듯 가벼워지고 후유증도 없는 기적의 솔음식이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솔은 심장, 혈관계통의 질환뿐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 간염,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은 한국식품연구소에서 품질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특허출원 번호【「솔효소정액」 96.57796호, 「솔선식」 96.5587호】**, 했으며 건강보조식품 허가 【98.3.31】를 받았으며 앞으로 우리 소나무 자연 건강강정종합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외화획득을 할 작정이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원액 2,800ml(700ml 4병, 2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7796호

솔선식(松仙食)
환약 1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587호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 **구입문의**: 053)628-9145/053)655-2227/011)808-8880
◐ **입금구좌**: 대구은행 033-07-172508 예금주:대구여래원

번뇌 물들지 않는 청정불성 '꽃 소식'



◇강진군 무위사의 목조아미타삼존 불좌상을 받쳐들고 있는 목조 연화대.

월2회 연재

상징으로 보는 **불교문화** 12 **연꽃**

"내가 연꽃을 사랑함은, 진흙속에서 났지만 거기에 물들지 않고, 맑은 물결에 씻겨도 요염하지 않기 때문이다. 속이 비어 사심이 없고, 가지가 뻗지 않아 혼들림이 없다. 그 그윽한 향기는 멀수록 더욱 맑고, 그의 풍격은 누구도 업신여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연은 꽃 가운데 군자(君子)라 한다."

광생동안 연꽃을 사모했다는 중국 북송시대의 학자 주무숙은 '애련설(愛蓮說)'에서 연꽃을 이렇게 노래했다.

불교를 대표하는 상징물중 최고격인 연꽃은 그 아름다운 자태와 은은한 향기, 고아한 품격, 그리고 더러운 진흙속에서도 청정한 꽃을 피우는 '처염상정(處染常淨)'으로 인해 불교에서는 '보리심(菩提心)', '청정무구한 불성(佛性)'을 나타낸다. 즉 연꽃은 우리에게 탐진치 가득한 사바세계에 살면서도 얼마든지 청정한 불성을 꽃피울 수 있다는 상징이 되어준다.

인도 티벳지역을 비롯해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동양권에 고르게 자생하고 있는 연꽃은 옛날부터 생명의 창조, 번영의 상징으로 애호되었는데 그 이유는 연꽃 씨앗의 강한 생명력 때문이다. 실제로 천년 이상 땅에 묻혀있던 연꽃 씨앗을 근래에 발아시킨 예가 있을 정도로 연꽃의 생명력은 매우 강하다. 인도나 이집트 등에서는 연꽃을 국화(國花)로 삼아 소중히 여기고 있다.

부처님께 올리는 육법공양중 꽃공양에는 연꽃이 꼭 들어가며 부처님이 계신 법당의 단청은 물론 앉는 자리, 광배, 닫집, 문(門)에도 연꽃문양으로 장엄한다. 또한 극락세계를 연화세계라 하고 극락정토에 나는 것을 연화왕생이라 부른다. 부처님이 설법하고 나면 회상을 장엄하는 만다라화가 비처럼 흩뿌리는데 이 만다라화의 주축을 이루는 것이 연꽃이다. 또한 연꽃에는 정화능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연못에 연꽃을 심으면 연못의 더러움이 연꽃의 양분으로 흡수돼 물을 맑게 정화시켜 준다고 한다.



◇초파일 연꽃모양의 연등을 들고 제등행렬 하는 모습.

와당·단청등 생활과 밀접

연 등 사바세계 밝히는 진리 등불

염화시중 연꽃들며 지으신 부처님 미소

■ 연화장세계

연꽃중에 함장(含藏)된 세계라는 뜻이다. 이 세계는 비로자나여래의 과거의 원(願)과 수행에 의해서 꾸며진 세계이고 십불(十佛)이 교화(敎化)를 베푸는 경계라고 한다. 또 〈아미타경〉에서 연꽃으로 장엄된 아미타여래의 세계로 극락정토를 의미한다.

〈화엄경〉에서의 '연화장(蓮花藏)세계'도 부처님의 세계이며, 정토의 세계이다. 세계의 맨 밑에 풍륜(風輪)이 있고, 그 위에 향수해(香水海)가 있다. 이 향수해 속에 커다란 연꽃이 있는데, 이 연꽃속에 함장된 세계가 연화장 세계이다.

〈법망경〉에서의 이 세계는 천엽(千葉)의 대연화(大蓮華)로 부터 되고, 그 하나 하나의 잎에 백억의 수미산(須彌山)과 사천하(四天下) 등이 있으며 비로자나불은 그 본원(本源)으로서 화대(華台)의 위에 앉아 스스로의 몸을 변화시킨 천체(千體)의 부처님으로 나투어 삼지법문(心地法門)을 설한다고 나와 있다.



◇충북 보은군 속리산 법주사에 있는 석련지(국보 제64호). 통일신라시대.

■ 연등(燃燈)

우리나라에는 불교명절때 재(齋)를 올리고 연등을 밝히는 풍속이 있다. 등의 모양은 형형색색으로 여러가지다. 과실 모양, 연꽃 모양, 어류 모양, 동물 모양 등 그 종류가 많다. 등에는 '태평 만세', '수복' 등의 글을 쓰기도 하고, '기마 장군상'이나 '선인상'을 그리기도 한다. 그 중에서 연꽃 모양의 등은 보는 이로 하여금 연꽃이 진흙속에서 사바세계로 박피어올라 붓다의 진리를 밝혀주고 그 진리를 온 법계에 전해주는 듯한 느낌을 주기에 가장 많이 선호되고 있다.

또 불교행사때 매달려 있는 여러 빛깔의 연꽃등은 제철에 만개한 연꽃을 그대로 옮겨 놓은 인상을 준다.

■ 연화대

불·보살이 앉아있는 곳은 큰 연꽃으로 만들었기에 화좌(華座), 연화좌(蓮華座), 연화대(蓮華臺)라고도 한다. 연꽃은 진흙에 나서도 더러운 물에 물들지 않는 덕이 있으므로 불·보살이 앉는 자리로 삼았다.

또한 부처님의 사리나 고승의 사리를 모신 탑이나 부도를 받드는 받침석도 연꽃모양으로 만들었다.

■ 영화시중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묵묵히 연꽃을 들어보이자 모두들 그 뜻을 몰라 어리둥절 하고 있는데 가섭존자만이 얼굴 가득 미소를 띠고 그 뜻을 전해 받았다는 데서 유래된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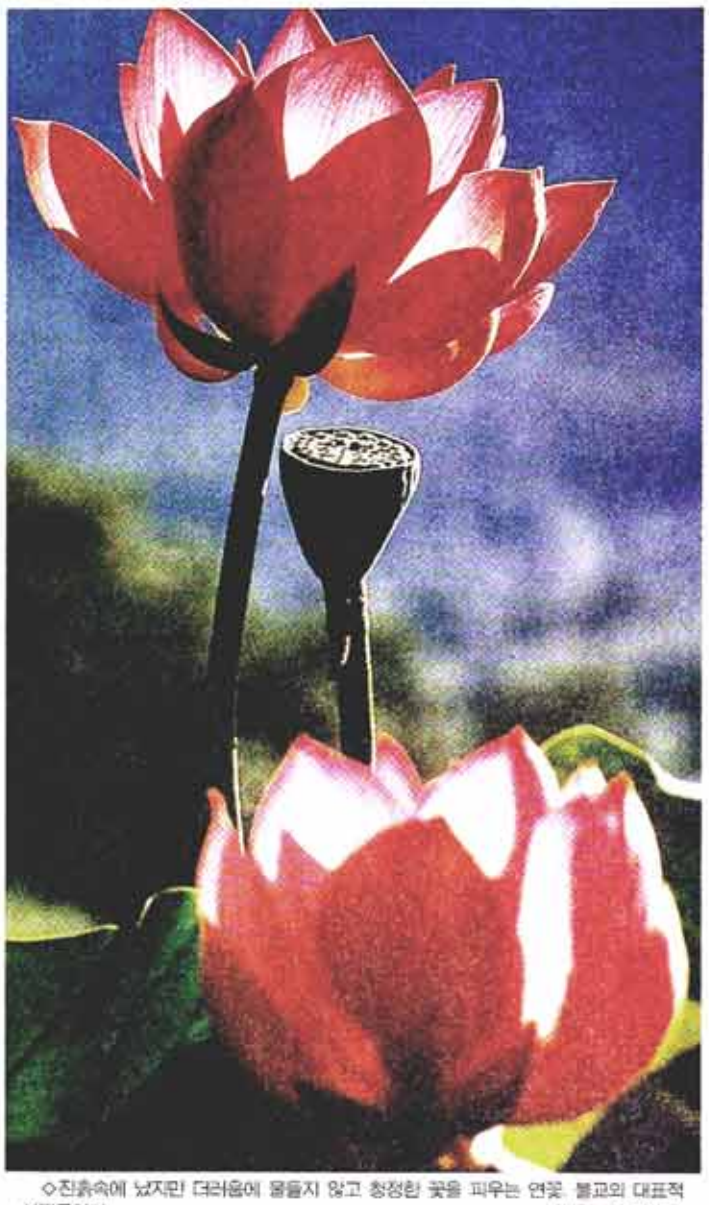
'염화미소'라고도 불리는 이 말은 말로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해 이심전심으로 전법하는 것을 지칭한다. 실질적인 선종의 시발점이 된 '염화미소'는 중국 송대 이후 무언의 전법을 전달하는 의미로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 연화문

연꽃은 빛과 생명, 불교의 대자대비를 상징하는 문양으로 조형화해 사찰 건축이나 외당, 불상의 대좌나 광배, 불상 조각, 단청, 불화, 불구(佛具) 등 불교 미술의 주요 문양으로 다양하게 쓰여왔다. 대표적인 예로 조계사 법당의 연꽃문과 삭당사 대웅전 연화문 수막새기와 등을 들 수 있다.

또 연꽃과 함께 원앙을 등장시켜 남녀, 길상, 행복 등을 상징하기도 하며 불교기와 합께 그려지는 경우는 광생을 통하여 재물이 풍부하여 모자람이 없고 정신적 여유가 항상 유지 되기를 바라는 '연년유여(延年有餘)'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pia.com)



◇진흙속에 났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청정한 꽃을 피우는 연꽃. 불교의 대표적 상징물이다. 〈사진=선암스님〉



◇연꽃 문양의 백제와당.



◇법당의 천장이나 벽, 공포, 처마, 닫집 등의 단청에는 연꽃문양이 가장 많이 쓰인다. 내소사 대웅보전(보물 제291호) 천장의 연화문.



◇예산 수덕사 선방의 연꽃문양.



성·동·석·재·불·사·공·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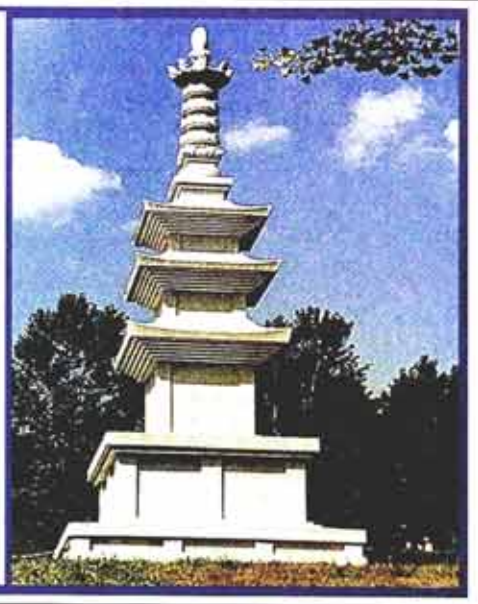
"오랜 전통과 최고의 작품으로 모시는 것이 불교석재조각의 대가 성동석재불사공예사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20여년 동안 쌓은 심세한 조각 기술과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불교문화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최고의 작품조성으로 보답하고자 하오니 고승대덕 큰스님 및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대표 김 성 수 합장

성동석재불사공예사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성동 5리 822-2
■전 화 : 0357)31-8736 ■팩 스 : 0357)31-5549
■호 출 : 012)321-6044 ■핸드폰 : 011)284-5101



松江企劃
불교음반유통
음반제작/EVENT기획

명상명곡 찬불가 불교음악



법문 경전 독경

내면의 울림 진리의 法音
송강기획만이 자랑하는 불교의 Mania!

· 서울 성북구 성북동 184-37 3층
· TEL: (02)745-6015 · FAx: (02)745-6017

· 송강기획은 부처님의 법음을 음반으로 보급하는데 신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협·찬·사
OMNI RECORD 옴니레코드
불교음반기획제작
불교 음악, 앨범 기획 제작.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태어나기 이전 자기 무시하니 苦 쌓여

"동물들도 모습 다르지만 마음공부 진화 되고 지혜로워지면 남 해치지 않고 독성 뿜지 않아요"

"자기 몸속의 중생들 둘 아니게 조복해야"

"가난·병 어떤 문제닥쳐도 재료삼아 공부"



그림 · 최주현

다시 한자리를 하게 돼서 기쁩니다. 여러분과 항상 같이 있으면서도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그러나 마음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란 찰나에 머물렀다가 찰나에 흘어지기도 하죠. 그러니 모습을 보고 섭섭하게 생각지 마시고 내 주인공에 항상 찰나찰나로 들고 난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일체제불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얘기는 이런 말씀 드리기가 조금은 이르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공부하는데 채찍이 될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가까이에 개나 고양이 등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을 많이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 가까이로는 닭이나 소나 돼지 같은 짐승들도 많구요. 많이 보아왔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도 이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이 몇 안됩니다. 그런데 짐승들 중에도 숫자는 몇 안되지만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이 있습니다.

그 짐승들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인간이 돼야만 벗어날 생각도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두 발로 걷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람을 동경하고,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을 배우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사람되기를 바라고 자기 생명까지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몽둥이로 때려도 울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하면서 그렇게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사람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것 뿐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보다 더 나은 짐승도 많이 있습니다. 주인의 은혜를 생각해서 자기의 생명과 몸을 다 바쳐서라도 주인의 목숨을 살리고 은혜를 갚는 그런 짐승들도 있습니다.

옛날 얘기 하나 할까요. 꼭 옛날이라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어느 대가집에서 농사를 많이 짓는데 추수를 하고 곡식을 거둬들이면 항상 싸래기 빻은 것은 쥐들 먹으라고 풀어놨답니다. 그 주인은 지혜가 풍부해서 싸래기를 마음대로 먹게 놔 두니 쥐들이 다른 것은 건드리지를 않았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쥐들이 보니까 그 주인집 지붕이 무너지게 생겼거든요. 옛날에는 기와집을 지을 때 진흙을 갖다가 포갬포갬 놓고선 기와를 올렸더랍니다. 그런데 오래되니까 그게 몽땅 가라앉을 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인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갚을 길이 없고 해서 쥐가족들이 의논을 했어요. 쥐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인간이 되기 위해서 주인댁 사람들의 행동을 유심히 보고 많은 것을 배웠는데 꼭 은혜를 갚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주인댁 식구가 다 자는 밤중에 쥐들이 다 마당에 나와서 막 찍찍거리면서 소리를 내고 춤을 췄답니다. 워낙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소리를 내니 시끄러웠겠죠. 그래 이거 잠 못자겠네 하고는 주인이 나왔더랍니다. 나와서 보니 쥐들이 춤을 추고 있으니 신기할 밖에요. 그래서 식구들을 다 불렀어요. "얘들아, 이거 구경해라. 쥐들이 춤춘다." 하고선 다 불러내어 구경을 했더랍니다. 그러는 중에 지붕은 내려앉고 그때서야 쥐들은 춤을 멈추고 머리를 조아리더니 다 흩어지더랍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람을 거쳐야 부처 되는 까닭에, 아니 부처가 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모든 걸 벗어버리기 위해서죠. 그렇게 해서 그 은혜도 갚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너그럽고 지혜로운 살림살이를 다 지켜보면서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식구들도 살리고 쥐들도 홀연히 다 벗어났답니다. 인간으로 말이예요. 인간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 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물에서 사는 거나, 허공에서 사는 거나, 들에서 사는 거나, 땅 속에서 사는 거나 다 공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모습은 다르지만 오래오래 살다보면 그런 마음이 진화가 돼서 마음이 열리고 지혜로와지고 그래서 남을 해치지 않고 독성을 뿜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물에서 사는 거나 허공에서 사는 거나 들에서 사는 거나 땅 속에서 사는 거나 공부하는 그 마음들은 다 똑같습니다.

제가 상원사에 있을 때도 공부하는 뱀들이 있어서 배가 고플 때는 시식밥만 조금씩 얻어먹고 가지 절대 딴 것을 먹지 않고, 풀이나 이슬만 받아먹고 사는 뱀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와서 놀라게 한다는가 하지도 않았습니다. 먹을 만치 먹고는 슬그머니 사라지고 없죠. 비록 모습은 그렇게 해가지고 나왔지만 사람으로 살던 습이 남아서 그래도 공부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이런 일도 있었더랍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무심코 그냥 보게 되지만 알고보면 참 그렇게 애처롭고 가슴저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부인이 애를 못낳았는데 그 집에서 기르는 개는 새끼를 뱄더랍니다. 그러니 그 부인이 개를 쳐다보면서 '너는 새끼를 뱄는데 나는 어째서 아기가 없어서 대를 잇지 못하게 하느냐'고 눈물을 흘리니 그 개도 부인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항상 같이 눈물을 흘렸더랍니다. 그러다가 그 개는 새끼를 낳고서는 금방 죽더랍니다. 새끼를 낳아 놓고 죽었으니 이걸 어찌하나, 왜 죽었을까 하면서도 당장 살려야겠기에 우유를 먹이면서 그 새끼들을 잘 길렸답니다.

그런 어느 날 어디개가 죽고 얼마 안돼서 바로 이 부인한테 태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쪽은 개는 그 때는 개의 모습이었지만 자기를 보면서 울던 부인의 처지를 생각하니 차라리 자기가 죽어서 그집 아기가 되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애절한 마음이 통한 거죠. 그래서 순간에 사람으로 바뀌었던 거죠. 그래서 태어난 아기는 누구보다도 효성스럽고 영리하고 착하고 또 의리있는 사람이 되니 그 이름이 밝게 빛이 나더랍니다. 그렇게 태어나 살고 있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또 개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말이나 소들도 자기를 키워 준 은혜를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산사태 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때 어느 마을에 산사태가 날 것 같은 조짐이 보이니까 그 동네 소나 말들이 함께 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몰라 가만 있으니 소들이 집안에 들어가서 문을 흔들기도 하고 빙글빙글 돌고 온통 야단이거든요. 그나마 지혜로운 사람이 한 사람 있어서 그 뜻을 알고 소를 따라 같이 뛰어나가는데 뒤에서 벽력같은 소리가 나서 돌아다보니 산중턱이 무너져서 논이고 집이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덮었더랍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저놈의 개새끼가 왜 짖느냐고, 듣기 싫다고 몽둥이로 때리고 돌맹이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말을 못알아 들으니까요. 보이는 도둑만 알지 보이지 않는 데서 들어와서 사람을 해치는 것은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 개는 몇 해를 그 집에서 살면서 인간의 도리를 다 배우고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자꾸 짖는데 사람이 그 뜻을 모르는 거죠. 오히려 '저놈의 개가 짖어서 잠도 못자게 한다'고선 몽둥이로 치거든요. 그래도 개는 안타까워서 뛰어들어 갔다가 나왔다가 맞고서도 또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니 결국 그 식구들한테 맞아 죽었더랍니다. 피를 토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스님이 지나다 그걸 보시고 "허, 이 집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개가 모습을 벗었구나. 허허 그것 참 기특하구나. 너는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좋은 인연을 만나서 잘 배우고 사람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 것이니라." 하시고는 마을을 떠나셨답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 주인댁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 개를 얼른 거둬다가 묻어줬더랍니다.

눈물나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발로 걷기 위해서, 자기 생명과 자기 모습을 다 버리고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몸안에 들은 의식들을 중생이라고 비유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곤충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백 년 수천 년 내려오면서 진화가 돼서 사람은 됐으나 사람 속에 뭐가 들었나를 말입니다. 그렇게 지은 인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하고 입고 살아야 하고, 살아야 한다는 의식구조가 완벽해서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죠. 그러니 부처님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조복하라, 네 몸 속에 있는 중생들도 둘이 아니게 조복하라. 그래야만 그 모습 속에 있는 곤충들이 사람과 둘이 아니게 하나로 공해서 이 곤충 몸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인간의 이 모습이 바로 곤충의 집합소예요. 그런데 모습은 인간이고 부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또 마음도 그렇다 하지만 마음도 쓰기 나름이라 천차만별로 쓰기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곤충도 인간으로 진화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죠. 그것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인간으로 화해서 하나가 돼야 그걸 조복을 받았다고 하고 죽어도 죽은 게 없고 살아도 산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찰나찰나 나투면서 화해서 어떠한 모습도 마다 안하고 어떠한 거든지 아니 하시는 게 없이 하시되 합이 없이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인생이 이 모습을 버리기 전에 우리는 이 모습 속에 있는 곤충이 다 하나로 부합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의식에서 나오는 어떠한 거라도 즉 말하자면 세균성이나 영계성, 인과성, 업보성, 유전성 이런 것이 다 몰록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의식이 둘이 아니라 모두가 공심으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그것이 곤충으로 남아있으며 어떻게 죄로 남아있으며 인과성으로 남아 있겠습니까? 또 유전성으로 남아 있겠습니까?

이게 참 생각해 볼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디가 아프거나 어디가 무너졌다 그러면 그 사실만 가지고 야단법석들을 하는데 그 무너짐과 병세보다 더 시급한 게 바로 이 공부입니다. 지금 시급한 게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곤충에서 벗어나는 게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난하다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물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80)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로 인해 한 데로 떨어진다면.

"실천이 따르지 않는 공부, 행함이 없는 지식은 남의 목장에서 놀고 있는 젖소를 세어 보는 것과 같다. 백 번 보는 것이 한 번 행하는 것만 못하니 참 지혜란 실천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지 지식의 많고 적음에 좌우되는 게 아니다.

학식이 많고 머리가 좋으면 바깥 세계만 보고 무엇인가를 자꾸 주워담는 경향이 있다.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해서 알음알이 짓느라 바쁘다.

이 길인가 저 길인가 하여 따라다니느라 분주하다.

그러나 아무리 학식이 높고 아는 게 많다해도 먼저 백지를 볼 줄 모르면 그 학식을 올바로 쓰지도 못할 것이니 먼저 백지를 알고 난 뒤에 써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

부처님 제자중에 '파티세나'라는 한 노장이 있었다. 그는 몇 번을 일러줘도 단 하나의 시구를 암송하지 못했다.

하루는 부처님께서 그를 불러 시구의 뜻을 자세히 일러주시며 '외우려 하지 말고 그대로 실천하라.' 하셨다.

마침내 파티세나는 아라한이 되어 부처님을 대신해 설법을 하게 되었다.

몇 천의 말보다 하나의 진리를 이해하고 행동에 옮기는 편이 낫다. 부처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았다해도 그 지식이 자신을 구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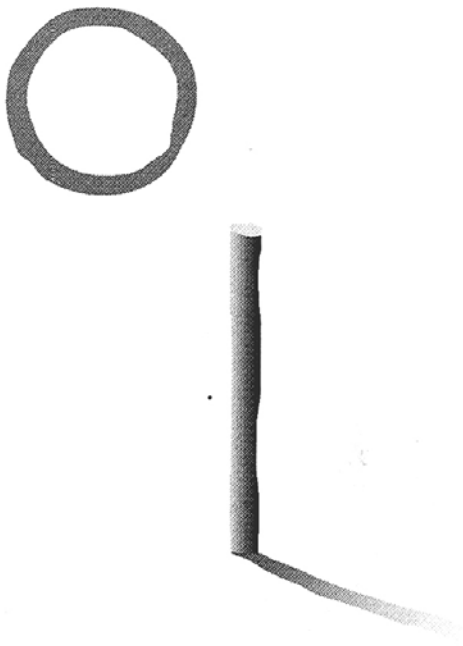
다만 물 없는 사막이요 길 없는 숲에 불과하다.' 고 하셨다.

이른바 불법을 공부한다고 하면 우리는 먼저 설법을 듣고 경전을 보면서 가르침의 뜻을 이해하려 한다.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실천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 많이 듣고 더욱 많이 보려하는 것은 무지의 허물을 벗고 자신의 속살까지 법우(法雨)에 흠뻑 젖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가르침이 몸에 배어 절로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개중에는 다만 지식을 쌓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이도 있다. 경전을 가로로, 세로로 줄줄이 꿰는 거기에 길이 있는 줄로 알고 그것을 한 편 자랑으로 삼는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단호히 말씀하셨듯이 참다운 지식은 행·실천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지식 쌓기에 의해 증장되는 게 아니다.



"지식에 자만하는 것은 맹인이 등불을 들고 있는 것과 같다. 행이 없는 지식은 무가치하다. 행이야말로 진정한 지식의 시작이다."

가령 어떤 이가 '다른 사람을 자신과 같이 보라.'는 가르침을 잘 알고 그 뜻을 남에게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생명을 아끼고, 남을 돕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고, 남을 사랑하고, 말이 항상 따뜻할 것이다. 그러나 행여 남을 미워하고 남에게 가혹하게 굴고 남을 비방하고 속이는 일을 한다면 그의 지식은 무엇이겠는가?

가령 어떤 이가 '방하착에 대해서 잘 알고 남에게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은 평소의 일상생활 중에도 탐욕을 부리지 않거나 잘 제어할 줄 알며, 화를 내지 않고, 정념에 사로 잡혀 사리를 그르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행여 탐 진 치에 휘둘려서 스스로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느끼고 주변도 괴롭게 한다면 그가 쌓아올린 지식이란 무엇이겠는가?

실천이 자연스레 뒤따르지 않는 지식이란 남의 목장에서 놀고 있는 젖소를 세는 일과 같고, 메뉴판을 외고 있으면서 막상 허기를 면치 못하는 것과 같다.

실천없는 지식은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림의 떡으로 만드는 꼴이니 본의 아니게 부처님을 욕되게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데에 떨어 뜨리는 격이 된다.

불자로서 어찌 이를 감당하랴.

부처님께서 '파티세나'를 교화하실 때 일자구(一字句)의 지식 밖에 없다해도 몸이 청정하고 말이 청정하고 마음이 청정하다면 그가 곧 아라한이니라 하셨다.

말씀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몸·행·마음을 낱낱이 알아차리는 게 지혜의 시작이다. 지식이 아무리 많다해도 그것이 곧 지혜는 아니다. 행이 함께 하는 지식만이 지혜인 것이다. 그것이 백지를 아는 것이다.

협찬 : 김 지 은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마음공부 인연 천년에 한번도 어려워

☞ 15면에서 계속

거나 병이 들었다거나 어떠한 문제가 닥쳐와도 재료로 삼아서 공부해라 이런 말이죠. 모든 게 자기가 지어놓은 것이니 '주인공,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다 버리라니까 안버리고 오히려 낫게 하는 그 일에만 매달리거든요. 근본 뿌리부터 치료해야 될텐데 썩은 뿌리는 놔두고 잎사귀만 치료하려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가 없어지면 둘 셋이 다 없어지는데 말입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약사보살이다, 관세음보살이다, 지장보살이다 하는 이름을 왜 내놨겠습니까? 그 보살들의 이름은 관리인으로서의 이름일 뿐이지 여러분의 마음을 거기다 한데 합쳐 놓으면 보살이나

> 남 섭섭지 않게 하는것
> 남 가슴아프게 하지 않는것
> 남 무시하지 않는것
> 의리 저버리지 않는것
> 은혜를 아는것
> 전부 베푸는게 됩니다

중생이나 둘이 아니게 되죠. 둘이 아닌 까닭에 의식들의 인과성도 병증세도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먼저 해야 할 일은 안하고 병부터 생각하고 나빠진 것만 생각하니까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그 방법은 한생각 밖에는 없습니다. 한생각! 이렇게 살아도 한 철, 저렇게 살아도 한 철입니다. 한 철 소풍나왔다 가는 인생인데 무얼 그리 붙들 게 있고 가슴아프게 살다 가야 합니까. 어느 노래 가사에도 있듯이 '내가 공한데 무엇을 찾으랴, 모두가 공한데 무엇을 세우랴.' 이것처럼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찾을 것도 없고 세울 것도 없는 그 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한시가 바쁜 겁니다. 바쁘다고 바쁘게 돌아가서 얼른 얼른 해내는 게 아니라 한생각에, 바로 한생각에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쥐가 한생각을 잘해서 주인을 살리고 자기가 모습을 벗듯이, 개가 한생각에 주인댁 아기로 태어나듯이 지혜로운 한생각에 은혜를 갚음과 동시에 자기도 모습을 벗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기 몸을 던지지 않고는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정신계에서 보이는 데로 이끌고 가는 그 진리는 변치 않는 겁니다.

남에게 베푼다는 것이 꼭 무슨 돈이 있어서 베풀어야만 베푸는 게 아니거든요. 남을 섭섭지 않게 하는 것, 남을 가슴 아프게 하지 않는 것, 남을 무시하지 않는 것,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 것, 은혜를 아는 것 이런 모든 마음쓰는 일들이 전부 베푸는 게 됩니다. 돈으로 줘야만 보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보시가 돈보다도 더 크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마음의 보시가 더 크다고 해서 금방 밥을 굶을텐데도 밥먹을 걸 안준다면 그건 또 지혜롭지 못한 일이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깡통을 들고 온 거지한테도 밥은 깡통에 담아주고 반찬은 따로 물 흐르지 않게 봉지에 담아 줍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다시는 이렇게 얻어먹지 말고 네가 농사 지어서 네가 추수해서 네가 먹도록 해라' 하고 마음 내주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한끼 밥 잘 차려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한마음 내줌으로써 그 사람이 세세생생 구걸하지 않고 자기 밥 자기가 먹고 또한 남에게 베풀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공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태어나기 이전의 자기를 무시하고 삽니다. 태어나기 이전 자기는 정신계의 자기고, 지금 현실에 보이는 물질적 세계는 바로 정신계의 자기가 형성시켜 놓은 자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나무가 자기 뿌리를 무시하겠습니까. 병이 낫고 안낫고 일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그것은 자기한테 그대로 보배로서 있는 건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둘아닌 도리도 알 수 없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낫게 하든지 낫지 않게 하든지 둘이 아닌 까닭에 너만이 할 수 있지 않아. 지켜주는 것도 너고, 이끌어 주는 것도 너고, 해결사도 너고, 죽이는 것도 너고 살리는 것도 너야. 너만이 함이 없이 할 수 있고, 너만이 보이지 않으면서도 보이게 할 수 있고, 지금 보이는 나와 안보이는 너가 둘이 아닌 까닭에 항상 내가 보이면 자기도 보이고 내가 안보이면 자기도 안보이고 하니 이 도리를 알게 하는 것도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진실하게 믿고 들어가세요. 사실은 이미 이렇게 밀접하게 가설이 돼 있는 건데도 어떤 분은 그렇게도 자기 뿌리를 믿지 못하고서는 엉뚱한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아주 치명적인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공부한지 얼마나 됐소?"하고 물으면 "한 3, 4년쯤 됐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열심히 했더라면 이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을텐데요." 그랬더니 싱긋이 웃고선 "햇수는 오래 됐으나 몇 번 오지는 않았어요." 이러는 겁니다. 그걸 어찌합니까. 대신 밥먹어주면 배가 부릅니까.

이 마음공부 하는 도리는요 한 번 인연을 만나는 것이 천년에 한 번 만나기 어려운 공부입니다. 마음공부하는 인연을 그렇게 쉽게 보지 마세요. 이 옷 벗고, 옷 속에 곤충의 세계를 다 벗어버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보기 흉한 곤충 속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헤어나지 못해야 합니까? 비천상 보셨죠? 그리고 만화영화에 나오는 은비까비는 이 모습으로도 됐다가 저 모습으로도 됐다가, 이걸 건질려면 이 모습으로, 저걸 건질려면 저 모습으로 나투어 다 건지고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아하, 과거는 벌써 지나갔으니 없고 미래도 아직 오지 않았으니 없고 현재에 살아가는 이 현실도 없구나. 다 무효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것도 이름이 과거·미래·현재로 지어졌지 이 지구가 돌아가는 자체에


그림 · 최주현

야, 세울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알 것도 없는데, 그리고 모두가 둘이 아닌데 뭘 그리 붙들 게 있나.' 하고는 주인공 자리에다 맡기세요. 이 컵과 이 컵이 둘이 아니라면 자기 컵 하나가 자기 컵을 깨트리겠습니까? 마주쳐야 깨트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방암이 목으로 번져

문 저는 4년전에 유방암 수술을 했는데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암세포가 목으로 전이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새로 조직검사를 했더니 바로 방사선 치료와 항암제를 맞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번 겪은 일이라 죽어도 못하겠더라구요. 그때 마음에서 스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안양에 와서 주지스님을 뵙고 말씀드렸더니 관하는 걸 일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용기가 생겨 병원을 다시 찾았더니 혹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는 해야겠는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스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답 그래요. 사람이 하나 하면 둘을 알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몰라요. 생각이 그렇게 짧아요. 병원에서 즐어들었다고 하면 '또 즐어들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안타까워서 암이다, 백혈병이다, 종양이다 이래도 나는요 걱정이 하나도 안돼요. 왜냐하면 자기 뿌리가 있으니까요. 단 하나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수없이 이렇게 머리가 허옇토록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아프다니까 참 이 중노릇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가끔 쓴웃음과 좀 허탈한 생각이 들어서 먼 산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가르쳐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뭐냐 하면 병원에 가서 무슨 소릴 들었다 하면 그냥 마음이 이미, 마음부터 겁을 먹고 죽어버리거든요. 그리고 급하니까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이러는데 딴 것까지 망가진단 말이예요. 이것을 모르고서 그냥 함부로 해버리니 그걸 어떡합니까. '50%만 의사한테 맡기고 나머니 50%는 당신네들이 공부해서 해야된다' 고 이렇게 말해줘도 본인들이 믿지를 않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남의 마음을, 자기 뿌리가 약사보살이란 걸 믿으면 좋을텐데 말이예요.

손자가 직장근무 힘들어 해요

문 저는 김천에 사는데 대구지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스물일곱살 된 손자가 신문사에 다니고 있는데 자꾸만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면서 사표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스님은 외국 가시고 안계셔도 혼자 법당에 와서 스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갔습니다. 스님께 감사드리고요 손자가 정신이 건강해져서 이 나라에 씩씩한 일꾼이 되도록 마음을 좀 내 주십시오.

답 저는 마음을 항상 내고 있으니까요. 손자만 마음을 낸다면 그것은 찰나로 없어져요. 걱정하지 마시고 식구들이 함께 열심히 공부하세요. 나무는 자기 뿌리를 믿고 살거든요. 그러니 '주인공, 네 뿌리가 있으니 네가 낫게도 할 수 있잖아' 하고 댁의 손자한테 가르쳐 주세요.

인간까지 진화 해온 이유

문 저는 대구지원 학생회 고3 김의수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태초에는 미생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텐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로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사람까지 진화를 해서 이렇게 병도 들어야 되고 학교 가서 공부도 해야 되고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그것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바람이 있고 흙먼지가 있고 물이 있는데 이건 스스로 자생으로서 생긴 거죠. 이건 자연의 원리면서 자연의 이치예요. 그렇게 생겨서 모아지고 움직임이 있다보니 원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생명체가 생기는 거구요. 그렇게 해서 이날까지 진화를 해서 인간까지 됐죠. 그런데 인간이 제일 나중에 돼서 살다보니까 물리가 터지고 지혜가 생겼죠. 보세요, 의학이나 과학이 얼마나 방대하게 발전했는지를요.

그러나 우리가 최초에 내가 어디서 온 것을 모른다면 아주 귀한 과학자가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과학자가 아니죠. 남의 생명을 우습게 생각하고 남의 일을 우습게 생각하고 남을 깔보는 일이 많고 아상과 아만이 많아서 자기를 돌아보지를 못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왜 사람으로 태어났느냐를 생각해 봅시다. 많은 고초를 겪어오면서 곤충으로부터 인간까지 올라올 때 수만 년 아니 헤아릴 수도 없는 그 세월을 거쳐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광년을 거쳐왔는지 숫자도 없습니다. 자연의 이치란 게 이게 곤충이 너무 성하고 악이 많고 독이 너무 많으면 그냥 멸하게 돼 있어요. 그게 질서이기도 하죠. 어떻게 돌아가든지 죽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중에도 인간이 이렇게 물리가 터지게 되면 이 중세계를 벗어나게 되거든요. 중세계를 벗어난다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곤충의 주머니에서 벗어난다는 말도 되죠. 우리가 곤충으로부터 살아서 인간까지 되었지만 사실은 인간도 곤충의 주머니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독의 곤충의 주머니가 되느냐, 선의 곤충의 주머니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이게 벗어지고 새로운 곤충의 주머니를 만들고 이러는 거죠. 만약에 그러한 문제가 없었다면 이 산하대지가 전부 새카만 그냥 뭐라고 그럴까, 아무 것도 없는 그런 게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또 불에서도 살고 캄캄한 데서도 살고 모두 사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어디선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니까 어서어서 이 공부를 해서 벗어나는 데 노력을 해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정을 베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다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항상 베풀면서도 정신계의 자기를 믿고 오직 거기다 맡기고 길을 걸어라 이런 뜻이죠. 어쩔 수 없잖아요, 이왕지사 태어났으니. 중요한 건 어떻게 살고 어떻게 벗어나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태어났으니까 상대도 있고 종교도 있는 거지 내가 없는데 세상에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왜 태어났느냐 이 말을 하자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못다 하고 내일 모레까지 해도 못다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왔든 인연이 있으니까 나왔겠죠. 나왔으니 나부터 알아야지 내가 없는데 어떻게 상대가 있고 종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네 나무는 네 뿌리를 믿어야 공덕이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거죠.

절에서 보통 공양 올린다 할 때도 많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꽃공양' 할 때도 이 세상이 벌어질 때 어떻게 꽃만 있었겠습니까. 나무도 생기고 풀도 생기고 돌도 생기고 전부 생기고 난 뒤에 세월을 겪으면서 진화했겠죠. 그러니 우리가 그걸 벗어날려면 모두가 공하다는 걸 알고 한마음으로써, 공심으로써 공양을 올려야 공덕이 될텐데 공심은 커녕 꽃 하나 속에 온통 내 아들 내 남편 뭐 이런 생각만 가득하니 꽃공양의 의미는 천리만리 달아나고 없어요. 그러니 이게 적응이 됩니까, 공덕으로 이어지느냐구요.

이 마음도 그래요, 공양미를 올리고 초를 하나 켤 때도 내 마음의 불을 켜서 내 이 몸이 타서 깎아지는 듯한 그 마음, 애처로운 그 마음, 그리고 공심으로써 공양을 올려야 부처님도 함께 공심으로 돌아갈텐데 내가 공심이 아니면 어떻게 맞아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공심으로써 공양을 올릴 때 촛불 하나를 켜도 내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돼서 그 촛농이 떨어지는대로 내 몸이 깎아진다는 것을 아셔야죠.

그리고 스님들 공양할 때 바루공양도 '공양'이라고 그러죠, 왜 공양이라고 그랬느냐, 스님네들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스님네들은 곤충의 바가지예요. 중생들의 주머니 말이예요. 주머니 구멍 뚫린데로 먹을 것을 넣어주죠, 거기서는 제각기 모두 먹고 자란다구요. 그러면 어떻게 자라느냐, 이 사람 하는 행동에 따라서 의식이 다 따르게 돼 있거든요. '먹기 싫어도 주는 대로 먹어' 그러구선 넣어준단 말입니다. 그냥 살아가니까, 살기 위해서라는 것도 없고 그냥 살았으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 거죠. 그런데 그게 주머니라는 것을

> 꽃 한송이 공양하며
> 아들·남편 생각 가득하니
> 공덕은 천리만리 달아나고…

몰라요. 곤충의 주머니라는 겉 하나도 납득을 못해요. 그 구멍 뚫린 데다가 넣어주는데 어떻게 내가 먹는 겁니까? 이 주머니가 먹는 겁니까? 이 주머니 속에 곤충들이 먹는 거죠. 그것이 악의 독이 있는 곤충의 주머니냐, 독이 없는 곤충의 주머니냐, 여기에 따라서 또 많은 문제가 생기죠. 독이 있는 주머니에서는 독성이 생산되는 것이고 독이 없는 주머니에서는 독성에 잡혀먹히면서도 선의가 발생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만 그런게 아니예요.

옛날에 인간이 아주 적었을 때는 박쥐 같은 것들은 사람만 만났다 하면 와- 덤벼서 금방 잡아먹었습니다. 박쥐는 박쥐대로 먹고 뼈다귀를 남기면 이 개미라는 놈은 뼈다귀 속에까지 들어가서 다 먹어치워요. 이게 곤충의 주머니예요. 예전엔 이렇게 육을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했지만 지금 시대는 다릅니다. 정신계에서 정신을 뺏고 뺏기고 살죠. 정신이 빠지면 껍데기만 왔다갔다 하는 거나 다름없죠. 그러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곤충의 주머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놓고 가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남을 섭섭지 않게 해야 하고 말을 항상 조심해서 해야 한다 이말입니다. 뜩같은 말이라도 성을 내고 하면 상대쪽에서도 감정이 좋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이 곤충은 빨리 진화하지를 못합니다. 빨리 진화하고 차원이 높아지려면 둘 아니게 보는 마음과 내려놓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악성은 악성대로 통하고 선의면 선의대로 통하는데 그 악성을 어떻게 선의로 이끌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건 바로 독성을 빼면 선의가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독성을 빼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독성이 다 없어지면서 이것이 부처될 수 있는 가능성이 99% 있을 때 이 중세계를 떠나게 된다 이런 거죠. 이 마음공부하는 분들 중에는 벌써 반 이상이 즐어들고, 반이 즐어들고 또 어떤 분들은 삼분의 이가 즐어들고 어떤 분들은 아주 요만큼만 남고 다 즐어들었어요. 이거는 누가 일러줘서 아는 게 아니라 벌써 이게 통하거든요.

아까 저 학생이 왜 태어나게 돼서 이런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학생들도 힘든 게 많죠. 세상대로 따라 갈려니 그러기도 하겠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펄쩍펄쩍 뛰고 편안하게 살았는데 말이예요. 비록 가난하긴 했지만요. 하여튼 여러분, 사람으로 치지 마시고 곤충의 주머니로 치시고 항상 그 곤충 주머니나 곤충이나 둘이 아니고 우리도 이런데 딴 사람들도 다 둘이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세요. 모두가 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때 바로 믿어지는 게 있어요. 믿어지는 그 방망이 하나면 온 우주를 때려 잡고도 남음이 있어요. '주인공'이라는 자기 뿌리인 불성 말이예요. 이거면 이 세상을 다 잡고도 남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찾을 것도 세울것도 없는 그 도리 알아야"
"공연히 생각 붙이고 긁어 부스럼 만들어"

협찬 한마음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 함께 하는

불·자·정·보

최소규격 및 가격 :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전대불교 전국 지사,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건 강 •

암·간경화·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당뇨
만성 신장병·암·神病
정신질환·원인모를 病
제3의학·심요법

보상금제도도입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현저한 호전이나 완치가 아니면 보상금(치료비+1천만원)을 드립니다.

TEL : 0552-585-8118·8128
H.P. : 011-559-8118/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 치료사례 비디오 테잎 무료로 드립니다 ※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34-1115~6
012)598-1015

전화번호 변경안내

98년 8월 23일부터
0593-834-1115~6
으로 변경됩니다.

용님선원

물심과 정성으로 보살피는

불자 간병인

◇ 환자 간병 / 산모관리
◇ 12시간 3 만원
24시간 4만 5천원(환자)
◇ 산모관리 숙식1달기준 130만원
출퇴근 1일기준 3만 5천원
◇ 서울 - 무-제-98-1호 허가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03-15

☎02)363-7884/017)247-7884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간병인회**

• 강 좌 •

현정 심성개발·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홀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개발 및 감수성 훈련(ST)
소그룹 지도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8시 반까지 강좌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학생모집(통신생포함)

◆ 과 목 : 동양역학, 침술, 불교학, 일본어 (초급·중급·고급·회화 등역 비지니스반)
◆ 자 격 : 연령·학력 제한없음
◆ 각과정 3개월 졸업 - 졸업장 수여
◆ 철학관 및 포교원 개원시 지원배려함
◆ 강 사 : 철학박사(스님, 승가대 교수)
◆ 풍수, 운명, 침술 : 직접 감정도 하고 있음
◆ 수업시간 : - 오후 3시~5시
- 야간 7시 30분 ~ 9시 30분
※ 과목에 따라 1주에 2~3회 수업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24
(로즈데일백화점 1339호/지하철 3호선수서역 3번출구하차)
T. 3413-3185~6 F. 3413-3186
대길사 대길승가대학

전통불교의식 학인모집

●기본과정 : 도량석, 종송, 예경, 불공, 시식등
●중급과정 : 대령, 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특별의식
●어산작법 : 초급과정:바라무, 나비무 작법, 어산초급과정
●원왕생과정 : 불교식 장의 장례(다비의식)
출가상담및 교육과정<기본의식 교리, 습의>
반야심경, 금강경<10폭 병풍> 시경법회
※각 과정 통신생 모집 ※ 학인스님특별반 모집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7-1 원방BD 4층 (봉은사옆)
☎ 02)511-0108
대한불교조계종 **전통불교의식연구원**

사주 명리학 배우실분

사주·신수·궁합·장명·진로선택·이사방위등을 수려후 정확하고 자신있게 간명할 수 있도록 책임지도 합니다.

◆수강-주2회(1회 3시간씩)3개월
◆장소-마포구 대흥동 801-57

한국 명리 연구원
02)713-4852~3

• 구인구직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구미시 도개면 신림리 464-1 **자비사**

0546)53-7700

사찰 운전기사로 일하고 싶습니다.

0347)
78-2191

• 불교용품 •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 수련원 •

◆ 청학사 수양원 ◆

■ 수양·요양·기도·공부
■ 경전강의, 참선기도
■ 月 숙식비 ₩300,000
■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0595)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 탈종공고 •

탈종공고

진주시 수곡면 효자리 중전 371번지
성덕암 행원스님

상기인은 1998년 7월 29일字 현대불교에 탈종공고를 내었으나, 주간불교 8월 5일 탈종무효 공고를 낸것은 본인의사와 전혀 무관한 중단 처사이기에 다시 탈종공고를 공고합니다.

대한불교 조동종 종정(박운파)예하

상기인등은 귀종단의 종지 종풍과 뜻이 맞지 않아 탈종을 공고함.

• 학 원 •

소운서예학원
강동구 상일동 124-1 (고덕6단지)
02) 427-5369

청우서예학원
하남시 창우동 520 은행APT.종합상가 303호
0347) 794-2818

• 기 타 •

사찰에서 사용할 4륜 구동차 무료로 보시하실 분

전화:0366)32-6544
핸드폰:011)363-3963

※ 홍천에 소재 사찰 ※

全國 佛子님께
氣龍 達磨圖를 나눠드립니다.



혜월당합장 회향암
0564) 33-2037
017) 531-2929

달마보급 안내



연락처 :달마보급 선양회
017-540-3591

영축아봐타센터

0523)81-1143/011-882-1149

이 프로그램에 [들어보셨습니까?

Avatar.

아봐타는,
14개국어 61개국으로 확산된 현재 지구상의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의식개발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사찰안내 •

양도 안내

⊙ 위치: 안동근교 /부지: 1300평
흙집: 16평 /가액: 1천 3백만원
특징: 고찰터 암자로 적합
⊙ 위치: 수원근교 /가액: 1억
부지: 1300평 /건물: 45평
사찰이나 복지시설로 적합 계곡 有
⊙ 전국 사찰,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분 전화주십시요. 연결하여 드립니다.

상담전화 02)723-4082
광진불사

<사찰적지급매>

⊙ 충북·오창·서울 1시간 15분, 증평 I.C 5분거리

· 사찰부지 : 600평(주차 150평)
· 건물 : 적벽돌스라브 60평(방2s실)
원장실 3평 (방1실)
조립식식당및 주방 18평
목욕 사워실
※ 발전 : 오창국제공항, 오창과학단지, 오성의료단지
1. 원주:인구 50만, 15분거리
2. 증평:인구 3만, 8분거리

가. 발전요충지, 경관수려한 정남향, 7부능선위치(옛고시원)
나. 산업도로에서 도보로 5분거리
다. 45ton 진입로 양호
라. 전력 360KW 및 220KW
마. 급수시설(정수) 양호
바. 기존전화시설 완비

● 매가 : 1억 3천
· 분납절충 · 전세가능

(0431)213-4682/0431)250-8108/011-466-8107

포교당 매매

◇위치 : 인천 승의 5거리 도로인접
◇건평 : 3층 45평
◇법당 : 17평, 방3개, 주방
◇가격 : 전세 1천만원, 월세없음.
※ 시설비 따로 문의 바랍니다.

032)887-4884
일심사

사찰안내

◇위치 : 경남 하동군 화계면
쌍계사
(쌍계사에서 칠불사방향 1.5Km 지점)
◇대지 : 510평
◇건물 : 91평
◇가격 : 추후 결정

0595)884-0496

사찰전세안내

◆ 위치 : 서울 서대문구
◆ 법당 : 부처님 삼존불 약 15평 (입주 즉시 법회가능합니다.)
◆ 요사채 : 주방 2, 거실 2 화장실 완비
◆ 전세가 : 스님께 약간의 전세보증금으로 모실까 합니다.

02)823-0788

◆ 사찰(포교원) 급히 양도함

◇ 고양신도시 능곡 행신-화정지구
◇ 건 물 : 4층의 2층 45평
-법당, 사무실, 방 2, 주방, 욕실
◇ 고급시설, 문화재 목조 아미타불
◇ 가격 : 2천만, 월 50만
(관리비 무(無), 시설비 - 1천 3백만원

0344)979-0212
011)667-0212

포교원 운영하실 분

◆ 법당 15평
삼존불 및 모든시설 완비
◆ 요 사 : 3층 옥탑, 단독방 1.
◆ 3층 - 방 1, 주방 1, 욕실 1.
◆ 가 격 : 보증금 8백만원 월 50만원
◆ 모든 시설비용은 최저가격으로 드림.

02)461-6091
011)493-8936

사찰안내

◇위치 : 장호원(서울에서 약1시간거리)
◇대지 : 437평
◇총건평 : 83평
- 법당(27평), 사무실(15평)방4개,
- 요사채(41평)방11개, 주방, 화장실
◇가액 : 4억 5천만원
◇특징 : 발전 요충지의 명당
(직접면담-스님 인수시 가격절충)

0331)32-4999
012)925-6118

사찰운영하실분

◇위치: 서울서 1시간 20분거리 목천 I·C에서 20분거리(병천부근)
◇대지: 263평(삼존불 및 162 보신불, 기물 일체포함)
◇건물: 스레이트 30평 1동
스레이트 20평 1동 ◇산신각: 4평
◇특징: 마을 끝 산밑 기도도량, 입구까지 천안서 버스 4회 운행 및 포장도로
◇금액: 6천 5백

0417)554-8216

사찰운영하실분

◆위 치 : 강원도 홍천(市 승격 준비작업 완료) 2,000년대 서울서 1시간 거리
◆부 지 : 대지 198평, 임야 125평, 전 1,159평(슴 1,482평ㅇㅇ
◆법 당 : 13평(고전 한옥기와) 등기 필 / 요사 : 28평(고전 한옥기와) 등기 필
◆부속건물 : 17평(창고, 외부샤워장, 외부화장실)
◆가 액 : 3억(절충가능)
◆특 징 : 수려한 산세(천하절경 명산의 기암괴석 청정자연계곡)와 사계절 1급수 물이 흐르는 계곡과, 넓은 주차장 지하 80M 암반을 굴착하여 나오는 엄청난 양의 암반수,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700m(사찰 전용도로)거리인 편리한 교통환경, 산속에 소재한 기도 도량으로 대덕스님께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합니다.

(주)동국불사 담당 : 조법사 합장
상담: 02)512-4447/ 012)1648-6334

◆사찰 운영하실분

※ 가격 대폭 인하
◇ 위치 : 경희대 회기역 입구.
- 4층 27평.
- 5층 15평.
◇가격 : 보증금 천 4백 월 60만원

011)286-2680

◆ 포교당 임대

◇ 11년 역사
◇ 시설 완벽 (법당, 공양실, 주지실)
◇ 주차시설완비
◇ 부산시내 최요지(신도다수)
◇ 공유포함 약 70평

◆ 전세 5천만원
※ 꼭 운영하실 분만 전화요

부산 (051)642-6242

◆ 급매(마산시 합포구 구산면)

◇ 평수 : 550평
◇ 법당 : 17평(단층스레이트 건물)
◇ 요사채 : 18평(방3칸)
◇ 삼성각 : 5평(목조건물, 단청완료)
◇ 지하수 : 200m 암반수
◇ 전기시설(농사용전기 사용) 및 주차장 완비(사찰마당까지 주차함)
◇ 매매 및 전세 가능
◇ 양도금액 : 1억9천(절충가능)
◇ 전세금액 : 6천만원

011-563-0108/0551)21-5737

토 굴 급 매

◇ 위치 : 경기도 안성 고성산밑
◇ 단독주택
◇ 법당 1개, 방 2개, 거실2개 현대식부엌, 욕실
◇ 가격 : 2천 7백만원

0333)656-8951

◇위치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연화1리 **용주사**
◇평수 : 대지-150평, 법당 2층-15평
◆요사-30평, 산신각-2평, 종각-2평, 용왕각-1평, 지장단-10평, 천수관음전-2평, 미륵불1불, 해수관음-1불
◇가격 : 1억 7천만원(절충가능)

0373)374-4459

◆ 사 찰 급 매

◇ 위치 : 서울 삼각산 (정릉 국민대 뒤)
◇ 국림공원 임야 약3천평 건물 5동
◇ 계곡과 기암괴석, 울창한 숲속: 천연의 약수
◇ 서울 강남까지 조망가능
◇ 가격 : 5억원 5천만원정

02)512-3092

포교당 안내

◇위치 : 부산시 안락동
◇가격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35만원
◇평수 : 35평
◇시설비 절충
◇포교원이나 철학원으로 적합

016-558-8753

사 찰 부 지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명산 '神魚山' 줄기 (김해시 상동면 묵방리)
◆ 면적 : 가) 6,700평(전체 준농림)
나) 30,000평(준농림 18,400평, 농림 11,700평)
◆ 용도 : **사찰, 납골당, 부도탑, 실버타운 전원주택, 종합병원, 동호인주택 연수원, 골프연습장, 수련장, 사설학원**
◆ 교통 : 5분:인제대학교, 가야골프장, 김해상동 I.C(예정)
7분:김해 I.C 11분:김해 대동 I.C
18분:김해구포역, 김해국제공항
21분:양산시 23분:창원시 25분:마산시
◆ 도로 : 가), 나)각각 도로 접함. 현재 5톤 트럭 출입가능 (98년 6월 폭 8m 아스팔트 확장 포장공사 착공)

TEL. 0525)32-8322~4 <자택> 051)335-6392
011)881-4863 012)1568-6392

금화 **공 인 중 개 사** (김해시 어방동 26B 15L)

◆ 토굴팝니다

◇ 위치 : 경남 하동군 청학동 근처
◇ 대지 : 90평
◇ 건평 : 15평(황토흙방 3)
◇ 가액 : 4천만원
◆ 최고의 명당(황토흙 방 3개)
◆ 차도에서 800m 떨어진 깊은 산속

0667)772-5401

◆포교당 양도(급매)

◇위치 : 강동구 길동 4거리 먹자골목
◇시장통 중심가(입주즉시 법회가능)
◇18년 역사 간직
◇건강상 내놓음
◇삼존불, 방3칸, 취사시설, 화장실
◇가격 : 총 3,500만원, 월 60만원
◇포교원으로 적합함.

◆ 스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정상 급매.

017)282-1998
02)482-4550

◆사찰 및 부지

◇ 위치 : 경남 진주시
◇ 부지 : 약 2,000평(평토작업 완료)
◇ 요사 : 28평(임법당 14평, 방4개) 7평(부엌, 욕실, 창고)
◇ 가 격 : 2억 5천
◇ 특 징 : 제곡앞에 저수지, 양쪽 암반계곡, 기도처나 선원용도 진주시내 15분, 마산 I.C. 20분, 부산 1시간 거리, 전화·전기·도로 있음.

016)589-0560
0591)758-3445

포교당 안내

◇위치 : 인천시 석남동
◇평수 : 30평
◇거북시장 상가 2층
◇시설비 1천만 -약간, 큰방1(법당20평), 주방1
◇가격 : 보증금1천만원 월 50 만원

032) 571-7602

포교당 급매

◇위치 : 인천 석남동 시장통
◇면적 : 30평,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절충
◇시설완비 입주 즉시 법회가능, 포교최적지로 사정상 급히 양도합니다.

032)571-7602
02)723-4082

대구시내 포교당 운영하실분

◇평수 : 59평, 3층 건물
◇보증금 : 2천만원(월 30만원)
◇후불탱화, 관세음 보살님 동불 봉안, 대형냉장고, 전화 시설 완전 구비

053)654-6219

토굴매매

◇위치 : 경북 영천시 신령면 매양리 팔공산
◇부지 : 1,052평
◇법당 : 10평/요사채 : 18평(조립식)
◇매도가 : 7천만원
※조용한 산속 기도도량으로 대작불사 가능.(동북향) 대구에서 40분거리

0563)32-3290

사찰안내

◇위치 : 경남 마산 마산역에서 20분거리
◇사찰부지 : 158평
◇건물 : 임법당 1동, 요사채 1동
◇가격 : 6천만원 (시설일체 무료기증)
※ 입주즉시 법회가능

011)9692-8878

포교당 안내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원당 전철역 앞
◇대지50평, 실평수25평(단독주택)
◇전세 2500만원, 월세 10만원 (보증금-시설비·권리금 합 5천만원)
◇보살도 가능, 삼존불모셔져 있음

0344)956-7717
018)382-0280

포교당 안내(대구)

◇ 59평, 3층 건물
◇보증금 1천만원 월 30만원
◇후불탱화, 관세음보살님 동불 봉안, 대형냉장고, 전화시설 완전 구비

011)790-7162

불자 세상보기

폭력·음란 日만화 국내점령
청소년 범죄 '게릴라성 유혹'

"일본 만화 주인공이 멋있게 보여 폭력서클을 만들었어요."

청소년들이 일본만화 주인공의 행태를 그대로 모방해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등 일본만화가 학원폭력의 '교과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낯익은 이야기다. 일본만화의 수법을 모방해 '일진회' 등 폭력조직을 결성하는가 하면 강간 등 성범죄를 아무 죄의식 없이 저지르고 있어 우리 청소년들에 파고든 일본만화의 폐해는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 검찰은 '학교 폭력'과 '빨간 마후라' 사건 이후 일본만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음란 일본만화를 대량 복제해서 유통시킨 출판업자 2명을 검거하고 비밀창고에 보관돼 있던 외설 폭력만화 1백30여만권을 압수했다.

한국만화와 일본만화 비율은 유통상 3대 7정도로 일본만화가 압도적인 우위. 이는 인세가 반영되지 않은 복제 본이어서 중간 마진이 크다는 점 때문으로 중간 판매업자들이 선호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침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문화평론가들은 "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선봉장은 만화·애니메이션이 될 것이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일본 만화는 이미 우리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매우 친숙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에는 〈드래곤 볼〉〈슬램 덩크〉〈세일러 문〉 등의 만화책·스티커·장난감·인형 등이 가득하다.

TV와 인터넷·CD롬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1·2월 방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백6편의 TV만화영화 중 국산은 7편(3.4%)에 불과한 반면 방송사들이 사들인 일본만화영화는 1백61편(78.2%)이나 됐다. 인터넷·PC통신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음란물과 CD롬 만화도 이미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 앞으로 세계최고를 자랑하는 일본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들어올 경우 국내 만화시장의 초토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인터넷·TV만화도 '위험'
정부 우량만화 지원책을

만화인들은 "정부는 말로만 영상대국, 만화만이 살 길이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저질 일본만화 확산을 방지하면서 국내 만화문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내 만화(영화) 제작자들도 '영세하청' '일본만화 번역'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올바른 정서를 함양하는 우량만화 제작을 위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학원폭력의 '교과서'가 되고 있는 유명 일본 만화들. 〈캠퍼스 블루스〉는 학교 폭력서클의 대명사가 된 '일진회', 〈파워 클럽〉은 중학생 폭력서클 '미들스쿨(MS)' 파의 교범으로 손꼽힌다.

불교의 눈 "청소년은 쉽게 모방하니…"

"바른 지혜가 생겨나지 않으면 속게 마련이다. 오욕(五欲)은 급류와 같아서 한 번 빠지면 벗어나기 어려우니, 마땅히 지혜라는 이름의 배나 뗏목으로 그곳을 건너가야 한다."〈제법집요경〉 관단력이 떨어지는 청소년은 폭력·음란 만화속에서 펼쳐지는 가공의 이야기를 실제인양 착각해서 모방하기 쉽다. 이런 저질 만화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자칫하면 올바른 가치관을 상실해 불량청소년이 되기 쉽상이다. 〈정행소집경〉의 "무슨 까닭으로 번뇌라 부르는가. 감각기관들이 번거로워져 즐거움을 잃게 되는 까닭이다"는 말씀처럼 말초적인 감각을 추구하면 가뜩이나 힘든 그들의 번뇌만이 커질 따름이다. 어른들도 "방탕(放蕩)을 익혀 갈애(渴愛)를 증장시켜서는 안된다. 도리에 맞는 행위를 잘 익혀 배우되 어겨서는 안된다"는 〈법구경〉의 가르침처럼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 불교만화사 임기준사장은 "교육용 종교·역사만화 등 청소년들에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만화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일본의 저질 만화를 막는 근본적인 방법이다"고 말했다.

"심야영업 철회하라"

종교·시민단체 '백지화 서명운동'

정부의 유흥업소 심야영업 허용방침에 대한 종교·시민·소비자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불교시민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10개 종교·소비자·여성단체들은 지난 3일 '유흥업소 심야영업 허용 철회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모임'을 결성, 이날부터 전국적으로 유흥업소로 인한 주민생활 피해사례를 신고받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전국 1백50여곳의 소비자고발센터를 가동, 유흥주점의 퇴폐적인 영업행태와 취객들의 고성방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 사례 등을 접수받아 자료를 분석해 악덕 퇴폐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들은 또 이달중 유흥업소의 심야영업을 허용하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공청회와 가두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YMCA연맹 등 36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생활개혁실천 범국민협의회'는 같은 날 서울 명동 YWCA회관 앞에서 '유흥업소 심야영업 허용철회 촉구집회'를 갖고 시민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날 협의회는 "시민들의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지난달 27일 식품위생법시행령을 개정, 심야영업 허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정부에 강력 항의한다"면서 "정부가 심야영업 허용을 밀어붙일 경우 야간 횃불집회 등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유흥업소 피해사례 대표 신고전화는 (02)793-8081.

김재경 기자

'효녀 경미'에게 온정답지

SBS가 지난달 26일 방송한 〈일요특집 출발 모닝와이드〉를 통해 감동적인 사연이 알려진 고2년생 '경미'에게 성금과 안구기증 의사를 전해오는 등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시각장애인인 아버지 이의성씨(56)와 함께 단 둘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경미는 3살때 아버지가 시력을 잃은 이후 겨우 걸음마를 하던 시기에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길거리로 나서 수집한 폐지나 병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

충남도 교육청 미담 창구 개설

충남도교육청(교육감 오재욱)은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10일 '이웃사랑 미담 사례' 접수창구를 개설했다. 초등장학과에 전화(042-580-7221)나 편지를 하거나 직접 방문해 알려도 된다. 교육청은 미담사례를 심사해 교육감 표창과 함께 '이웃사랑 기장'을 수여할 예정.

공군장병 투병소녀 돕기 헌혈

공군 제 15혼성비행단 장병은 재생불량성 빈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신인정양(9·서울 대왕초등 3년)을 돕기위한 헌혈운동과 모금운동을 한달째 벌이고있다. 장병들은 부대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던 신양이 어려운 가정형편때문에 4천만원의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발벗고 나서게 됐다. 현재 혈소판이 신양에게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19명의 장병들이 지난달 14일 동생(7)으로부터 골수이식수술을 받은 신양에게 혈소판을 공급해 주고 있다.

실직자 울린 다단계 금융사기

전남지방경찰청은 10일 실직자를 상대로 불법 다단계 금융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위너스투자(주) 대표이사 박국현(51)씨와 이 회사 광주지점장 정광진(29)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박씨 등은 사업자 등록없이 지난 1일부터 광주시내 J빌딩 6층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실직자·가정주부들에게 계좌당 일정액을 입금시켜 조합원이 되도록 한 뒤 새 투자자를 유치하면 수당을 주는 방법으로 1백60여명으로부터 모두 1억7천여만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농약 요구르트' 아빠가 범인

농약 요구르트를 마시고 숨진 금룡민군(12·초등 6년)사건의 범인은 사실상 금군의 아버지인 것으로 드러나 11일 경찰이 금군의 아버지에 대한 공개수배에 나섰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금씨가 6살때 교통사고를 당한 장애인 아들을 범행도구로 이용, 농약이 든 요구르트를 마시게 한 뒤 백화점으로부터 보상을 노렸거나 장애아들의 장래를 우려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흉기로 노모·형 위협한 30대

경북 구미경찰서는 9일 흉기로 가족들과 출동한 경찰관을 찌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로 금동섭씨(33·무직)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금씨는 지난 8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일자리를 찾아보라"며 꾸중 하는 노모(73)를 흉기로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형(37·농업)의 왼쪽팔을 흉기로 찌른데 이어 출동한 구미경찰서 도개파출소 리준광 순경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다.

병원매점 23곳 불량식품 판매

영동 세브란스병원·안암 고대병원·이화여대 목동병원 등 23곳의 대형병원의 구내매점들이 무허가로 제조된 김밥과 대장균이 든 햄버거를 파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채 영업하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일 전국 각 병원 구내매점 1백63곳의 식품위생 상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관계규정을 위반한 매점 23곳을 적발, 시·도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시론

눈앞의 물난리

자신에 대해 무언가 터무니없게 짜증이 날 때가 있다. 그럴 때 자신이 부숴버리고 다시 조립할 수 있는 장난감이라면 얼마나 좋으랴 싶기도 하다. 토끼의 간이라면 맑은 물가에라도 나가 헹구어 낼 수 있으련만, 이렇게 가끔은 묵은 때를 씻어내고, 혼자만의 방에서 까닭모를 심연의 눈물을 퍼 올리고도 싶은 이상한 욕구가 일어난다.

끝없는 동굴에 자신을 내려놓고 참회의 시간과 자정(自淨)의 시간을 스스로에게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텁텁한 도심의 생활을 떠나 이번 여름에 나는 기한부 출가를 위해 성북동에 있는 길상사를 찾았다. 시계와 핸드폰은 자진 반납되어서 이제 시간도 멈춰져 버렸다. 뉴스도 없는 이곳은 무풍지대나 다름없었다.



맹란자
〈수필가〉

'맑고 향기롭게'의 주최측은 우리의 의식주를 완전히 책임져 주었다. 소유라고는 없으니 심신이 홀가분 하였다. 일의일발(一衣一鉢)의 간편한 생활. 이렇게도 살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자유를 체감할 수 있었다. 수령 250년, 혹은 백여 년이 넘는 여러 그루의 느티나무에서는 매미들이 힘차게 울어댔다. 신 새벽에 조용히 뜰을 거니는 것도 좋았다. 그러나 내가 충격적인 울림을 받은 것은 발우공양을 할 때였다. 서툰 손놀림으로 목기(木器) 네 그릇을 펴 놓고 다같이 오관게(五觀偈)를 외울 때였다.

>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 재앙 앞에서 진실 못건지면 앞으로도…"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고?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갑자기 막혔던 가슴 속으로 전류가 지나가는 듯 했다. 나는 그동안 자신의 덕행(德行)에 대해 한번도 생각해 볼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내 자신이 사실 검덕(儉德)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차차 나도 음식을 조금씩 뜨게 되었다. 육심껏 갖다 놓던 습관때문에 버리지도 못하는 그 음식들을 먹어 치워야 할 때의 고역이란 바로 다름아닌 내 욕심의 소치, 그 탐욕의 덩어리를 보는 듯 했고 그것을 씹고 있다는 생각조차 들었다. 자업자득임이 뻔했다. 백여 명이나 되는 대중의 식사와 설거지는 30분이면 끝이 났다. 놀라운 지혜였다. 한 조끼리 설거지한 물을 청수통에 모았다. 물이 조금이라도 더러우면 물을 다시 나누어 먹게했다. 나는 그때 집에서 쓰레기를 다룰 때 애를 먹던 일이 떠올랐다. 중산층 생활임에도 버려야 할 물건은 언제나 잡다했고, 거기엔 낭비의 몫까지 들어 있었다. 지구가 과연 몸살을 앓을 만도 했다. 어디 이 뿐이랴. 지구인이 자랑해 마지않는 나날이 새로워지는 그 많은 문명의 이기는 또 어떠한가. 자신의 욕심과 개인의 편리만을 우선적으로 고집하던 그 이기심이 세상에 불러 온 것은 대체 무엇이던가. 지구온난화현상이며 생태계 파괴이며 자연의 훼손과 빙하의 해빙 등이었다. 사람이 저지르고 사람이 받는 재앙은 마치 우리가 길상사에서 먹던 설거지 물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인없는 결과란 없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수련 일정이 끝나자 곧바로 접하게 된 뉴스는 지리산 물난리 사건이었다. 물난리를 보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안위만을 다행으로 여기는 듯 했다. 이런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수마는 한 곳도 빼놓지 않고 전역을 예외없이 강타했다. 입술과 치아의 관계처럼 이것이 상(傷)하면 저것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방송에서는 일년에 내릴 비가 한꺼번에 쏟아졌다고 보도하였다.

어디서부터 잘못 되었던가? 이 수재가 주는 고통의 기회를 통해서 만약 우리가 진실한 자기를 건져 올리지 못한다면 이와 유사한 일들은 앞으로도 형태를 달리하면서 되풀이 될 것이기에 두려움을 금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욕망은 바로 그의 운명이다'라는 말을 나즉하게 나는 혼자 뇌일 수밖에 없었다.

佛經漢文學會
법화경·한문·무료강좌 안내

본 회에서는 부산·경남·대구·경북지역 불교인구의 저변확대와 자질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법화경과 교양한문 무료강좌를 하고 있으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아 래 ●

■ 부 산
1 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
2 장소 : 좌천동 우체국옆길·파란들가구3층 (한국승가대학원 부산강의실)
3 전화 : 051)633-6224

■ 대 구
1 일시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2 장소 : 신암2동 강남 APT 정문 서쪽 2층 (한국승가대학원 대구강의실)
3 전화 : 053)952-8711

※ 부산·대구 - 교재·회비 일체 무료

한국승가대학원
책임교수 최 광 영
0502-952-8711
017-501-8711

염불 禪 주말 수련회 (토요일 저녁9시 / 일요일 아침7시)

와서 보라! 수행비전의 완벽한 테크닉을!

- 목탁치지 않고 자성의 운률에 맞춰 힘차고 박력있게 경쾌하고 신명나게 재미있고 리드미컬하게 행주좌와 동정간에 자동으로 염불되고 단전호흡되는 한국불교 전래이래 처음 공개되는 염불禪 수행법
- 큰소리로 장시간 염불해도 절대 목이 아프거나 쉬지않고 오히려 목소리가 트이며 말더듬, 실어증이 극복되고 가슴이 탁트여 시원해지며 피로감을 못느낀다.
- 염불 수행시 허가 이완되어 입천장을 탁탁치면 대뇌가 각성되어 또렷또렷해지며 졸음과 혼침이 극복되고 침은 저절로 넘어가며 중단전의 맺힌 기가 풀리며 스트레스는 저절로 해소되고 올곧은 자세가 계속 이어진다.

♣ 근심 걱정의 악업이 가슴에 맺힌 한이, 병고액난의 괴로움이 번개처럼 녹아내리고 문제해결의 지혜가 순간 떠오르며 간절한 소원은 즉각이루는 기도 수행시 가장 용이한 염불법이다.

- 독경을 잘하려면 세로쓰기 한글 경전을 한줄씩 읽고 왼손가락을 하나씩 헤아리면 오른뇌의 직관이 열리며 집중력 기억력 좋아지고 번뇌망상의 잡념이 현저히 줄어들고 또렷또렷하고 정신맑은 상태로 독경삼매 이른다.
- 아무리 잘난척 대단한척 아는척해도 이마와 정수리에 열나고 손, 발, 배가 차가우며 배꼽주변 인중, 눈썹, 손가락사이를 눌러보아 맺힌게 있고, 통증을 느끼면 몸뚱이 하나 다스리지 못해 만병의 원인을 간직한 부끄러운 예비환자이다. 비전의 수행으로 일생 감기 몸살 안걸리고 두통, 불면증, 상기병, 화병, 위장병, 고혈압, 당뇨병이 단시일에 극복된다.

- 수행내용 : 한글금강경 봉독, 석가모니불 염불정근, 참선, 와선, 행선, 호흡에 맞춰 108배, 도인건강법, 축원기도 3회
- 예약수련 20명, 넉넉한 목장, 초심자 기본수행법교육.

※ 회비일체없음

아름다운 소리산 물빛고운 소금강 법왕정사 수행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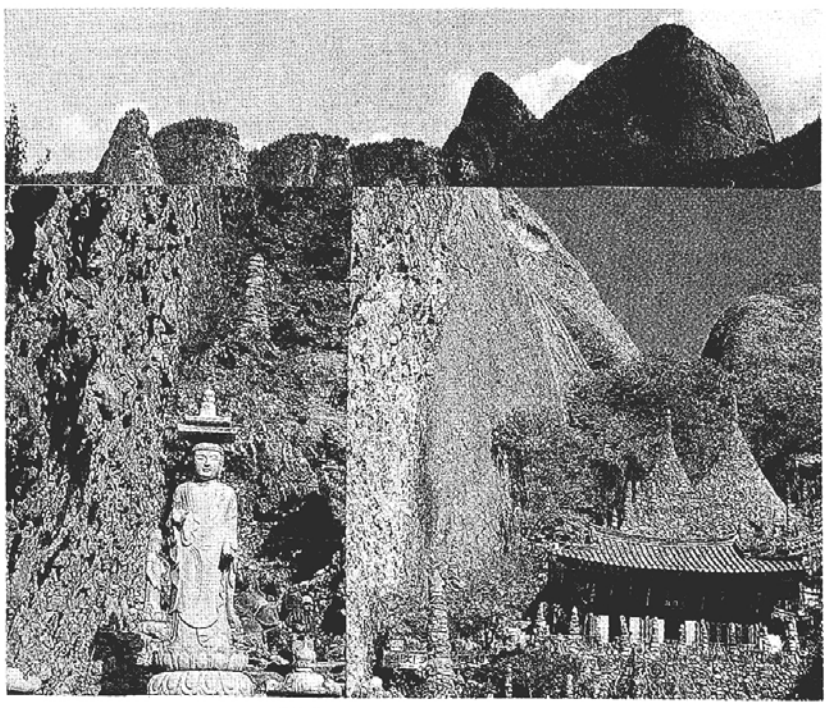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인이피 마을) 소리산 참선캠프

수행전문상담전화 (0338) 71-7745 (오후 1시~8시)

금강산처럼 수려한 소리산 16만평의 영지에 위치한 청정한 수행전문도량임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탑영제 방생 탑사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찾아오시는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40분 M 마이산
광주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0655)33-2900,0303
32-0652,0072

IMF 넘는 지혜 팔만대장경 속에…

'21세기 디지털대장경을 만들자' 캠페인

글꼴·입력프로그램 연내 개발 무난
자동교정 작업·인터넷 서버도 구축

'21세기 디지털대장경을 만들자.' 캠페인에 힘입어 디지털대장경의 틀과 도구가 될 글꼴·입력프로그램 등의 연내 개발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경에 사용된 한자글꼴 개발에 주력해 온 대장경연구소는 지금까지 이체자를 포함한 한자글꼴 61,379자, 한글 자형 45,476자, 산스크리스트어·팔리어 등 기타 문자 5,573자 총 11만2천4백2십8자를 개발했다. 또 이 글꼴들을 사용할 수 있는 고려워드 개발도 10월중 개발된다. 고려워드는 중국 정마입력법과 음(音)에 따른 입력, 부수(部數)와 획수(劃數)에 따른 입력방법 등 다양한 한자 입력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편집도 용의하다.

이와 함께 대장경 1차 교정작업을 토대로 한문 자동 교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년 동안 70여명의 전문 교정인하는 일을 3개월만에 대장경 교정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8월말 개발되며 자체 시험을 거쳐 98년 하반기부터 2차 교정작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자체 인터넷 서버도 5월 구축·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상공간에서의 팔만대장경 관련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갈 방침이다.

법회후원인 명단

법융사 ▶법과스님 ▶승혜스님 ▶원과스님 ▶강용석 김연숙 강지혜 강지인 강지상(경기 성남) ▶권오익 류평등화 권재범 권준범 권도경 김효원 윤혜정 권지윤(경기 고양) ▶김기태 박혜자 김면희 김진우 현원식 김미은 현제욱 송영민 김영희 송지현(서울 성북구) ▶김부웅 전대도행 김태익 김유정(경기 수원) ▶김시연 한미경(서울 서초구) ▶김영수 최의남 김두현 Z 장현(서울 송파구) ▶김오구 허양육 김현모 김윤모 김종모(경기 성남) ▶김중기 정대혜성 김종헌 김미정 김종진 서정영(서울 송파구) ▶류시영 이무상각 류정하 류이주(서울 송파구) ▶문재웅 변대자월 문정흥 문진경(서울 광진구) ▶박은수 윤체자 박유진 박명주(서울 송파구) ▶박호동 이공덕인 박노준 이유정 박남규 박상헌 윤성미(서울 송파구) ▶서정숙 이종주 이종란(서울 송파구) ▶신영우 김옥임 신운성 신원성 신용성(경기 성남) ▶신제덕 안희숙 신동현 신명선 신현정(서울 송파구) ▶이광규 박화자 이봉학 이승학(경기 성남) ▶이규협 이옥란 이승진 이은재(서울 강서구) ▶이병규 박순희 이세규 이숙영(서울 송파구) ▶이응원 이요익행 이정환 이준환 이수연(서울 서초구) ▶전병찬 고일승화 전상엽 전혜연 전지연 전상은 박대수 박해령 박재은 박영준(서울 강남구) ▶정혜자 권보람 권보리(서울 송파구) ▶진인화 이옥형 진승육 김미숙 진승식(서울 성동구) ▶최규정 갑기윤 최석용 송종랑 최연호 최윤혁 최길호 신연숙 최다정(서울 노원구) ▶최민섭 정옥란 최재승 최동희(서울 송파구) ▶흥용남 박승정 홍현희 홍승만(서울 송파구)

심우사 ▶강명종 박인자 강호찬(부산 수영구) ▶김경동 박경복 김은정 김세현 최현순(부산 수영구) ▶김대진 김영남 김호길 김현숙 김재관 김매화(부산 수영구) ▶김명실 송재현 양문선 송상민 송현준(부산 수영구) ▶김석룡 한옥희 김정훈 김현수 구삼연(부산 수영구) ▶김우동 김순애 김숙현 김세현(부산 수영구) ▶김칠한 이명숙 김태근 김태경(부산 수영구) ▶김형목 정귀한 김승규(부산 금정구) ▶남기원 정덕남 남영희 남주희 남덕현(부산 수영구) ▶남봉출 김광석(부산 금정구) ▶박병재 하화순 박일학 구현정 박재권(부산 수영구) ▶서수택 감금자 서주영 서명용(부산 수영구) ▶송애림심 박성섭 최보금 박시내 김정훈 박창섭 정재미 박상현 박현지(부산 수영구) ▶이동윤(부산 해운대구) ▶이용준 김동필 이영근 최순자 이숙향 이경희(부산 해운대구) ▶전광중 삼석순 전기철 전기호(부산 금정구) ▶정자현 장정화 정인덕 정민구(부산 수영구) ▶조한곤 박분녕 조용관 강영채 조성문 조수민(부산 수영구) ▶추연학 전봉남 추정하 추경미 추혜경(부산 수영구) ▶허봉기 서정숙 허광일 허성일 허현일 한선욱 최지은 이향숙(부산 수영구)

혜원정사 ▶김형인 하성미(경남 김해시) ▶안충효 안수일 안미숙 박지일선(경남 양산시) ▶오병환 정순덕 오세윤 오영준(부산 금정구) ▶우동석 최만자 우상욱 박상록 우인순 박승수 박승현 한태현 우은주 한지아(부산 금정구) ▶김상범 김영수 김기범 김수범 김철범 신선자(부산 금정구) ▶류범석 심보소월 최원필 류성연 류민정(부산 금정구) ▶김을출 정실상화 김만흥 김만성 김만용 서영자 김희수 방진영 김성녀 김지훈 김은준(부산 금정구) ▶이지훈 박광명화 이참희 이용희 이장은 이수은 홍영애 서경숙(부산 금정구) ▶성무상성 김태복 허혜숙 김창영 김문주(부산 금정구) ▶최기영 문일심행 최지원 박현선 최은경 최용우(부산 금정구) ▶박한종 이광명심 박성혁 박민정(부산 금정구) ▶권용진 서보덕행 권구택 환순애 권우람 권한솔(부산 금정구) ▶정학준 정현호 박성덕화 정서영(부산 금정구) ▶정송공월 김성안 정심덕화 김연태 김학구 김종하(부산 금정구) ▶송귀은 오도일심 송봉조 송미정 송봉창(부산 금정구) ▶문우삼 박선심화 문기진 이지형 문자진 문성현 문준희(부산 금정구) ▶성기수 김태영 강미경 김태철 김태형 김재영 김호영 김우명 김준영(부산 금정구) ▶김재환 김진실명(부산 금정구) ▶김삼룡 신묘임 김우연 신원현 서순이(부산 금정구) ▶허정 조취향 허성무 허양무 허성희(부산 남구) ▶신덕희 문윤자 우상철 우임순(부산 동구) ▶윤영만 박정광화 윤민수 윤난혜 이운성 윤성혜 이재훈(부산 동구) 안종표 송정정행 안기범 안감법 안희정(부산 동래구) ▶신상덕 박현선수 신경훈 신경일 김위숙(부산 동래구) ▶강관후 하여래심 강완수 이경야 강문경(부산 동래구) ▶동형련 박수완 박경환 박민정(부산 동래구) ▶김진감 강성례 김용태 김태연(부산 동래구) ▶황일연 이순호 황상현 황혜원 황선옥(부산 동래구) ▶서기순 김종숙 박재열 김명순 박선신 박선건(부산 동래구) ▶홍종만 김정자 홍인주 손지혜 흥혜숙 박준서 구영진 홍원광(부산 동래구) ▶신철식 이말분 신용정 유정미 신현진 신용도 이임숙 신용득 하미정 신유승 신민준(부산 동래구) ▶정현규 남상일 정호석(부산 동래구) ▶추선금 이현구 이화영 이주영 이선민(부산 동래구) ▶배종욱 김광명화(부산 동래구) ▶하성미 한선정인 하동효 하은정 김병돈(부산 동래구) ▶이박 노숙희 이지영 이미리 이기연 이승훈(부산 동래구) ▶송종훈 하성희 송하윤(부산 동래구) ▶박성만 조일륜심 박석곤 박희숙(부산 동래구) ▶김상용 박지월성 김환진 김영균 김영미(부산 동래구) ▶하대봉 성원각심 하영희(부산 동래구) ▶변희성 변성재 변선혜 송흥자(부산 동래구) ▶김정법 최옥자 김천 김준 김석 김경 최은하(부산 동래구) ▶전대상월 류창하 류방하 류정훈 류승엽 류지원(부산 부산진구) ▶장기성 김유산(부산 부산진구) ▶정강수 황영자 정용훈 정용우 정미순 (부산 부산진구) ▶홍정덕실 배영상월 배청량심 유성준 민문식 배도광월 김면수 내경연 이상영 배상일(부산 북구) ▶서무금 정진모 정흥모 정현모 김미순 김경옥 김금옥 정지세 정석재 정현재(부산 북구) ▶이승재 곽정심행 박승찬 박승경 박승현(부산 사상구) ▶김경실 채화자 김근영 김양국(부산 사상구) ▶허종수 이복윤 허정도 허효진(부산 사하구) ▶서영법 서창건 서창우 유경희(부산 서구) ▶박종천 김무상궁 박하향(부산 서구) ▶하원중 이경림 하영신 하정준 하용태 이정숙(부산 수영구) ▶도종덕 전만덕행 도원육 도명성(부산 수영구) ▶강임규 반미경 강은희 강민주 강성식(부산 수영구) ▶배성열 권언중 백주영 배수범(부산 수영구) ▶박벽봉 하묘법심 박지광 박영여행(부산수영구) ▶김용수 정보현행 (부산 수영구) ▶박두환 박년조 박신영 정광자(부산 수영구) ▶하영찬 문인행성 하능인해 하민균 정덕임(부산 수영구) ▶김육태 김영원 조숙남(부산 연제구) ▶서영기 고문수행 서동수 황성희 서윤희 서대범(부산 연제구) ▶배종원 김갑연 배지윤(부산 연제구) ▶한은정 이상익(부산 연제구) ▶김호성 박숙자 신훈기 신춘광 김미숙 신창기 구미선 신재우 신재헌 신영훈(부산 연제구) ▶손우영 강대원 김남숙 강기오 강병오(부산 연제구) ▶김종성 이정순 김태헌 김희정 김수미(부산 연제구) ▶김용환 신대명심 김근우 김현철(부산 연제구) ▶정동국 전보운장 정해성 정대성 허순욱(부산 연제구) ▶김민정 윤성영 윤정희 윤희장(부산 연제구) ▶이수조 유무임 이지예 이종훈(부산 연제구) ▶하재경 김남영 하혜진 하형진 하상진(부산 연제구) ▶장말순 최근식 김삼매행 최희봉 박수영 최용석 최원기 최소영(부산 연제구) ▶김경영 최자재행 김태진 김수현(부산 연제구) ▶정태인 정성호 정성윤 정대근 정대호 강상연(부산 연제구) ▶이용우 신영숙 이상진 이상경(부산 연제구) ▶김준식 이순중 김태호 이필향 김태홍 최명희 김규남 김근남 김희영 김경량(부산 연제구) ▶김법천 제성심지 김민정 김수정(부산 연제구) ▶서윤식 양법광월 서동욱 서은진(부산 연제구) ▶정근식 유분자 정혜윤 정원석(부산 연제구) ▶박명복 오상술 박은애 박영규(부산 연제구) ▶윤귀자 김찬기(부산 연제구) ▶김철규 박보리심 김태욱 김희연(부산 연제구) ▶한성길 이정순 한창현 한동희 한유화(부산 연제구) ▶박진석 문경란 김두선 문영복(부산 연제구) ▶한병필 유명에 한창우 한창우(부산 연제구) ▶조용복 박무심월 조문기(부산 연제구) ▶손성현 조말조 손영채 손만주(부산 연제구) ▶최병세 김선도 최성득(부산 연제구) ▶임성오 김청량명 임창학 임윤희 윤희장(부산 연제구) ▶이종도 이귀숙 이재화 이재희 이정화 이화선(부산 연제구) ▶오주흥 이수연 오소영 오은정(부산광역시 연제구) ▶강건주 박은숙 강명진 강승욱(부산 연제구) ▶오영구 이묘광월 오정후 오동환(부산 연제구) ▶이연웅 김정자 이현경(부산 연제구) ▶박정호화 김봉리(부산 연제구) ▶김덕숙 심송학 심무학 심순희(부산 연제구) ▶이치우 임법혜광 이현주 이현숙 이경렬(부산 연제구) ▶이상인 이두희 이봉희(부산 연제구) ▶최성락 이행순 최재익 최재식(부산 연제구) ▶이동인 김금옥 이희원 이경희 이숙희(부산 연제구) ▶최동식 김순연 최광림 이숙자 최성관(부산 연제구) ▶손창수 오복남 손인대 손원창 손인만 손은식 송귀식(부산 연제구) ▶박해균 허순금 박점석 박경연 박기연 정은영 박소연 박수진 박진우(부산 연제구) ▶정영춘 김희자 정현주 장운석(부산 연제구) ▶손재의 하보문심 손민호 손보건(부산 연제구) ▶손복기 안윤효 우지화 안인효 안혜란 이성호(부산 연제구) ▶김환조 정묘원심 김성수 길석환 박춘자 김무등화 김세훈 길정훈(부산 연제구) ▶김동진 이옥루 김정훈 김희진(부산 중구) ▶김덕용 정금감장(부산 중구) ▶이성수 김경희 이영훈(부산 해운대구) ▶박복명 오동규 오동원 오동현(부산 해운대구) ▶홍성규 신선덕화 홍기영 홍유정 홍화영(부산 해운대구) ▶김재연 강원오화 김도형 김현정 김수정 최악지(부산 해운대구) ▶김진갑 박영자 서은숙 김민재(부산 해운대구) ▶성법섭 반혜경 성기원 성기꽃(부산 해운대구) ▶박순사 손보운화 박연상(부산 해운대구) ▶황성옥 박인명심 환정욱 황나영(부산 해운대구) ▶김승원 김은아 김세환 김용환(부산 해운대구) ▶허수석 이지비화 허진호 허은정(부산 해운대구) ▶안규길 이영자 안성현 안유희 안정민(부산 해운대구) ▶박정순 김용은 김병곤(부산 해운대구) ▶최홍춘 조을연 최광록 최연우(서울 송파구) ▶이재세 조숙현 이유진(서울 종로구)

일반 ▶진송스님(충북 충주시) ▶서선스님(충북 청원군) ▶의화스님(경기 양평군) ▶준수스님(경기 남양주시) ▶원민스님(경기 남양주시) ▶조정숙 김근중 최경화 김진우 김건협 김주희 김태균 최혜연 김수영 김지영(미국 매틀랜드) ▶이강윤 조길상화 이홍재 강한상 이현경 이현정(미국 매틀랜드) ▶현종태 조정자 현유진 현소희(미국 매틀랜드) ▶조동성 윤성순 조영수 조성재 조만재 이순재 정혜숙(경기 고양시)

대장경연구소 (02)797-0585
http://www.sutra.re.kr

참여 권유의 말

"호국정신 담는 거룩한 불사"

효명스님



팔만대장경전산화는 미래라는 새로운 공간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는 거룩한 불사입니다.

디지털의 세계, 그 무한 정보의 세계속에서 새로이 태어나는 팔만대장경은 세계인에게는 인류문화유산으로, 우리에게는 민족사속에서 면면히 이어온 국난극복의 호국 정신으로 모두에게 회향될 것입니다.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세계인의 대장경으로 누구나 손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 미래대장경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뜻깊은 불사에 우리 신도님들과 함께 동참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 모두의 조그마한 후원이 전산화 작업의 후원이 되고 나아가 인터넷속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부처님의 모습으로 하루 빨리 태어나기를 함께 기원합니다.

〈부산 혜원정사 주지〉

"미래 인류문화 발전의 초석"

원정스님



21세기 매체, 컴퓨터를 통해 부르면 나타나는 부처님의 모습(化身)으로 새로이 태어나는 팔만대장경 전산화 작업은 과거 몽고침입이라는 국난극복의 정신을 우리시대에 계승하는 민족불사입니다.

미래세대인 우리의 자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고 배우며 함께 하는 우리문화의 세계화 작업인 팔만대장경 전산화는 불교계는 물론 인류문화사 발전의 초석이 되는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며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성스러운 작업이기도 합니다.

IMF 고통을 이겨내는 지혜의 힘을 다시 모으는 팔만대장경 전산화 작업에 사중 모든 분들과 함께 동참하게 되어 기쁩니다. 보다 많은 신도님들이 함께 동참하고 하루속히 원만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창원 성주사 주지〉

청년불자 통일운동 열기

남북국민의 화합으로 통일정토를 완성하려는 청년불자들의 열의가 확산되고 있다. 90년대 이후 청년불자들의 통일운동은 대북식량지원, 민족의 동질성 회복 등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으며 빼놓을 수 없는 신행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청년정토회 탁아소지원·북한알기 캠페인
청년여래회 비전향장기수 사회적응 도와
대불련·대불청 북동포돕기모금·비료보내기

지난 6월부터 북한 나진탁아소에 월 17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청년정토회(회장 박남규)는 매주 모금함을 들고 서울 명동일대를 삼삼오오 짝을지어 돌아다니고 있다. 또 지하철 2·4호선에서 '북한 상황 바르 알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박회장은 "탁아소 지원금은 회원들의 성금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통일의 힘은 몰질보다는 마음에 있습니다. 힘든 가두모금과 전철 캠페인을 하는 것은 이 때문이죠"라고 설명했다.

청년여래회(회장 백도영)는 출소한 비전향장기수들의 사회 적응 및 생활을 돕기 위해 매월 정기 산행을 갖고 있다. 백회장은 "이데올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여전히 보호감찰 대상자로 살고 있지만 산행중의 짧은 대화에서 사상의 벽보다는 인간애 동포애를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여래회는 광복절을 맞아 12일 성동구민회관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도 열었다.

대한불교청년회 경기지구(지구장 박법수)와 서울지구(지구장 최윤선)는 지난 4월부터 '비료 한 포대 보내기 운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모아온 5백여만원의 성금은 15일 임진각에서 열린 '민족화합통일기원대법회'에서 불교추진위원회에 전달했다. 박지구장은 "대불청 산하 통일추진위원회가 있지만 아직 미미하다"며 "10월중 대불청 각 지구별로 '통일일꾼'을 선발, 교육시키는 한편 방북신청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불련 부산지부(지부장 임혜진)도 지난해 4월부터 북한동포돕기 모금운동을 전개해 4천여만원의 성금을 모금, 수차례에 걸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와 적십자에 기탁해 오고 있다. 임지부장은 "땅이 합해진다고 통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의 마음을 알고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통일이죠"라고 말했다.

유지원 대불련지도위원장은 "90년대 이후 통일의 방법론을 고민해온 청년불자들은 북한의 식량난 해결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지원이 효과적인 통일 운동의 방법이기는 하나 통일운동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오증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통일부처님 입북 무산

지선스님 방문 취소돼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9일 오전 10시,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염불 정근 소리가 메아리쳤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들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박성철)의 '한국불교 1600년대회'에 참여했던 대학생불자 4백여명.

통일을 염원하며 이곳에 봉안한 통일부처님의 접안식을 지켜보는 대학생 불자들은 시종일관 합장 염불을 계속하며 부처님께 통일의 도력을 불어넣고 있었다.

높이 60㎝ 금동좌불인 통일부처님에는 사경한 통일반야심경도 복장됐다.

대불련은 11일 지선스님(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통해 북경을 경유, 통일부처님 입북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주부신행담 — 너무나 소중한 만남 ③

'삶은 苦가 아니다' 읽고 감동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발원

이제 우리 가족은 첫딸을 비롯해 쌍둥이들과 막내딸까지 여섯명이 가난하지만 화목하게 살고 있다. 지금도 남편은 전처럼 지나치게 과음하지는 않아도 가끔씩 주사를 보일 때가 있다. 그럴 땐 관음정진을 한다. 아무리 성난 파도라도 잠잠해질 때가 있다는 기다림으로 관음정진을 하며 내 마음을 다스리다 보면 남편도 잠잠해진다. 너무 무던하게 지내는 것이 어이가 없는지 때로 남편은 "너무 바가지를 안 긁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건데…"라며 투정아닌 투정을 부리기도 한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인과의 가르침이야말로 그지없이 고맙다. 지금 빠듯하게 살고 있는 삶은 전생에 보시하지 않은 탓이니 현생에선 열심히 보시의 덕을 쌓으리라 다짐해본다. 물질로선 어려운 형편이니만큼 따스한 미소, 정다운 눈빛, 타인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하는 삶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올해들어 믿음이 더욱 간절해졌다. 신앙생활의 깊이를 더하게 된 계기가 다름 아닌 아버지가 병환으로 돌아가신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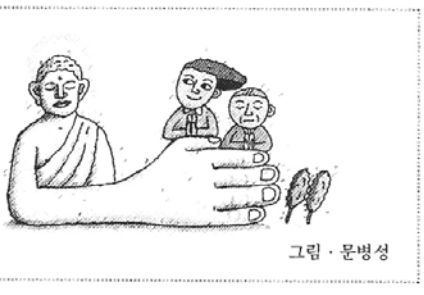
항상 공기처럼 물처럼 하늘처럼 계시던 아버지께서 사월초 병이 나셨다. 처음엔 감기인 줄만 알았는데 기침이 오래가고 병원진단결과 폐암말기였다. 수술조차 어려운 시기여서 집에서 오빠의 정성어린 한약 투여와 어머니의 따스한 보살핌으로 목소리조차 꺼져가던 분이 다시 회생하시는 듯 하다가 결국은 먼곳으로 가셨다.

아버지가 한창 앓으실 무렵 우연히 내가 보낸 글이 MBC에 방송되었고 그 인연으로 불교방송을 알게 되어 열심히 들었다. 하루는 한 화장품가게에서 우연히 현대불교신문을 접하고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얼마 뒤 정기 구독을 신청하였다. 그 가게에서 빌린 대행큰스님 테이프를 집에서 듣고 있던 중 어머니가 마침 오시더니 어머니 역시도 너무나 가슴에 와 닿는다고 하시며 그 테이프를 빌려가셨다. 아버지께서 큰 병을 앓고 계시니 간절한 마음에 스님의 법문이 큰 울림을 주셨나 보다.

초여름이었다. 앓고 계신 아버지께 죽을 드리고 난 다음 어머니는 새벽같이 안양 한마음선원에 가셨다. 전날밤 목욕하시고 참선을 마친 후 주무시던 어머니는 두분의 부처님이 황금빛 찬란하게 나투시는 꿈을 꾸셨다. 두 부처님 가운데 한 분은 누워계셨다고 한다.

큰스님을 직접 친견하여 말씀을 듣진 못했지만 한 스님의 도움으로 '주인공만이 건강하게 할 수 있어' 하는 구절과 〈삶은 고(苦)가 아니다〉라는 저서와 테이프 몇 개를 얻어 오셨다. 어머니는 먼발치에서 큰스님을 뵙고 눈이 마주쳤으니 친견한 것이라 믿고 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열심히 관하며 생활하시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머니의 영덩이에 큰 물혹이 생겼다. 어머니는 참선을 더욱 열심히 하셨다. 하루는 참선 중 버락이 치고 번갯불이 온 몸으로 섬광을 일으키며 어머니 몸을 훑고 지나갔다고 했다. 그리고는 크게 만져지던 어머니의 혹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걸 보시고 아버지께서도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 병마와 싸우시며 거의 잠시도 몸을 땅에 누이지 않고 '주인공만이 건강하게 할 수 있어'를 화두삼아 앉아 계셨다.



그림·문병성

돌아가시기 전날 밤, 아니 바로 돌아가시던 날이라고 해야겠다. 밤 한시가 넘었으니. 나와 남편은 친정저비에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 그날 남편은 술을 좀 마셨다. 남편의 술마신 모습을 부모님께 보이기 싫어서 한밤중에 가지 않으려다가 꼭 가야만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 집으로 갔었다. 아버지께선 언제나처럼 앉아 계셨다. 덥다고 하시며 윗도리엔 런닝도 입지 않고 아랫도리만 입은 채 가져간 토마토 반쪽을 드시곤 예의 주인공 글귀만 보고 계셨다. 안스러운 마음에 아버지의 온 몸을 주물러 드렸다. 아버지의 온몸은 얼음장 같이 차가웠고 손·발톱은 새파래져 있었다.

김정숙〈구미시 선산읍 생곡동〉

강제징용 떠도는 영혼을 아십니까

BBS '오사카에 핀 무궁화…' 16·23일 방영

불교방송(사장 성낙승)은 8·15 광복 53주년을 맞아 무연고 조선인들의 유골 수습활동과 잊혀져가는 유골 송환의 현실을 일본 고려사에서 직접 제작한 다큐멘터리 '오사카에 핀 무궁화, 고려사'(담당PD 한지윤)를 16일과 23일 2회에 걸쳐 방송한다.

"백만 조선인들의 강제징용의 역사와 고려사에서 전개하는 위령사업을 소개한 제1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16일 방송돼 청취자들에게 유골이 돼서도 아직 고국땅을 밟지 못하는 우리 조상들의 슬픈 현실을 잘 전달해 줬다.

23일 오전8시25분부터 오전9시까지 방송될 제2부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에서는 유골 봉환과 관련 조총련 산하 조선불교도연합과 민단 산하 한국불교도연합의 입장과 해결에 대한 노력, 유족들의 목소리를 통해 잊혀져 가는 유골 송환의 현실 등을 마이크에 생생하게 담아냈다. 30여년간 한국인의 혼을 돌봐온 태연스님(대한불교조계종 재일 총본산 관장)의 활동도 소개한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방송소식

btn 직원 12명 보강

불교TV(사장 정우스님)는 3명의 아나운서를 비롯한 PD, 조명기사 등 방송 제작요원과 문화사업단 사업부 직원 등 총 12명을 보강했다.

이번 채용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아나운서 3명과 문화사업부 6명. 불교TV는 장웅(28), 정수진(25), 유아정(24)씨 등 3명을 선발해 현재 btn뉴스와 '불자수첩' 프로그램 등을 진행시키고 있다.

6명이 늘어난 20명의 문화사업단은 '납골당분양' 등 수익사업에 나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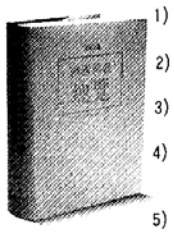
발전기금 출연 결의

불교TV 정기이사회

불교TV(사장 정우스님)는 12일 마포 가든호텔에서 제22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현 이사는 5천만원~1억원, 새 이사는 3억원을 각각 출연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 이사 27명중 종단이 참여한 이사는 1억원을 개인자격의 이사는 5천만원을 불교TV 발전기금으로 추가키로 했으며 새로 영입된 12명의 이사들은 불교방송의 이사 출연금 3억원에 준해 납부키로 했다. 이번에 출연하는 이사들의 발전기금은 9월 14일부터 실시하는 '제5차 주식공모'시 주식으로 전환된다.

한국불교의 현황을 집대성한 1998년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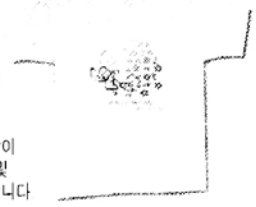
1) **한국불교의 현황** : 최근의 한국불교계 흐름을 약술
2) **종단** : 불교종단 50여곳의 현황을 수록
3) **법인** : 불교관련 법인 150여곳의 현황을 수록
4) **불교단체 / 기관** : 불교 단체 및 기관 4,000여곳의 현황을 수록
5) **불교관련업체** : 불교관련 업체 1,000여곳의 현황을 수록
6) **사찰** : 국내외 사찰, 포교당 13,000여곳의 목록을 수록.
7) **인명** : 승가 및 재가불자 어명의 개인 인명자료를 수록
8) **불교문화재** : 초판 이후 추가 지정된 200여건의 불교관련 문화재 목록을 수록
9) **불교도서논문** : 초판 이후 추가 간행된 3,200여건의 불교관련 단행본 및 박사학위논문 목록을 수록
10) **한국불교연표** : 초판 이후 한국불교 관련 사건을 수록

4×6배판 / 1144쪽 / 양장제본 / **정가 1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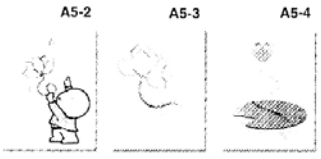
불교디자인 티셔츠

천진한 동자의 맑은 세상
비쌀기 , 연꽃나팔 등
본지에서 제작한
동자 캐릭터 및
연꽃 문양으로 디자인
한 면 티셔츠 여름
수련대회및 각종
행사용으로 주문 제작이
가능하며 사찰 이름 및
단체명 인쇄가 가능합니다

A5-1



A5-2 A5-3 A5-4



가격 : 아동용 ₩ 5,500/성인용 ₩ 6,500(9도 칼라 인쇄)

법성계 걸망



A12

크기 500×460 (㎜)
색상 회색, 빔색, 진베이지색

가격 : ₩ 15,000

생광석 108염주

생광석에서 방사되는 세포 활성 에너지에 의하여, 생광석 108염주와 밀착된 부위의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다음과 같이 건강에 도움을 드립니다



A13

1 손에 쥐고 기도하시면 손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지며
2 목에 거시면 목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집니다
3 어깨 부위에 올려 놓으시면 어깨 결림이 현저히 줄어들며
4 팔목이나, 팔에 감으시면 팔목이나 팔의 통증에 큰 도움이 되며
5 피로기 쉽신 덜하고 기분이 상쾌하며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가격 : ₩ 35,000

관세음보살보문품 족자

이 경전은 관세음보살이 32가지 모습으로 나투시어 자비로 중생의 재난을 구제하고 소원을 모두 이루어 주신다는 절대신앙을 바탕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보문품이 널리 득송된데는 다음과 같은 까닭이 있는데, 이 경전을 외우고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 일곱 가지 모진 재난을 피하고, 탐, 진, 치의 삼독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소원이 원만하게 이루어 진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중생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관세음보살은 32가지의 모습으로 화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부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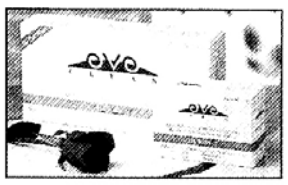
A11



색상 진녹 검정 비탕색에 금색 인쇄
크기 55㎝(가로) 140㎝(세로)
재질 기모지
특징 색이 번하지 않음

가격 : ₩ 30,000 (족자걸이 포함)

우리 기술로 만든 한방 미용 비누



A14

가격 : ₩ 18,000
(1세트 : 3개)

- 독특한 향+부드러운 촉감+미용과 면역기능
- 피부미용에서 미백효과는 물론 자연면역기능까지
- 한방 재료 추출물을 첨가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성 신토불이 비누 · 99.9% 천연 소재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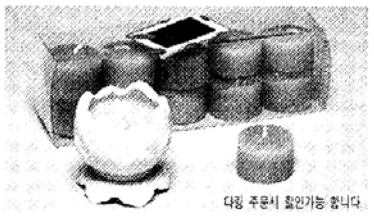
■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기 영**
"오보크린"은 공해로 인해 오염된 피부를 깨끗이 씻어내고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뿐만 아니라 우수한 항균력과 면역기능까지 부여한 항산화영양학적 고기능성 건강미용비누라고 생각합니다

■ **키톨리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이학박사 김 영 주**
더기 및 실내에 산재된 각종 유해 중금속입자 및 오염물질들을 신속하게 제거해 주는 "오보크린" 건강미용비누는 이들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해 준 것이라 기대됩니다

■ **강원대학교 축산가공학과 교수 이학박사 최 면**
서연비누는 미용및수용이지만 "오보크린"처럼 과학적으로 입증된 항균성물질과 피부노화방지 물질 등을 천연소재로부터 추출하여 첨가한 "건강기능성비누"는 저시대 아이디어 상품이다

도자기 연꽃 향초

은은한 향기와 함께 세상을 밝히는 도자기 연꽃 향초! 가정의 장식용 소품으로도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 주문시 칠인가능 합니다.

- 도자기 안에 있는 초를 모두 사용 하신후 낱개 초를 넣어 계속 사용할수 있습니다.
- 향꽃이로도 사용할수 있습니다

크기 가로 5.5㎝, 세로5.5㎝

가격 : 도자기 연꽃 향초(레몬향) ₩ 3,000
향초(라벤다향) 1set(10개) ₩ 5,000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한국 전통 미술의 백미를 현대 미술로 재현하여 귀한 분들께 마음의 선물로 전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A4-1 A4-2 A4-3



공동품형 개금형 브론즈코팅형

재질 100% 청동
종류 브론즈코팅형, 골동품형, 개금형 크기 40.5 ㎝

가격 : ₩ 350,000 (코팅형, 골동품형)
₩ 580,000 (개금))

묘법연화경 책자

언제 어디서나 휴대할수 있는 포켓용 경전 입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경우 원하는 문구를 책 뒤에 넣어 드립니다



크기 4.5 (가로)㎝, 6.2 (세로)㎝ , 547쪽

가격 : ₩ 4,000

부다피아 쇼핑몰

http://mall.buddhapia.co.kr

부처님의 말씀과 향기를 느끼실 수 있는 기회를 부다피아 쇼핑몰에서 만나세요

주문방법 : 전화및 팩스로 주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TEL:02-732-1522 / 737-8881, FAX:02-737-0697)

배송 : 구매하신 제품은 입금 확인 후, 7일이내에 전국으로 배송해 드립니다.
(50,000원 이상 구입시 무료 배송) ※ 다량 구입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기도 청자 세트

하나 하나 도공이 직접 구워낸 이천 기도 청자 세트
· 양,음각 세공을 도공의 손으로 직접 조각하였습니다.
· 제품 하나마다 도공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 제품마다 정성이 가득합니다



용 도
- 추석 등 명절 선물용, 야외 기도, 가정 기도, 제사, 선소등 용도다양

포장재질
- 천연 오동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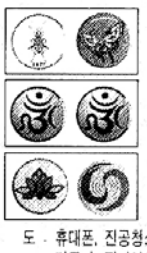
규 격
- 청자향로(8㎝×5㎝) 1개
- 청자촛대(6㎝×4㎝) 2개
- 양초, 향 각 한질, 촛대 바람막이2개

가 격 : 1세트 ₩ 25,000

신상품

유해 전자파 보호장치

인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수 있는 전자파, 우리주변에서 항상 건강을 위협하는 수맥의 공포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
· 인체공학적 생체 리듬 보호, 휴대폰 수신 감도 증가
· 붙이기만 하면 되는 판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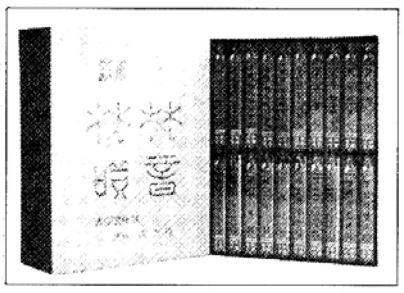


용 도 : 휴대폰, 진공청소기, 믹서, 컴퓨터, 전기면도기, TV등과 수맥방지가 필요한 모든 장소

규 격 2개 1세트 가 격 9,000원

신상품

문구암스님 기도집



인간문화재 문구암 스님께서 직접 녹음하신 카세트 테잎 1질
· 불공의식, 삼신이운, 영신작법, 대령, 관욕의식등 분야별로 녹음되었습니다.

가 격 : 50,000

신상품

화엄큰스님의 祖師西來意 달마도 보급

(순금 패스포트로 만들었습니다)

화엄큰스님 달마도를 항상 가까이 두고 공부한 덕으로 심신의 건강을 가꾸시고 지혜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순금 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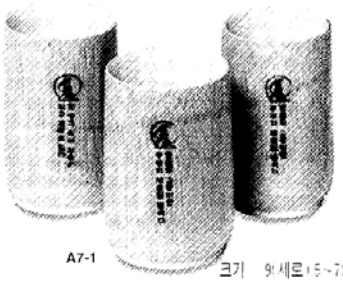
특 징 순금을 최대한 얇게 펼아 주머니속, 지갑속에 넣어다닐 수 있게 제작하였습니다
재 질 순금99.9%
크 기 5.2㎝ × 7㎝

가 격 : ₩20,000

신상품

대나무 잔

완전 자연산 대나무로 가공한 제품 대나무 한 마디를 가공 하므로 크기(지름)는 일정치 않으며 차와 대나무 향이 어우러진 치 맛이 일품 입니다 브시를 원하시는 경우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단 외쪽 인쇄이며 10자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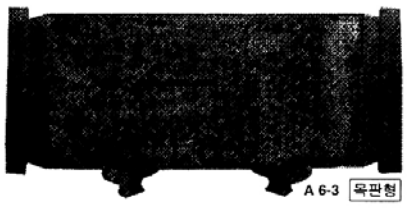
A7-1

크기 9(세로)×7(지름)㎝

가격 : 낱개 ₩ 8,000

금강경 대장경판

금강경 전품을 입체 시경후 판각한 성보 대장경판 다양한 경판의 느낌을 주기위해 목판형, 청동형, 골동품형 등 6종의 경판을 제작 하였습니다



A 6-3 목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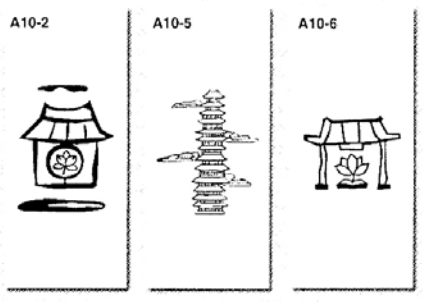
재 질 : 100% 폴라코트
경판규격 : 500(가로), 260(세로), 8(두께) (단위 ㎜)

가 격 : 1개 ₩ 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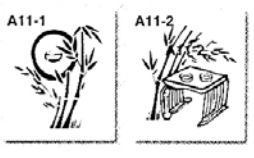
경판받침

기도포



A10-2 A10-5 A10-6

재 질 면
대(大) : 가격 ₩ 1,600
기장 84㎝ 폭 39㎝
중(中) : 가격 ₩ 1,500
기장 76㎝ 폭 39㎝



A11-1 A11-2

다포

기장 50㎝ 폭 39㎝
재질 면
가격 ₩ 800

※ 원하시는 문구를 넣어드립니다 (100장 이상 주문시)

단주 열쇠고리

다양한 칼라 디자인



A9-1

가격 : 낱개 ₩ 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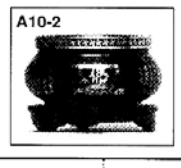
반야심경 종 차걸이

맑은 종소리가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히 해주는 제품입니다(종에 반야심경 인쇄)

가격 : 낱개 ₩ 9,000



A9-2



A10-2

반야심경 향로

청동제품으로 향로 주위에 반야심경 경전 문구 인쇄

가격 : ₩ 25,000

※ 법보시 하실 경우 할인 가능합니다.

금속 수공예 액자

지장보살께서 과거에 모든 부처님 처소에 친히 받으신 츰부다라니(중생의 온갖 지혜, 건강, 재보, 수행력, 수승한 진리 등의 힘을 증진시키는 다라니)를 범오 선생이 일심으로 염(송)하며 수공으로 직접 제작한 작품



※ 선택사항 수공에 작품이므로 다량 주문시 충분한 시간이 필요 합니다.

A8-1
재질 등
특징 수공예 작품

가격 : ₩ 45,000

불보살의 가피력이 항상 함께 합니다
늘 마음에 새기면 집중력이 생기고 마음의 안정이되며
불심이 돈독해 집니다
결혼하는 분에게 선물하면 부처님의 인연을 맺어 주는 좋은 선물이 됩니다
현대적 감각에 맞아 집안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훌륭한 작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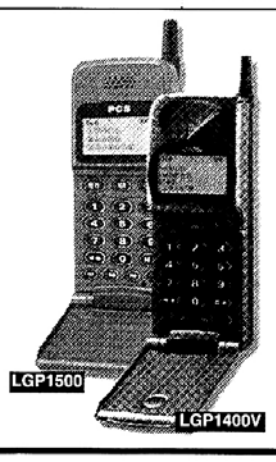
PCS 016 여름 특별할인 한정 판매

(02) 732-1522
8월 21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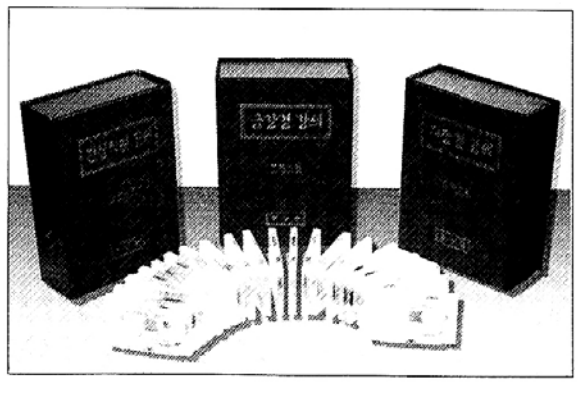
단말기 특성

1. 음성인식기능
2. 한글 화면 표시
3. 음성 및 문자 메시지 기능
4. 플립내장 마이크(PCS폰)
5. 개성에 맞는 다양한 색상과 모델
6. 초소형/초경량 PCS폰(126g : 소용량)

제품명	LGP1300	LGP1500	LGP1400V
가 격 (가입비포함)	78,000	78,000	78,000
※가입비 50,000원 포함(밧데리2개)			



무비스님 특강 녹음테잎



무비스님의 경전강의를 접해 보셨습니까?
바쁜일상 생활이지만 잠시라도 시간을 낼수 있다면 혼잡한 마음을 조용히 하고 꼭 들어 보십시오.
무비스님이 직접 전해주는 감로수 같은 일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금강경 강의 : 테잎20개 45,000원
- 지장경 강의 : 테잎20개 45,000원
- 진심직설 강의 : 테잎20개 45,000원

신상품

법회안내



지관스님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원장) 30일 오전 10시30분 청계사 포교원 광명사 초청법회. (0344)978-9782



종석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26일 수요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법당 8월 다보법회. (02)703-0108



태원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23일 일요일 오전 10시30분 동산반야회 동산교육회관 전국염불만일회 정토법회. (02)732-1215



증악스님 (보리원 주지)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원효불교대 선체조법회.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30분 다도법회.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30분 사찰요리 강좌. 매월 음력 1일 오전 10시30분 보리원 초하루법회. (053)563-9154



법상스님 (구리 관음정사 주지) 매월 음력 3일 오전 11시 초사흘법회. 매월 음력 24일 오전 11시 관음재일법회. 매월 세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가족법회. (0346)67-2812



주강현씨 (민속학자)30일 오전 10시 광명시 금강정사 8월 초청법회. (02)893-2700



장명화법사(우곡선원 원장)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정기법회.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거사림회법회. 매월 세째주 토요일 오후 5시 다보수련원 1박2일 정진법회. (02)529-5027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 캘린더

8월20일 (목)

■한국불교연구원 부산구도회 제27회 불교사상강좌=20일~25일 오후 7시~9시 구도회 법당에서 한국불교연구원장인 정병조교수와 동국대 권기종교수가 강의한다. (051)462-5062

■주일스님 선화 전시회=26일까지 백악예원에서 선화 50여점을 전시한다. (02)734-4205

■영산법화사 봉찬법회=오전 11시 장흥원당 법당에서 세계평화 불사리탑건립을 위한 봉찬회법회를 갖는다. (02)743-3011

8월21일 (금)

■이차돈성사 순교사상 재조명=오전 11시 통도사부산포교원에서 김영태 원효학연구원장이 강연한다. (051)816-2241

■대흥사부산포교원 소쩍새 마을 자원봉사 활동=오전 10시 소쩍새마을을 방문, 원생들과 함께 사랑나누기 봉사활동을 펼친다. (051)647-8744

■능인선원 8월 순례법회=오전 5시 30분 출발, 국내 3대 관음성지 가운데 하나인 남해 보리암을 참배한다. (02)577-5800

■마음의 전화 대구지부 개원식=오후 3시 대구 대원사 대웅전에서 부처님 점안법회 및 마음의 전화 개통, 상담을 시작한다. (053)625-2486

8월22일 (토)

■보조사상연구회 제16차 월례발표회=오후 2시30분 법련사 불일문화회관에서 사지(寺址)고고학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양정석씨(고려대 강사)가 발표한다. (02)733-5335

■불교귀농학교 농산물직매장 개장=오전 10시 영화사에서 각종 농산물을 판매한다. (02)723-1884

■금융결제원 불자회 가족수련회=23일까지 강화도 보문사에서 회원 가족이 함께 참선등 수련법회를 갖는다. (02)531-1070

■하이텔불교동호회 하계 수련회 및 수계법회=23일까지 속리산 법주사에서 진행한다. (0463)33-1001

8월23일 (일)

■연등국제불교회관 어린이 청소년 불교영어강좌=매주 일요일 오후 3시~4시30분 초급·중급·고급 등 3단계로 나눠 불교공부와 영어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02)735-5347

■생명나눔회 산과 산사 산행=경기 양주군 장흥면 교현리 소재 나한도량 오봉산 석굴암으로 산행을 떠난다. 주지 도일스님이 법문한다. (02)734-8050

■가산불교문화연구원 한일불교학자 학술토론회=오후 3시 대학로 우당기념관 2층에서 '불교와 불교학'을 주제로 토론한다. (02)765-9602

8월24일 (월)

■천태종 무인년 하안거 결제식=오후 10시 구인사에서 실시한다. (02)233-6210

■부산 불교 흙사랑 지원봉사단 봉사활동=27일까지 부산불교신도회 주최로 표충사 일대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051)464-2020



◇22일 서울 영화사에 불교귀농학교 농산물 직매장이 개장된다. 싱싱한 우리 농산물도 구입하고 우리 농촌도 돕자. (사진은 수덕사 농산물 직매장)



◇생명나눔회 산과 산사산행은 매월 절이 있는 산을 찾아 신심을 쌓아가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관악산 연주암을 찾은 회원들)

게 시 판

♣ 인사

동국대 경주캠퍼스 부총장 김갑주

♣ 알림

△취업 및 창업 무료법률상담=명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매월 첫째, 세째주 월요일 취업과 창업에 관련된 법률문제들을 김선홍변호사가 무료상담한다. (0371)762-8131

♣ 강좌

△법화경=조계사 경전연구강원에서는 9월 4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중앙승가대 송찬우교수의 지도로 〈법화경〉 강좌를 실시한다. 출강반과 통신과정이 운영된다. (02)720-1390

△수지침=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실습위주 수업으로 실전에 강하게 만드는 수지침 강좌를 마련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11시~12시 30분에 실시된다. (02)852-0525

♣ 모집

△불암사 불교교양대학=불암사 불교교양대학은 신입생을 모집한다. 9월 3일 개강하는 불교교양대학은 종교개론, 기초교리, 기본의식, 좌선실수, 성지순례 등으로 진행된다. (0346)65-8345

△불교입문자 교육=부산불교교육원은 9월 4일부터 시작되는 제23기 불교입문자 교육수강생을 모집한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30분 주간반과 저녁 7시 야간반으로 나눠 6개월 과정으로 실시된다. (051)466-4080

△불일교양대학=법련사 불일교양대학은 가을학기 동참자를 모집한다. 기초경전반, 어록좌선반, 기초한문반, 좌선건강반 등. (02)733-5322

△원효불교대학=대구 원효불교대학은 4개월 과정의 초급반과 6개월 과정의 중급반 신입생을 모집한다. 주간반과 야간반으로 나눠 실시되며, 개강은 9월 11일이다. (053)563-9154

△성인피아노교실=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기초자를 위한 바이엘 2개월 완성코스, 중급자를 위한 반주 단기완성 코스 등 성인피아노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전 10시~오후 7시까지. (02)817-8052

△반찬서비스, 쌀보내기 후원자=두송종합사회복지관은 재가노인 반찬서비스 후원자와 기쁨의 쌀 보내기 운동 후원자를 모집한다. (051)265-9471

♣ 답사

△해남, 강진, 진도답사=국토문화순례 터사랑은 19일~21일 해남 대흥사를 출발해 진도 충무사당, 벽파진, 용장산성, 운림산방, 남도 석성, 강진 영랑생가, 다산초당, 백련사, 녹우당, 무위사, 월남사지를 돌아오는 남도 답사 일번지 순례를 마련했다. (02)725-1284

△땅끝, 보길도=솔항공여행사는 비행기로 떠나는 땅끝, 보길도 답사를 실시한다. 대한항공편으로 광주에 도착한 후 전용 버스로 해남 등지를 둘러보게 된다. 21일~9월 19일까지 6회에 걸쳐 1박2일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02)279-5959

△영천, 대구 등 팔공산 자락=국토문화순례 터사랑은 22일~23일 영천 은해사에서 거조암, 팔공산 갓바위, 부인사, 파계사 등지를 참배. (02)725-1284

♣ 부음

△엄회섭 불교방송이사가 9일 새벽 1시 84세로 별세했다. 영결식은 13일 불교의식으로 치뤄졌으며 경북 의성 선산에 안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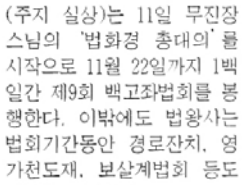
△박경훈 조계사 대승불자회 초대회장〈사진〉이 11일 저녁 6시 숙환으로 별세했다. 조계사에서 49재를 지낸다.



종단소식

조계종

통도사승가大 체육대회



11일 통도사 자장암과 극락암의 갈림길에 위치한 운동장에서 통도사 승가대 동문회 체육대회가 열렸다〈사진〉. 해제에 맞춰 매년 치뤄지는 체육대회에는 고요히 앉아 내면을 향하던 스님들의 힘찬 뜀박질과 함성이 울려 퍼졌다.

제주 본말사 주지연수

조계종교육원(원장 암도)은 제주지역 본말사 주지연수를 20~21일 제주 관음사에서 실시한다.

조계사 백두산 천도재

조계사(주지 현근) 반야여행사는 2회에 걸쳐 백두산에서 영가천도대법회를 실시한다. 1차는 14일부터 17일까지이며 2차는 9월 9일부터 9월 22일까지다. 또 신도회는 18일 백양사에서 무차선회일환으로 봉행되는 백고좌법회에 참가했다.

대구 법왕사 백고좌법회

직할포교당 대구 법왕사(주지 실상)는 11일 무진장스님의 '법화경 총대의'를 시작으로 11월 22일까지 1백일간 제9회 백고좌법회를 봉행한다. 이밖에도 법왕사는 법회기간동안 경로잔치, 영가천도재, 보살계법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태고종

49일 봉행 예수재 회향

봉원사(주지 대운)는 5월 11일부터 49일간 봉행한 생전예수재 회향식을 지난달 28일 종정 보성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2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가졌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주최 영산대재로 봉행된 회향식은 인간문화재 송암스님을 비롯 소속 스님들의 집전으로 전통의식에 의해 이뤄졌다. 이날 법회에 동참한 2천여 사부대중은 남북평화통일, 경제위기극복을 기원했다.

경북교구 주지연석회의

경북교구 종무원(원장 일우)은 5일 종무원 설법전에서 교구산하 각 사암 주지모임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난극복기원 대중보살계 산림법회 봉행안, 종단 발전기금 모금안, 실직자돕기 기금 모금안 등이 논의됐다.

천태종

금강사 노인 무료급식

김천 금강사(주지 지도)는 7월 23~24일 양일간 남산동 옛 군청자리에서 무의탁불우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했다.

하루 5백50여명의 노인에게 무료급식한 금강사는 김천사암연합회와 공조해 정기적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진각종

부산교구청 청소년수련회

부산교구청 산하 청소년수련회가 22~23일 태종대 곤포가든에서 열린다.

'진각과 시민 앞에 자주로 타 올라라'를 주제로 한 이번 수련회는 주제발표, 제제극 공연, 극기훈련, 캠프화이어 등으로 진행된다.

미타종

승려·신도 하계수련회

교육원(원장 오심)은 17~19일 거제도 이진암에서 승려 및 신도 하계수련대회를 가졌다. 연례 행사로 열린 이번 수련대회는 승려 재교육 프로그램과 신도 의식 중점 교육으로 진행됐다.

해동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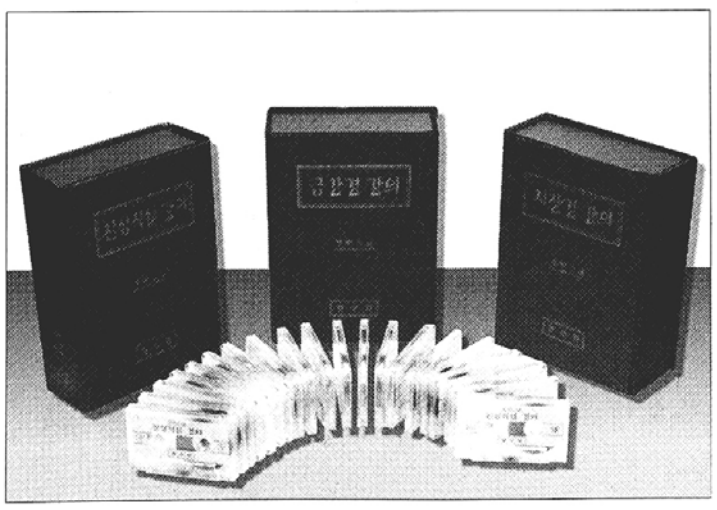
교통사고 자녀에 장학금

총본산 대원사(주지 송산, 총무원장)는 7일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에서 교통사고 생활빈곤자녀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대원사는 54명의 중고등학생에게 금일봉과 손목시계를 전달했다.

송산스님은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거나 부모가 경제력을 상실해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이웃들이 우리 주변엔 많다"며 "오늘의 작은 정성이 이들에게 삶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 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無比스님 경전강의 테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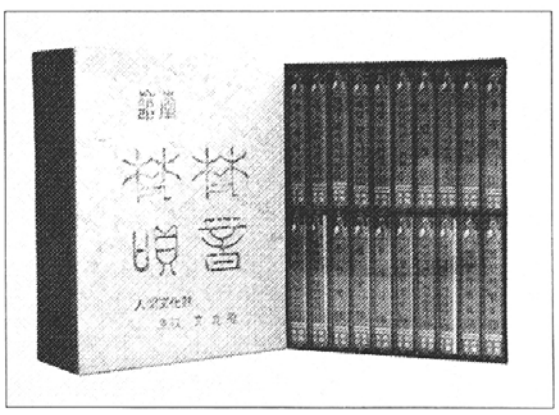
무비스님의 경전강의를
접해 보셨습니까?
바쁜일상 생활이지만
잠시라도 시간을 낼수 있다면
혼잡한 마음을 조용히 하고
꼭 들어 보십시오.
무비스님이 직접 전해주는
감로수 같은 일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강경 · 지장경 · 직심직설 - 무비스님 직접강의

● 금강경 강의 : 테잎20개 ₩45,000
● 지장경 강의 : 테잎20개 ₩45,000
● 진심직설 강의 : 테잎20개 ₩45,000

● 구입문의 : 02)732-1522 ●

문구암스님 기도집



큰스승 문구암스님께서 직접 녹음하신
카세트테잎 1질

불공의식, 삼신이운, 영산작법,
대령, 관욕의식등 분야별로 녹음

● 구입문의 : 02)732-1522 ●

"서로 장기자랑…젊은이 안부러워요"

속초종합복지관 노인대학 여름캠프 첫선

새 복지프로그램 각광

새로운 불교노인복지 프로그램이 첫선을 보여 관심을 모았다. 속초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홍)이 노인들을 위한 여름캠프를 처음으로 연 것이다.

속초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7월 30~31일 1박2일간 복지관 은빛노인대학생 23명이 참가한 가운데 양양군 공수전에서 여름캠프를 열었다. 영동지방에서 처음 열린 이번 노인캠프는 야외캠프가 청소년을 위한 행사라는 기존의 관념을 깨고 노인들간의 친목과 소속감을 확인하는데 의미가 있었다. 그간 노인 캠프는 노인들의 건강과 안전사고를 우려해 전국적으로도 거의 실시되지 못했었다.

캠프 첫날에는 참여 노인들의 신뢰감 형성을 위한 조별 만남의 시간을 시작으로 청춘 체육대회, 패션쇼, 신파극, 각설이타령, 촛불의식이 진행됐다. '이수일과 심순애' 신파극과 각설이 타령, 패션쇼 등 즉석에서 이뤄진 장기자랑을 통해서는 평소 발견하지 못했던 노인들의 숨은 재주와 유머를 발견할 수 있었다.



◇강원도 양양에서 처음 열린 '노인 캠프'. 결혼하고 처음 야외에서 캠프를 경험했다는 노인들이 많았을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

둘째날은 조원들의 단결심과 협동심을 기르기 위한 레크리에이션과 가족에 편지쓰기, 샌드위치 만들기 시간을 가졌다. 장세영 사회복지사는 "노령화 사회의 노인포교 및 복지 활성화를 위해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고해를 정토로 바꾸자"

90년만에 재현된 건봉사 염불만일회

2천여명 참가 "기쁘나 슬프나 염불정진"

모든 의식 한글진행…1만일 결사 선포


◇전국에서 모여 든 2천여불자들은 '힘차게, 신나게, 멋있게' 2박3일 간의 염불정진을 이뤄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춤으로 구현해 낸 아미타춤 무용단의 공연은 극락정토를 몸짓으로 그려냈다.

금강산이 시작되는 남한의 첫줄기 건봉산 건봉사. 한때 500명이 넘는 젊은 수좌들이 정진했던 건봉사에서 5일~7일 제6차 전국염불만일회(공동대표 해장 보광 김재일) 2천여 불자들이 한마음으로 아미타불을 염송했다.

이번 전국염불만일회는 758년 발징화상이 스님과 신도 1천여명과 더불어 염불만일회를 개설해 기도정진한 것이 효시가 돼, 1908년 건봉사 주지 금암의훈스님이 제5차 염불만일회를 연이후 90년만에 이뤄진 것.

"힘차게, 신나게, 멋있게 염불합시다"라는 주제를 내걸고 대웅전과 지장전, 염불당 등을 가득 메운 불자들은 "염불만일회가 처음 시작되어 이곳 건봉사에서 천년을 이어왔듯 앞으로 천년, 그리고 영원히 이어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서원한다"는 김재일법사 결사 발원문 낭독에 두손을 모았다.

건봉사에서 수학한 설산스님(정토사 조실)은 "즐거울 때도, 슬플 때도, 화가 날 때도 손뼉치며 나무아미타불을 부릅시다"며 육환장과 가사를 전달했다. 이어 염불만일회 결사 선포식과 만세 삼창. 그리고 참가자 전원이 연비로써 1만일동안 아미타염불정진을 부처님께 약속하는 의식이 이뤄지기도 했다.

2박3일간 밤낮없이 진행된 이번 염불만일회에서는 모든 의식을 한글로 진행해 이채로움을 더했다.

이번 제6차 전국염불만일회에는 보천스님(84), 삼오스님(78), 보광스님(공동대표 동국대교수), 선진규법사(봉화산 정토수련원장), 안동일변호사(재가회의 공동부회장), 금암의훈스님의 아들 이영선씨(70)등도 참가했다.

모든 참가자들은 고려 공민왕 12년에 남녀신도가 아미타부처님께 올렸던 발원문처럼 아미타염불로 육근을 청정히 하고, 고해에서 벗어나 영원한 진리세계 정토건설에 한걸음 다가갔다.

제6차 전국염불만일회는 앞으로 27년 5개월이 되는 2025년 12월21일 만일염불의 대결사를 회향하게 된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행사절정 이룬 '아미타 춤' 공연

신심·환희 넘친 관음무공양

"극락정토 서방세계 아미타불이시여, 법문을 내려주옵소서. 통일염원 이뤄주옵소서, 극락정토 이도량 다시 꽃피게 하소서!"

6일 오전 신라 경덕왕 17년에 31인이 승천했다는 민통선 안 등공대에서의 아미타춤 무용단(단장 한순옥)의 헌무는 제6차 전국염불만일회를 절정으로 이끌었다.

지난 5월 결성된 아미타춤 무용단은 최승희의 제자 한순옥씨(67)가 안무를 맡아 부처님 가르침을 춤공양으로 구현하겠다는 서원을 세운 40대에서 70대의 여성불자 28명이 모여 결성됐다.

연꽃무와 관음무를 선보인 이번 공연에서 한씨는 정토왕생을 표현하는 구품연지를 수인으로 보여주었다.

아미타춤 무용단 결성에 견인차 역할을 한 오영희씨는 "기능적인 춤보다는 신심으로 추는 환희로운 춤으로 회향하기 위해 항상 하심하고 구도 고행하는 자세로 2달동안 일심으로 연습했다"고 말했다.

"산은 산으로 바람은 바람으로…"

광명선원 노인불자 15명 하안거해제

경북 군위군 팔공산 제2석굴암(주지 법등) 광명선원에서 6일 이색적인 하안거 회향법회가 봉행돼 눈길을 끌었다.

60세가 넘는 고령의 할아버지 할머니 불자 15명이 하안거 기간동안 선방스님들과 똑같이 화두를 참구하며 용맹정진한 것. 특히 이번 하계수련회에 동참한 노인불자들은 대부분 20~30여년동안 전국의 선방에서 용맹정진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재가불자 수행의 사표가 되고 있다. 30여년동안 전국의 선방에서 용맹정진했다는 춘광거사(80)는 "산은 산으로, 바람소리는 바람소리로 모두가 생명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선의 세계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명선원은 80평에 50여명이 정진할 수 있는 시민선방으로 지난 5월 문을 열었다. 사찰의 시민선방으로는 전국 최대규모라는 것의 사찰측의 설명이다.

주지 법등스님은 "팔공산에 재가자들의 전문 참선도량이 운영되기는 신라시대이후 1천년만의 일"이라며 "재가불자들이면 누구나 선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선암사 운영위 구성

태고종 스님등 41명 참여

태고종(원장 인곡)은 10일 선암사에서 전국시도교구 종무원장과 각급 기관장, 선암사 재적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열고 '태고총림 선암사 운영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은 선암사 주지스님을 당연직으로 하고 전국시도교구 종무원장과 각급 기관장, 선암사 재적스님등 각 20명씩 총 41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또 운영위원의 구성은 종단측은 총무원에서, 선암사 재적스님측은 지암 前 선암사 주지스님을 비롯한 7인 전형위원을 구성해 20일까지 각각 선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도필선 기자

함양 벽송사에 방화

신축 방장선원 전소

5일 새벽 01시30분경 경남 함양군 마천면 추성리 조계종 벽송사(주지 한결)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신축중인 48평규모의 방장선원이 전소됐다.

사찰측에 따르면 "잠을 자던중 마을 주민들이 불이 났다고 소리쳐 나와보니 선방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고 말했다. 방장선원은 지난해 말 착공해 올 연말 완공예정이었다

함양경찰서는 신축중이던 요사는 전기시설 등이 가설돼 있지 않고 공정 80%상태의 목조건물인 점으로 미뤄 방화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다.

김중근 기자

실직자 자녀보호소 개원

진각종 '선재의 집' 30명 대상 운영

불교계 처음으로 실직자 자녀들을 일시 보호·양육하는 곳이 생긴다. 진각복지회(상임이사 회정)는 실직자 자녀를 위한 아동단기보호소인 선재의 집을 24일 개원한다.

성북구 하월곡동 22-1에 소재한 선재의 집은 실직자들의 자녀 중 3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아동 30여명을 대상으로 6개월에서 1년까지 보호, 양육한다. 일체의 경비는 선재의 집에서 전담하며, 두달에 한번 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단기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또 6개월 이상 입소 아동 중에 취학아동은 인근학교로 전학시켜 교육문제를 전담한다.

선재의 집은 이밖에도 부설기관으로 실직자 가정 상담소를 운영, 각종 실업관련 상담과 자녀상담, 건강상담, 후원자 개발 등의 사업을 전개한다. 실직자 가정상담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남산답사 안내등 '홈스테이' 운영

경주기행연구원 발족

경주에 가면 불교문화재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신라사람들 경주기행연구원(원장 손수협)은 8일 개원식을 갖고 사찰 남산 유적지 등의 답사프로그램을 비롯 '홈스테이'를 운영한다.


◇유적지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주기행원이 지난 8일 개원됐다.

경주기행연구원은 8월부터 탑과, 불상, 신라의 가람, 암각화 등을 테마로 하는 '나도 문화재 전문가' '청소년 삼국유사 현장체험' 답사 등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경주기행단은 신라의 노천불상, 월명재 및 충담재, 저자와 함께하는 역사여행, 민속공예 장인과 토기제작 등 각종 테마답사를 기획,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경주기행연구원은 '홈 스테이' 운영을 위해 망월사 등 사찰 2곳과 시내·외 13곳을 홈스테이로 선정해 놓고 있는 상태다.

김중근 기자

어린이법회 교사대학 생긴다

부불련 '동련불교대학' 교계최초 내달 1일 개원

어린이법회 지도교사들을 위한 전문교사대학이 처음으로 개설돼 새싹불자 포교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부산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정여)는 어린이법회 전문지도교사양성과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9월 1일 동련불교교사대학을 개원한다.

부산 양정청소년회관에 강의실을 마련한 동련불교교사대학은 1년 학제로 부처님일대기, 불교학개론, 포교방법론, 비교종교학, 불교의식과 비롯 찬불가, 만들기, 레크리에이션, 아동다루는 기법, 감정통제와 나 전달법 등이 주요 교과목으로 진행된다.

이밖에도 어린이법회가 운영중인 사찰이나 사무국에서 연수회와 현장수업 등도 받게된다. (051)853-5486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법당 집기등 파손

30대 전과자 구속

대구 남부경찰서는 3일 불광사·불광대학 법당에 난입해 불단 인등 등을 훼손한 장모씨(39·남구 대명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2일 낮 12시30분 불광사에 들어가 예불을 하고 있는 주지스님에게 시비를 건 뒤 촛대 등을 휘둘어 3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대마를 복용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 사찰이 이교도는 물론 정신질환자나 전과자 등의 난입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교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스님과 재가불자를 위한 승복, 우리옷의 전당

가사야가 사부대중께 개업 인사를 드립니다.





가사야 견지동 개점에 즈음하여 모든 스님, 불자님께 인사 올립니다.

저희 가사야 임직원 모두는 그동안 스님, 불자님들의 호의와 배려를 잊지않고 보은하고자 전통의 멋과 현대감각을 살린 승복, 우리옷을 만들어 신심을 돋울 수 있는 제품 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지나실 때라도 들려주시면 따뜻한 차한잔의 여유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야 대표 김 여여성 합장

가사야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71번지
Tel : (02)723-9714

가사야와 함께 아름다운 우리의 멋을 보급할 지역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불교복지시설도 '님비' 몸살

포항 정애원 · 경주 불광원 등 주민반대로 착공못해

'혐오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 것은 안돼.' 쓰레기 소각장이나 매립장, 교도소 등 혐오시설이 자기 동네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현상이 불교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열린가람(대표이사 난승)이 추진하고 있는 무료양로원 (가칭)'정애원'과 한국불교사회연구원(이사장 성타)이 추진중인 불교종합사회복지관 '불광원'이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열린가람은 지난 4월25일 포항시 북구청으로부터 정애원 건축허가를 받고 6월18일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계리 산 117-3번지 일대 1만여평의 대지에 건평 3백67평 규모의 양로원 건립을 위한 기초토목공사를 시작하려 했으나 청계1리 주민들이 트럭을 동원, 공사를 방해해 공사가 연기된 상태다.

주민들은 정애원을 복지시설이 아닌 혐오시설로 규정하고 정애원이 들어설 경우 오폐수와 쓰레기로 인해 청계리의 상수원이 오염되는 것은 물론 차량증가로 인한 소음등 각종 공해가 심각해진다는 점 등을 들어 양로원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대해 열린가람 대표이사 난승스님은 "무의탁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을 혐오시설로 간주한 경우는 우리나라에 없던 일이다"면서 "관할구청 역시 적법절차에 의한 공사를 대화로써 추진할 것을 종용하고 있어 늦어도 9월 중순에는 공사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국불교사회연구원이 지난 4월13일 경주 원효사에서 기공식을 갖기로 한 '불광원'도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불교사회연구원은 노인·아동복지시설과 출소자 생활관을 겸한 불교종합사회복지관 불사가 주민들의 오해로 난항을 겪자 복지관 건립불사를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불교계의 복지불사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에 부닥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4월8일 실직 노숙자들을 위한 일시보호시설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보현의 집'이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개원하지 못하고 한달 뒤에 서계동으로 장소를 옮겨 문을 열었다. 이유는 '부랑자 수용시설이 아니냐, 땅값이 떨어진다'는 등의 주민들의 오해와 이해관계 때문이었다.

이에앞서 승가원 부설 소쩍새마을(원장 보각)이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송한리 일대 부지 19만평 중 4만여평의 부지에 추진허 온 종합복지타운 건설도 올해 2월 어렵게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장마철에 노숙자들의 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사진은 서소문공원에서 천막생활을 하고 있는 아랑이네 가족. 절박한 심정에서 사진촬영에 어렵게 협조했다. '아침을 여는집'은 매주 10kg의 쌀을 서소문공원의 두 가족에게 각각 지원해 왔으나, 노숙자 무료급식에도 쌀이 모자라는 지경이라 불자들의 도움을 바라고 있다.

교계 노숙자 시설들 여름위생관리 '골몰'

현재 서울을 비롯한 주요 대도시에 흩어져있는 노숙자들은 모두 4천여명. 본격적인 장마철로 접어들면서 이들은 요즘 세면과 목욕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결핵·전염병 등의 여름철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장기화되고 있는 노숙으로 인한 갖가지 질병도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수해까지 겹쳐 이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어서 정부와 시민들의 지원이 시급하다.

불교계는 현재 급식소나 숙소 등 노숙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같은 의료활동을 하는 곳은 몇군데에 불과하다. 현재 의료봉사를 펼치고 있는 교계 단체는 길음복지관과 '자비의 손'(불가침구학회) 등 몇몇 침술봉사단체들뿐.

수해 등으로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올 여름, 불자들의 원력으로 노숙자들의 건강을 지켜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재경 기자

조계종 국제포교사회 창립

회장에 양장운씨

21세기를 앞두고 한국불교 국제화에 기여하게될 국제포교사회가 창립됐다. 〈관련기사 4면〉

조계종 국제포교사회는 12일 연등국제불교회관에서 국제포교사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초대회장에 양장운(국제포교사2기·사업)씨를 선출했다.

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의 내실화를 이룬 뒤 해외포교에 진력하는 국제포교사회가 되도록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제포교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해외포교 △외국인포교 △해외불교교단 및 단체와 교류 △한국불교 국제화 △국제불교 현황을 수록한 회지발간사업등 앞으로의 계획을 확정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뉴스 & 뉴스

9월7일 조계종 행자교육

조계종 교육원이 주관하는 제15기 행자교육원이 9월 7일 통도사 취운암에서 2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자교육에는 지금까지 남행자 154명, 여행자 135명 등 총 289명이 입방신청을 마쳤다. 이은자 기자

불국토한의원 순회진료

사회복지법인 불국토(대표이사 정관)한의원은 매달 정기적으로 농촌지역 순회진료에 나서기로 하고 16일 밀양시 삼랑진읍 행촌리에서 지역주민들 위한 제1차 무료진료를 실시, 14일분의 약을 지급했다. 불국토한의원은 노인, 실직자 및 영세가정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051)758-8167
김재경 기자

승가원 그룹홈등 '여름캠프'

승가원(이사장 지하) 산하 4개 그룹홈 및 주간보호센터 녹야원은 각각 여름캠프를 다녀왔다.

4개 그룹홈 가족 41명은 7월29~8월1일 3박4일간 강원도 동해시 망상해수욕장에서 캠프를 열었다.

녹야원은 장애아동과 직원 등 29명이 8월 5~6일 강화도로 여름캠프를 다녀왔다.

이번 여름캠프는 장애인들에게 야외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용기와 자연속에서의 활기찬 휴식을 선사했다는 것이 동행한 자원봉사자들의 평가다. 김재경 기자

공원공단 감원등 구조조정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환경부는 12일 공단 인력의 4분의 1을 감축하는 한편 매년 정부가 지원해 온 운영자금 50억여원을 내년부터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9월15일까지 공단 본부와 23개 국립공원관리공단사무소에 대해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잉여인력의 퇴출 및 자연환경보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는 등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키로 했다. 임연태 기자

금선사 공원내 경내지 불하

교계 첫 1천1백평

국립공원내 사찰 경내지도 불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종로구 구기동 북한산 공원내 금선사(주지 법안)가 6월10일 경내지 1천1백여평을 불하받고 7월 27일 등기절차를 거쳐 불하절차를 최종 마무리했다. 그동안 국립공원내 전통사찰은 자연공원법 53조(처부제한)에 묶여 불하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금선사 불하를 계기로 국립공원에 사찰들의 경내지 불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금선사는 95년부터 불하를 추진, 95년 12월 전통사찰 등록후 1천1백여평을 경내지로 확정했으며 96년에는 임야였던 것으로 종교용지로 지목변경하는 등 1년9개월여만에 불하를 받게 됐다.

법안스님은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전통사찰의 경내지 수십만평과 일반 전통사찰 경내지의 불하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해수관음상 수중봉안

승가대, 강릉 앞바다에

남북통일과 국난극복, 영가천도를 위한 해수관음 수중봉안식 및 수륙대재 '삼천불자서원 동해비나리'가 9월 18일 오후 1시 강원도 강릉시 경포대 해변에서 열린다.

중앙승가대학교 해수관음 수중봉안봉행위원회(공동집행위원장 도후·현해·지하)는 강릉시 인현동 853번지 경포해수욕장 내 오리바위 인근 4㎡의 수중 8m에 높이 3m 규모의 해수관세음보살 입상을 봉안키로 하고 8월초 해양수산부와 문화관광부, 강릉시 등 관련 부처에 공유수면 점유허가와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았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불교유물에 아직도 일제 흔적

구미 쌍룡사에 쇠말뚝 남산석불 총독부 음각

광복 53년째를 맞는 지금까지도 일제 민족문화말살정책의 잔재가 청산되지 않고 있다.

전북 구미시 장천면에 위치한 쌍룡사(주지 석불)에서는 경내 법당과 연결된 쌍룡바위 밑에서 일제가 우리 민족의 정기를 끊기 위해 박아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쇠말뚝이 발견됐다. 지름 1.8㎝, 길이 1m 정도의 쇠말뚝은 6월 석불스님이 동굴입구의 흙을 제거하고 내부를 관찰하다 발견한 것이다. 쇠말뚝을 감정한 결과 일제시대 것으로 확인돼 구미시는 14일 쇠말뚝을 제거했다. 한편 경주의 불교유물에도 일제시대의 흔적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 금오산 남측에 위치한 보물 제187호 석불좌상 옆에도 가로 80㎝, 세로1.2m 크기의 화강암에 '대정 11년(1922) 이 불상이 도난된 후 대정 13년에 복원됐다'는 내용과 조선총독부라는 글귀가 음각되어 있다. 경주시 버반동에 위치한 사적 제8호 사천왕사지를 관통하고 있는 동해남부선도 일제 민족문화말살정책의 일환이다.

경주시청 문화과 서용봉과장은 "일제 때 철도건설로 훼손된 유적지는 화천리 고속철도 역사가 계획대로 건설될 경우 자연복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사찰종합보험

동부화재서 개발 성보등도 가입가능

사찰의 화재나 안전사고, 문화재 도난 등 재난을 대비한 보험이 개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부화재(대표 송인기)가 신상품 '사찰종합보험'을 개발 1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동부화재의 사찰종합보험은 화재, 배상책임, 상해, 도난 등 네가지 담보를 통합한 상품으로 도난에 대한 가입은 선택사항이다.

화재 담보는 건물 탱화 불상등의 화재는 물론 경내외 수목에 대한 화재와 풍수해에 의한 파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배상책임은 사찰 시설에 기인한 탐방객 배상의 경우는 물론 주차장 시설에 기인한 배상과 사찰이 제공한 음식물에 기인한 배상 책임도 가능하다.

상해담보는 스님들의 일반상해나 교통사고 질병에 의한 상해등 선택의 범위가 넓다. 무엇보다 사찰내의 동산을 비롯, 불상 문화재 귀중품, 현금등의 파손과 도난에 대해 자유로운 선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사찰종합보험은 가입 범위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 기존의 화재브험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목탁소리

스님을 위한 '아멘'

김 정 은
〈취재2부 기자〉

지난 9일, 일요일 오후 서울 적십자병원 801호.

파주 보광사의 수해로 부상을 입고 입원중인 하림 스님의 병실로 두 남자가 들어섰다. 얼굴 가득 환한 웃음을 띄우며 들어온 두 사람은 스님 병문안 온 사람이 아니었다.

손에 들고 있는 두터운 성경책과 서울 순복음교회에서 발행한 전도신문. 주일(?)을 맞아 병실을 돌며 선교를 하고 있었던 듯 병실에 들어서자 마자 침대에 누워있는 스님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다. "많이 다치셨네요.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까?"

환자복을 입고 며칠째 깎지 못해 머리가 조금 자라 있었기 때문일까. 미처 '스님'이란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듯 했다. 수해를 당했다는 말에 두 사람은 스님의 손을 꼭 잡으며 "이만하기 천만다행"이라며 위로를 했다. 그리고 다시 몇 마디의 말이 오가고 난 뒤, 그제서야 "스님이신가요?"라고 물었다. "그렇다"는 스님의 말에 조금은 멋적은 웃음으로 "몰라뵈서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보광사의 피해정도와 다른 스님들의 안부를 물었다. 그리고 "스님을 위해 기도를 해드려도 되겠냐"고 물었다. 스님의 흔쾌한 허락에 두 사람은 스님을 사이에 두고 스님의 쾌차와 보광사의 빠른 복구를 기원하는 기도를 올린 후 병실을 나갔다.

참으로 감동스러웠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훼불사건과 종교편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개신교 전도사가 스님을 위해 기도를 올리는 모습, 바로 종교화합의 작은 실천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적극적인 호스피스 활동과 불교계의 현실이 저절로 대비되었다.

얼마전 불자로 알려졌던 배우 손창호씨가 투병끝에 기독교의 한 기도원에서 눈을 감았다는 보도는 씁쓰레 했다. 한때 불교방송에서 '백팔가요'를 진행한 그는 "스님이 되겠다"고 밝히곤 했을 정도로 신심깊은 배우였는데 갈 곳없는 한 몸 의지할 수 있다는 이유 하나로 기도원에 의탁했으니 교계의 무관심이 안타깝기만 했다.
〈jekim@buddhapia.com〉

여성고민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자연향) 테크팬과 멘톨이라는 정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질을 산화시킵니다.

향비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채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서초구 김미선)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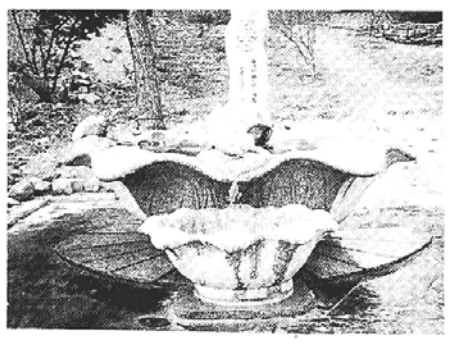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석불, 천불전, 만불전, 석탑, 석등, 부도, 연꽃수각, 공덕비, 주춧돌등··

일·심·석·재

다양한 석재물을 만들어온 28년의 경험과 국제기능올림픽 입상경력으로
현재까지 정성으로 조성하고 있사오니 언제 어디서도 문의주시면
바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 기능올림픽 수상

작품 실적

- 전주시 효자동 일원사 불사 96년 초부터 현재 불사 조성중
- 108벌 오층석탑 완성
- 지장불, 미륵불, 비로자나불, 약사여래불, 아미타불, 대불 오불성전 완성
- 현재 좌불 만불전 조성중

※ 전국 각 사찰에 많은 불사를 하였습니다.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공 장 : T)0653-53-7527 F)0653-53-7527 자 택 : T)0653-833-4850
휴대폰 : 011-673-7527 BB : 012-672-7527
대 표 김 옥 수 합장

입 문

극락안내하는 염불 수행법



■염불의 의미와 공덕
/운주사 편집부 엮음

'나무아미타불' 이 한마디에는 실로 수많은 공덕이 담겨 있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염하면 누구라도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토사상이다. 그러나 이 정토사상을 하근기의 열등한 사람이나 하는 수행으로 비하시키는 경향도 없지 않다.

그래서 염불신앙이란 무엇이고 정토신앙의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는지를 자세히 밝혔다. 그리고 염불의 이익과 염불삼매에 드는 법, 입종시 염불의 공덕,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가 갖추어야 할 자세 등 실천적인 방법을 설명해 놓았다.

극락세계(정토)에 왕생하는 인연을 맺고 싶은 사람은 이 책을 절체보라. 자신에게 맞는 인연법을 찾아내 그 실천공덕으로 정토에 왕생하는 연(緣)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운주사 3,500원 (02)720-9372

청소년 눈높이 불교 입문서



■똑똑똑 불교를 두드려보자/윤원철 외 지음

아주 쉽고 단순한 주제를 택해 청소년들의 궁금증을 유발시킨 후, 자연스럽게 그들이 불교의 세계로 들어오도록 하고 있다.

너무 쉽고 단순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10가지 질문에 대해 부처님과 불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해외보는 '고마성자들의 궁금증'편과 불교에서 자주 사용되는 비유를 통해 그 속에 들어있는 세상의 진실한 모습을 살펴보는 '생각하는 이야기'편으로 전개된다. 또 '쉬어가는 페이지'코너는 불교에서 가르쳐 주는 삶의 방식들을 자신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재미있고 쉬운 내용이어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느덧 불교가 곁에 와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시공사 7,000원 (02)588-0831

에 세 이

작은 얘기속에 담긴 큰 깨달음



■마음을 열어주는 작은 이야기들
/서문 성 엮음

"나는 요즘 작은 이야기 속에서 큰 깨달음을 일깨워주는 아주 평범한 현자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작은 이야기들 속에 깨달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썹이 없어 엄청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던 어떤 여자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만날 때마다 혼신을 다해 눈썹을 예쁘게 그리고는 새롭이 흠뻑 들은 결혼을 하고 그녀는 미침내 아이를 낳았다. 남편은 방원침대에서 밤에 젖어 누워있는 그녀의 얼굴을 닦아주기 시작했다. 눈썹을 뺀 나머지 부분만을. 아주 정성스럽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눈썹 없는 여자' 이야기)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1백50가지나 담았다. 불을 지피고 방이 따뜻해지기를 기다리듯이 순리와 상식이 통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보인다.

도서출판 함 6,000원 (02)3474-3521

산사생활의 멋과 여유담아



■세상에서 참 행복한 사람/나무불 스님 지음

경북 성주군에 있는 천상산 갈장도량에서 '소먹이는 일'을 배우며 이웃한 사람들과 자연과 함께 사는 나무불스님(법명 지해)의 생활의 단상들을 모은 산문집.

청정한 삶에 안온이 있고, 마음을 비우면 선악이 따로 없음을 음조리면서 청빈하고 선하게 살 것을 얘기한다. 그리고 자유로운 삶을 꿈꾸지만 부질없는 욕망을 놓지 못하고 고뇌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눈길이 공존을 준다. '세속을 떠난 무욕의 삶, 두위지연의 탈속한 삶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책. 산문집이지만 시집에 가깝다. 깊은 산사의 자연과 일상의 삶 속에서 자족(自足)하며 살아가는 스님의 모습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그 동안 잊고 살았던 또 다른 세상을 만나게 한다.

민족사 6,000원 (02)732-2403

生活속의 선수행 안내서



■현대인과 선(禪)
/가마다 시게오 · 기노 가즈요시 지음

요즘 선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생활환경이 복잡해지고 일에 쫓기고서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이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선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나 선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지 몰아 볼 곳이 마땅치 않다.

이 책은 일상 생활을 해 나가면서 어떻게 선을 수행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를 말한 선의 지침서. 선에 대한 개념 정의와 선의 역사도 설명했다. 자신이나 주변 친구의 체험을 통해 선의 참 정신을 이 시대 언어로 표현한 것이 특징. 신과 문화의 관계도 다뤄 선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정신적 가치를 높여주고, 또 어떤 문화 양태로 발현했는지도 소개했다.

대원정사 7,000원 (02)757-6717

佛名의미 자세히 소개



■불명사전/고성훈 엮음

불명(佛名)은 자성을 상징하는 방편으로서 자성을 일깨우는 도구다. 모든 거사와 보살들이 지닌 불명은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런 각각의 불명이 갖고 있는 뜻을 다양하고 자세하게 해설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불명사전으로 거사불명 7백개와 보살불명 7백20개 등 모두 1천4백20개의 불명을 실었다. 아울러 불교의 여러 가지 경전 구절을 곁들여 수록함으로써 자칫 설명만 설명되어 식상하기 쉬운 사전식의 체계에 다양함을 가미했다. 또 권신도를 위해 수계(受戒)의 의미와 의식 순서를 자세한 설명과 함께 수록했다.

시시처처 누구나 할 것 없이 5계의 불명을 받아 지니고 그 불명대로 수행하고 공덕을 쌓는다면 이 사회는 날로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염원도 책 속에 담았다.

우리출판사 20,000원 (02)313-5047

기 타

본 지면은 출판사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신간도서의 홍보기회를 제공하고 독자들에게는 정리된 책의 내용을 미리 파악하게 하여 꼭 필요한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획기사형 광고면입니다.

■참여문의 : 현대불교신문 영업부 ☎ 02)732-1522(직)

금주의 베스트

맑고 청빈한 얘기 '한폭 수채화'



■산에는 꽃이 피네/법정 스님 지음

평생을 청빈한 삶을 실천해 온 법정스님(맑고 향기롭게 회주)의 법문이 때로는 거센 물결기처럼, 때로는 경혜히 내리는 싸락눈처럼 녹아 내린다. 그리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노라면 단순하면서도 가난하되 절제된 아름다움을 지닌 스님의 삶은 우리가 갈망하는 '풍요로운 갑옥'에서 벗어나라는 깨우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 깨우침을 류시화 시인이 법정스님의 말과 법문을 핵으로 묶기면서 고구마를 캐는 듯한 풋풋한 글내로 담아냈다. 명동성당 축성 1백주년 기념강연과 작은 모임에서의 법문, 서너 사람이 모인 사석에서 들려준 얘기 등 아주 다양한 내용이 마치 시어처럼 맑고 잔잔하게 흐른다.

동쪽나라 7,000원 (02)263-1941

쉽게 풀어쓴 불교 기초지식



■불교입문/조계종출판사 엮음

누구나 쉽게 불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신도입문서의 백미. 하지만 이 책은 이런 걱정을 옛말로 만들었다. 불교학자와 조교일선 스님, 포교사 등 전문인에게 의뢰해 쉽고 체계적으로 기획됐다.

교학보다는 믿음과 행을 강조하면서 불교의식(儀式)과 문화, 상식, 기초교리 등 불자가 알아야 할 기초지식을 쉬운 용어로 설명해 사찰에서 활용해도 손색이 없도록 구성됐다.

불교란 무엇인가에서부터 불교의 수행법, 부처님의 깨달음, 불교와 인생, 함께 사는 세상, 절을 찾아서 등 모두 여섯 장으로 구성돼 있다.

뿐만 아니라 환경, 동일, 봉사,성보의 이해와 보존 등 이 시대 불자들의 과제에 대한 불교적 해답까지 제시하고 있어 불교를 폭넓게 이해시키고 있다. 조계종출판사 4,500원 (02)733-6390

늘 곁에 두고 보는 행복 지침서



■불교신행의 주춧돌/우룡스님 지음

신도들의 신행상담에 우룡스님은 오히려 되묻는다. 그러나 그 되물음은 나침반처럼 한 방향을 가리킨다. 행복한 삶은 반드시 기초가 튼튼해야 하고, 그 기초는 불심을 주춧돌 삼은 바른 신행생활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으로.

거창한 말로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하는 식의 법문이 아니다.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에서부터 밝자다운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일깨운다. 돈과 명예, 권력에 대한 욕심, 게으름, 등어리, 망상(어) 등 삶의 모든 굴레에 대한 다양한 일화와 고사를 통한 가르침이 돋보인다. 삶을 올바로 직시하고, 삶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깨우치라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효림 5,000원 (02)587-6612

재미 · 감동 줄 금강경 체험담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윤율순 지음.

금강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생활화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생활 속의 지침서다. 자신의 체험과 경의 내용에 알맞는 실감나는 다양한 실례, 그리고 상세한 설명이 한데 어우러져 재미와 감동을 준다. "내용이 쉬우면서도 불교의 심오한 진리를 남김없이 표현하고 있어, 이 글을 읽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금강경을 독송해보고 싶은 마음이 날 것"이라는 태고종 종정 브성스님의 추천사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저자 자신이 시련과 허무를 딛고 금강경 속에서 찾은 삶의 진실과 80년 인생경력이 녹아있기 때문이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 신우당 8,800원 (02)277-5965

쟁점 통해 불교사상 흐름 정리



■논쟁으로 보는 불교철학/이호걸 외 지음

젊은 불교 연구자들의 문제의식을 담아 논쟁과 비판, 대립과 갈등을 통한 불교철학의 발전사를 보여 주는 연구서.

불교는 인도토속사상과의 논쟁을 비롯해 중국에 들어오면서 도가 · 유가사상과의 조화와 반목, 한국에 들어와서는 유학과의 반목 등 수많은 논쟁을 거쳤다. 그리고 대승불교 내에서의 중관학과 유식학의 논쟁을 비롯해 교종과 선종간의 갈등과 조화 등에 대한 논쟁이 그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논쟁들을 통해 불교사상의 시대적 흐름이나 특징을 찾아내는데 주력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현대불교의 쟁점들'을 통해 불교의 현대적 적용 방향도 모색했다.

예문서원 10,000원 (02)925-5914

금주의 추천도서

여래장사상 · 연기설 새롭게 접근



■연기와 공/마츠모도 시로우 지음

이 책의 부제는 '여래장사상은 불교가 아니다'이다. 부제가 말해주듯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의심없이 관성적으로 불교의 기본적 · 근본적 사상이라고 믿어왔고 말해왔던 여래장사상은 석가모니의 사상이 아니며, 석가모니에 의해 비판, 극복된 석가 전 시대의 사상적 잔해라는 것이다.

석가모니가 깨달았던 불교의 근본사상은 연기설이며, 연기설과 여래장사상은 사상적으로, 논리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고 오히려 서로 대립된다는 것. 이 주장을 토대로 오늘날의 불교가 불교다울 수 있으려면 불교와 비불교적인 것들의 명확한 분별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작업의 핵심이 바로 여래장사상의 비불교성을 밝혀내는 것이라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여래장사상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극복, 그리고 이를 통한 연기설과 공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교학적으로 정체된 오늘날의 불교를 변화시키자는 의도와 함께 연기, 해탈과 열반, 공에 대해 심도 깊게 설명돼 있다. 불교교리에 대한 저자의 새로운 접근방식과 이에 대한 학문적 열정이 돋보인다. 혜원스님 옮김.

운주사 8,000원 (02)720-9372

大·方·廣·佛·華·嚴·經

부처님께서 천상과 인간대중을 위하여 설하신 법문이 팔만대장경이요,
이 중에 가장 최초에 설하신 법문이 대승경전으로서 「대방광불화엄경」입니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 미혹을 떨치고 성도했던 그 깨달음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집대성한 것입니다. 불교의 교리 가운데 가장 심오하고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木 版 本
華嚴經-80券-1,400,000원
法華經-七券- 170,000원
四 敎-七券- 220,000원

목판본 한지한정본으로
재본되었습니다.
이 기회에
빕당장엄용으로, 강본으로
한질씩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합천 해인사 신동 김 창 본 처사
☎ 0599)32-7252 서울 연락처 : 02)962-6477